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RATEGY OF HEALING MINISTRY FOR THE HEALTHY CHURCH GROWTH OF THE SUNG JEE CHURCH

written by

YONG IL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_____
Jeong Kii Min

_____
Moon Sang Kwon

_____
Seyoon Kim

March 25, 2000

A STRATEGY OF HEALING MINISTRY FOR THE HEALTHY CHURCH GROWTH OF THE SUNG JEE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NG IL LEE

MARCH 2000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성지 교회의 치유목회 전략 연구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이 용 일

2000년 3월

ABSTRACT

A Strategy of Healing Ministry for The Healthy Church at Sung Jee Church

Yong Il Lee

Doctor of Ministry

2000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healthy church based upon the four Gospels and Acts and develop a healing ministry strategy for curing sick churches.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build up healthy churches in Korea by developing a healing ministry for local church leaders, pastors and lay persons.

In so doing, it will contribute to diagnosing the condition of local churches by themselves and helping them build up healthy churches all the time.

Furthermore, it will seek for the way to bring a tremendous revival and a great trans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into Korean churches.

Recently, there have been heated debates on the healthy church among church growth experts. As the Bible calls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is supposed to grow and develop naturally if the organism in the body functions properly.

In the presentation, holistic approach is adopted in defining the concept of church because an appropriate definition of church in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might be essential for effective church ministry in the right direction. Several personal experiences such as useful lessons learned from trial and error in God's guidance are also offered in this paper.

This paper is divided into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and the chapter 2 provides the concept of healthy church including the purpose of the church, the origin of the early church in the New Testament and difference between the church in those days and the church today through historical quest.

Chapter 3 deals with a healing ministry in holistic approach. An analysis of healing ministry in the Bible and well being of human is presented. Throughout

Christian church history, the importance of healing ministry has dramatically waned, although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were three major ministries which Jesus Christ focused on the earth.

By rediscovering the importance of healing ministry in the church history, the healing ministry puts its status back on track.

Chapter 4 focuses on the principle of the healing ministry in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viewpoint. Gospels and Acts in the New Testament are used as main sources in the Bible.

Chapter 5 lays out several healing ministry church programs which Sung Jee Church plans to launch. Diseases that can afflict any church are summarized and a healing strategy for curing is also set forth.

Chapter 6 provides the summary and conclusion of this paper.

Today many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are sick. If a given church is not in a healthy condition, the church can not do what God expects it to do.

Christians in the body of Christ have a desperate need to develop cure for diseases within the church. The restoration of healing ministry demonstrated in the early church will contribute to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in healthy condition. By developing a healing ministry strategy, Korean churches will be glorious and victorious along with a tremendous revival.

Theological Mentor : Jeong Kii Min,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말씀

나는 이 논문을 우리 성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친다. 그들이 이렇게 1년 5개월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과 돌봄과 배려와 끊임없는 기도로 도와 주셨음을 잊을 수가 없다. 참으로 많은 빚을 졌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충성스런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 동안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논문을 성심껏 지도해주신 민종기 박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로 도와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한다.

March 2000

목 차

ABSTRACT ····· ii
DEDICATION ····· iv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 2

제 2 장 건강한 교회의 구성요소 ····· 4
제 1 절 교회의 정의 ····· 4
1. 에클레시아 ····· 5
2. 그리스도의 몸 ····· 8
3. 성령 안의 공동체 ····· 9
제 2 절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존재 목적 ····· 11
1. 교회와 선교의 일반적 견해 ····· 12
2. 교회의 네가지 본질을 선교적 관점으로 이해 ····· 13
3. 교회에 대한 현대적 관점 ····· 15
4. 교회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들 ····· 18
5.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예수의 역할 ····· 22
6. 선교적 관점으로 본 교회의 존재 목적 ····· 23
제 3 절 초대교회에 나타난 건강한 교회의 특징 ····· 34
1. 초대예루살렘교회의 건강의 특징 ····· 34
2. 안디옥교회의 건강의 특징 ····· 35
제 4 절 현대교회의 건강한 교회론 ····· 36

1. 피터 와그너의 건강한 교회론 ····· 36
2. 미국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 ····· 37
3. 한국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 ····· 38
제 5 절 건강한 교회의 구성요소 ····· 39
1. 건강한 교회의 정의 ····· 39
2. 교회의 구성원 ····· 43
3. 건강한 교회와 은사 ····· 45
제 6 절 건강한 교회와 가정교회 ····· 52
1.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교회 ····· 52
2. 가정교회와 구역조직의 차이 ····· 53
3. 성지교회 개척 당시의 가정교회의 모습 ····· 54
4. 가정교회에서 리더의 중요성 ····· 55
5. 가정교회에서 목자의 할 일 ····· 56
6. 가정교회와 선교(전도) ····· 60
제 7 절 건강한 교회의 목사의 리더십 ····· 62
1.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실한 소명의식 ····· 63
2.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꿈과 비전 ····· 64
3. 구체적인 분명한 목표 ····· 67
4. 큰 믿음 ····· 69
5. 사람을 키우는 능력 ····· 70
6.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구조조정 ····· 71
7. 의사소통의 능력 ····· 73
8. 자기 훈련 ····· 76

제 3 장 치유에 대한 이해 ····· 79
제 1 절 치유란 무엇인가 ····· 83
1. 용어의 의미 ····· 83
2. 구약성경에 나타난 치유 ····· 84
3. 신약성경에 나타난 치유 ····· 85
4. 치유의 정의 ····· 86

5. 건강의 의미 ····· 87
제 2 절 치유의 목적 ····· 89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 89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 92
3. 우리의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 ····· 94
4. 전도의 기회 ····· 96
5.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해 ····· 99
6.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임을 증거하기 위해 ····· 101
제 3 절 치유의 방법들 ····· 102
1. 예수님의 치유 방법 ····· 102
2.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치유 사례들 ····· 109
제 4 절 네가지 치유의 방법 ····· 113
1. 죄사함을 통한 영적 치유 ····· 114
2. 내적치유/ 깊은 차원의 치유/상한 감정의 치유 ····· 115
3. 귀신들린 사람의 치유/ 귀신 축출 ····· 118
4. 육체적 질병의 치유 ····· 125
제 5 절 치유의 장애물 ····· 133
1. 콜린 우르크하르트의 치유의 장애물 ····· 136
2.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장애물 ····· 137
3. 몰튼 켈시의 치유의 장애물 ····· 139
4. 찰스 크래프트의 치유의 장애물 ····· 141
5. 필자의 치유의 장애물 ····· 149

제 4 장 치유목회에 대한 이해 ····· 153
제 1 절 목회에 대한 이해 ····· 153
1. 목회사역의 여섯 가지 균형있는 표준 ····· 155
2. 목회사역에 필요한 목회자의 인격 ····· 155
3.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기량 ····· 157
제 2 절 성경적 인간이해 ····· 158
1. 원시인의 인간이해 ····· 158

2. 희랍철학의 인간이해 ····· 159
3. 동양인의 인간이해 ····· 159
4. 현대의 여러 인간이해 ····· 161
5. 성경적 인간이해 ····· 161
제 3 절 질병에 대한 이해 ····· 162
1. 구약에서 질병의 이해 ····· 163
2. 신약에서 질병의 이해 ····· 163
3. 질병에 대한 종합 ····· 163
4. 질병의 기원(근원) ····· 164
5. 사탄의 근원 ····· 165
6. 사탄의 이름 ····· 166
7. 사탄의 하는 일 ····· 169
8.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일반적 견해 ····· 170
9. 바울의 육체의 가시 ····· 172
10. 질병의 발생통로 ····· 174

제 5 장 성지교회의 치유목회전략 ····· 182
제 1 절 치유목회의 이론적 근거 ····· 182
1. 신학적 근거 ····· 182
2. 성경적 근거 ····· 192
3. 역사적 근거 ····· 193
제 2 절 건강한 교회의 치유목회사역 ····· 200
1. 성지교회의 역사 ····· 200
2. 성지교회의 현황 ····· 202
3. 성지교회가 소재한 지역 분석 ····· 202
4. 성지교회의 부흥의 부정적 요소들 ····· 203
5. 성지교회의 건강한 면 ····· 204
6. 치유목회 전략에 의한 성지교회 치유법 ····· 205

제 6 장 결론 ····· 209

참 고 문 헌 ····· 212

VITA ····· 218

표 목 차

[도표 1]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일반적 견해 ····· 12
[도표 2]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네 가지 본질 ····· 14
[도표 3] 선교하는 교회의 새로운 용어들 (교회에 대한 현대적 관점) ····· 16
[도표 4] 선교하는 교회의 목적 ····· 21
[도표 5] 교회의 역할과 세상 ····· 23
[도표 6]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개인의 치유에 관한 기록들 ····· 9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초대 예루살렘교회와 현대의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떻게 변천되어 온 것인가? 하나님은 변하시는가? 성경도 변하는 것인가? 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치유가 현대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현대인들은 천국이나 영적인 것들보다는 이 세상과 물질과 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더 믿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건강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은 전인적이며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면 몸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건강은 총체적이다. 인간은 영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인간 관계적, 육체적으로 다 건강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 외적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영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과 교회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도 결국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뿐이다. 건강을 회복해야한다. 개인이 건강을 회복해야한다. 가정이 건강을 회복해야한다. 주위를 돌아보면 병든 가정들이 너무도 많다. 교회가 건강을 회복해야한다. 병든 교회가 너무 많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나라가 건

강을 회복할 수 있다. 교회가 병들면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다.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전인적으로 건강한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교회사에서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 내려왔으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나 표적과 기사, 치유의 역사를 믿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규명할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과 현재 건강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치유의 역사를 연구하고, 현재 치유사역을 잘 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저서를 참조하여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성지교회의 치유목회전략을 필자의 목회 경험을 재조명하여 목회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할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발전과 새로운 개혁을 위하여, 그리고 필자가 목회하고 있는 성지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갖 신령한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한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건강한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길을 찾아 우리 성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치유목회를 정립해 나가려한다.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은 제 2 장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정리한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교회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모체인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초대교회와 현대 교회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에 대한 역사적 규명을 시도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룰 것이다. 치유의 정의, 건강의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치유의 목적을 논의할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치유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전인 치유사역의 4가지 분야를 논할 것이다. 왜 현대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치유의

장애물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치유목회에 대한 이해를 다룰 것이다. 목회사역에 필요한 목회자의 인격과 갖추어야 할 기량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다. 목회에 가장 중요한 인간 이해에 대하여 자세히 다룰 것이다. 질병에 대하여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것이다. 질병의 여러 가지 발생 통로를 기술 할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치유 목회의 신학적,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논술할 것이다. 또 필자가 목회하고 있는 성지교회의 현황과 성지교회의 건강한 면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살펴 볼 것이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열 가지 vital sign check list와 이에 따른 치유 목회 전략을 논술할 것이다.

이어서 제 6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성지교회 치유 목회 전략에 대하여 연구한 것들에 대하여 요약하고 이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제 2 장
건강한 교회의 구성 요소

제 1 절 교회의 정의

오늘날 성령론과 함께 교회론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의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의 성장이란 말보다는 교회의 건강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이므로 교회의 대소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 여부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문제가 된다는 견해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괄목할 교회 성장을 해 온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Rick Warren)목사는 그의 역저 『새들백교회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마찬가지로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만 하다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회는 몸이지 사업체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체이지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살아 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죽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이 균형을 잃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질병(disease)이라고 부르며, 질병은 몸이 '불편함' (dis-ease)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균형을 잃게 되면 질병이 생긴다. 이러한 질병들 중 많은 것들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에서 설명되고 밝혀지고 있다. 건강은 모든 것이 다시금 균형을 잡게 될 때 회복된다. 나는 21세기의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성장이 아닌 교회의 건강이라고 믿는다. 교인들이 건강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자라난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 잔재주를 부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1)

릭 워렌 목사처럼 교회의 힘찬 사역과 바람직한 목회를 위하여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자는 20년간의 목회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

1).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5), 25-26.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이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특성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 대한 이해가 계속 발전해 왔다.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의 여부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 기능과 사명,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하려한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구약에서도 교회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의미만을 다루려고한다. 이 세상에는 민족, 문화, 역사, 종교, 전통에 따라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보이지 않는 신으로서 존재하신 야훼 하나님은 인류구원을 위한 불변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세상에, 역사적 시간 속에 거하게 하셨다.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며,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오셨으며, 절대자가 상대자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이다(요 1:14; 빌 2:8).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죽은 후 3일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위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이다. 그리고 10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시작되었다(행 2:1-4).

그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 땅위에 남겨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인류를 사랑하여 구원하는 일을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맡아서 대행하게 하신 것이다. 이처럼 교회는 중요한 모임인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수행자이다.[2]

교회의 정의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

교회론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에클레시아를 검토함으로써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정치적인 이유로 모인 회중(행 19:39) 또는 회중 자체를 지칭할 수 있다(행 19:32, 39). 에클레시아는 희랍어로서 히브리어 "카알 קהק"

---

2). 이종성, 교회론 I (재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36.

을 번역한 말이다. "카알 להק"이란 말은, "부른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로서,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이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가 직접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사용하셨다.3) 이 말은 옛 계약 밑에서 살던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예수 자신이 불러내어 만든 메시야적 공동체를 의미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의미한다. 이 말은 종말론적 공동체와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뜻한다(행 8:13).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엡 5:27). 바울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한 것은 그곳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거룩한 성령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고 한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신자들만이 모인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재하고 성령께서 사역하고 야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예배를 위해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회중을 가리킨다.

이것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4) 아울러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인 신자들을 지칭하며, 한 지역에 사는 모든 신자들을 지칭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와 합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롬 6:3-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동시적으로 체험하여 살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재확인하고 그의 재림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금은 투쟁을 계속하나, 그가 재림하실 때에는 승리의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소망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곧 종말론적 공동체이다5).

에클레시아는 신약성경에는 115번 나오는데 3번은 회중으로 번역되고 112번은 교회로 번역되었다. 교회로 번역된 112번의 에클레시아를 모두 분석해 보면 다음의 3가지 범주로 나뉘어 진다.

먼저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타난 교회이다. 이것은 지역의 교회를 말

---

3). Ibid., 38.
4). George Eldon. Ladd,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공역. (13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603.
5). 이종성, 교회론 I, 42.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엡 1:22-23)라고 말할 때 나타나는 교회를 의미한다.

둘째 도시 또는 지역에 있는 교회이다. 대도시나 소도시, 또는 지역 교회를 지칭하는데 "에클레시아"가 100번 정도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사도행전 11:28에는, "예루살렘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나오고, 사도행전 20:17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나온다. 이런 것들이 도시 또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셋째 가정에 있는 교회이다.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시작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후에는 그들은 각각 집에서 떡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은 집에서 집으로 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개인의 집에서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5:42에서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이후에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또 회당에서 모이는 것도 그들의 방해로 어렵게 된 후에는 더욱 가정에서 모이게 된 것이다.6)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많은 집을 찾아가서 거하신 기록이 많이 있다.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도 이런 가정에서 모인 교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때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정이 기도, 가르침, 예배 및 교제를 위한 일반적인 장소였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고고학에 의하면, 처음 3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장소는 구별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개인 가정이었다고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위해서 온 집을 비우기도 했을 것이다. 바울은 가정교회들 즉 특정한 집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언급한다. (롬 16:5 ; 고전 16:19 ; 골 4:15 ; 몬 2절 ; 롬 16:14,15). 그 외에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도행전 20:20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빌레몬의 집 등 가정교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이 가정교회에 대한 더욱

---

6). Ron Trudinger, 가정 소그룹모임, 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25.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하여 이후에 더욱 자세히 논할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몸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사용한 가장 특징적인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몸(롬 12:5) 또는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고전 12:12). 바울은 교회가 주와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의 비유를 사용한다. 이 비유의 일차적인 강조점은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통일성이다.[7] 바울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먹고 잔을 같이 나누어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머리에 절대 순종해야한다. 온 몸은 머리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에만 건강할 수 있다. 머리와 몸을 뗄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도 결코 서로 뗄 수 없다. 또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이 하나인 것 같이 교회도 결코 서로 뗄 수 없다. 머리의 운명이 몸의 운명이요, 또한 몸의 운명은 각 지체의 운명과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의 운명과 하나다. 머리는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서로 크게 다르다. 그리고 몸의 많은 지체들이 각자 자기의 할 일을 머리의 명령을 따라 할뿐이다. 몸의 지체가 서로 간섭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울 뿐이다.

몸의 지체들을 기쁘신 뜻대로 배열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일치는 있을 수 없으며 몸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상호 인정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에만 전념할 뿐이다.[8]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건강하면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건강하면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것이다. 사람도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적 요소를 제거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게 될 때 건강한 삶을 살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교회의 병적 요소를 잘 파악하고 제거하고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나아가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지상에서 그분에 하시던 모든 일들을 대신 맡아서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좋은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받아서

---

7). George Eldon. Ladd, 신약신학, 612.
8). Ibid., 613.

그리스도의 몸의 일을 감당해야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요, 그의 입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눈이요 귀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수의 삶은 이 세상에서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계속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위에서 완전히 이루어 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야한다.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전 우주의 질서와 통일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인 것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예배와 증거, 화해와 섬김과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성장하는 유기체인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빌 1:6; 살전 5:24).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 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마 28:20). 교회는 그리스도의 맡기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매일 닮아 가는 선교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 일에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3. 성령 안의 공동체.

하나님이 인류역사에 대하여 사역하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모세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역하실 때도 있었으나 주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하셨다.9)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는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셨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충만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었다. 성령에 취하여 방언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부어 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선포한다(행 2:14-21). 초대교회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

9). 이종성, 교회론 I, 59.

선택받은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였으나, 말세에는 하나님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순절 날에는 주님의 12 제자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설교를 통하여 놀라운 약속을 전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패역하고 반역한 무리들이었으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외칠 때 베드로는 성령의 새 시대의 놀라운 약속을 주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행 2:38-39).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약속이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악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용서받는다는 약속이다. 둘째 구약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성령을 받았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 시대 즉, 성령의 시대를 선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메시아 시대를 성령의 시대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강림하여 주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 해나간 성도들의 기록이다. 성령의 시대인 교회시대의 모든 원동력은 성령이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은 그의 저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영은 친교이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 인식 자체가 영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적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종말론적인 영의 창조이다. 이 의미에서 역사는 종말론으로 바뀌고 종말론은 역사로 바뀐다.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라 불려진다.10)

---

10). Jurgen Moltma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외 4인역 (8판; 서울: 서울신학연구소, 1994), 47.

그는 이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결과로 나타나는 조항을 새로운 삶, 새로운 복종, 새로운 친교, 미래의 것을 알게 해 주는 일 등이라고 한다.

실제로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초대교회에 하신 일을 간추려 보면 첫째로, 성령이 오순절 날부터 시작된 전도와 선교운동을 주도했다. 둘째로, 성령이 새로 새워진 많은 교회는 하나가 되게 했다. 셋째로,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했다.11)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교회를 성령의 사역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해서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계 만물을 해방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역사 안에 있다고 해야한다.12)

이 외에도 신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96개의 각기 다른 영상단어(Word Images)가 있다.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그가 헬라의 논리적 체계보다 히브리 방식인 영상 표현을 통해 교회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울은 적어도 15개의 영상단어(word picture)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이 중 중요한 단어들은 성도(9회), 몸(8회), 무장한 군사(8회) 그리고 신부(7회)이다. 작은 영상 언어들은 주된 개념들을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4회), 아들이나 가족(4회), 건축자, 건물 또는 성전(3회), 찬양의 노래 또는 제물(2회), 새 사람(2회), 마지막으로 한 번씩 비취며 지나가는 영상들이 다양하다.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 하나님을 닮아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왕국, 빛의 자녀, 지혜로운 사람, 대사들(ambassadors). 이러한 명료하고 동적인 영상들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앙고백인 '통일성, 성결성, 보편성'을 밝혀주는 역할을한다.

제 2 절 선교적 관점으로 본 교회의 존재 목적

지역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펴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들은 실로 믿음의 실체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모든 언어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

11). 이종성, 교회론 I, 60-61.
12). Jurgen Moltma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78.
13).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3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1995), 61.

수 있는 기회는 교회의 본질인 통일성과 성결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진 선교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려한다면, 먼저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14)

1. 교회와 선교의 일반적 견해

[도표 1]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일반적 견해

교회	선교
제도화된 조직	개인화된 친교
유급 성직자의 지도	자기 희생적인 선교사들의 지도
부동산을 기초로 함	동산을 기초로 하며 부동산은 적음
기관조직 유지 지향적임	위험이 따라도 새 사업을 지향함
세상에서 구별된 천국 생활	세상 안에서 선교함
질서 잡힌 정책	특수 목적을 위한 조직, 느슨한 정책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조직	봉사자 중심의 개체 조직
자급/자족	계속적인 외부 도움에 의존함
자치/자금 전도	외부로부터 기안되고 조정됨

교회와 선교, 이 두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지만, 우리는 교회와 선교를 따로 이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선교 활동은 교회가 후원이 되고 교회 출신의 성도들이 합하여 행하며, 선교의 열매들은 교회에 속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선교함으로 그의 소명을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되며,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게 된다. 결론은 분명하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고, 교회의 선교를 간과하고서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다.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이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주장하듯이, 교회의 참모습을 갖지 못한 선교도 신적 사도성을 바르게 표현함이 아니다. 교회는 선교적이고 동시에 종말론적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 할 수 없다. 교회의 본질인 통일성, 성결성, 보편성, 사도성은 내향적인 면으로만 보지 말고 선교적 관점인 외향적으로 볼 때 그 의미가 확실해 진다.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 당시 개혁자들이 주장한 교회는 '순수한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전의 집행',

---

14). Ibid., 31.

'정당한 권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도 선교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한쪽 교회를 '참된 교회'라 하고 다른 쪽 교회를 '거짓 교회'로 구분하는 교리적, 논증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종교개혁 후기의 개신교는 자성하는 일과 역동적인 역할을 계속 상실해 갔다.15)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몰트만이다. 몰트만은 '교회 밖의 세상은 전쟁과 불의, 비인간적으로 나뉘어진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속성을 말씀과 성례로만 보는 내적 성찰을 반드시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고, 내적 성찰과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밖을 보는 외적 성찰도 있어야한다. 교회는 교회 내의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증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16)

도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관점은 교회의 본질인 통일성, 성결성, 보편성, 사도성을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선교 운동이나 선교적 사건을 일으키는 '선교적 의미'를 갖고 이해하게 된다.17)

2.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을 선교적 관점으로 이해

전통적으로 교회의 통일성, 성결성, 보편성, 사도성을 교회의 본질로 이해한다.18)

첫째로 통일성이란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로 통일시키는 힘을 볼 수 있다. 교회 생활은 초청하고, 모이고, 받아들이는 생활이다. 유기체적인 결합을 나타내는 성경의 상징들, 몸과 지체의 생활, 결혼잔치 등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말씀을 실천하는 선교적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

둘째로 성결성을 교회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결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 교회 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받고, 치유 받고, 성령의 임재 하심을 경험하게하는 데 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막은 중요한 상징으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표현되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셋째로 교회가 지닌 보편성은 화해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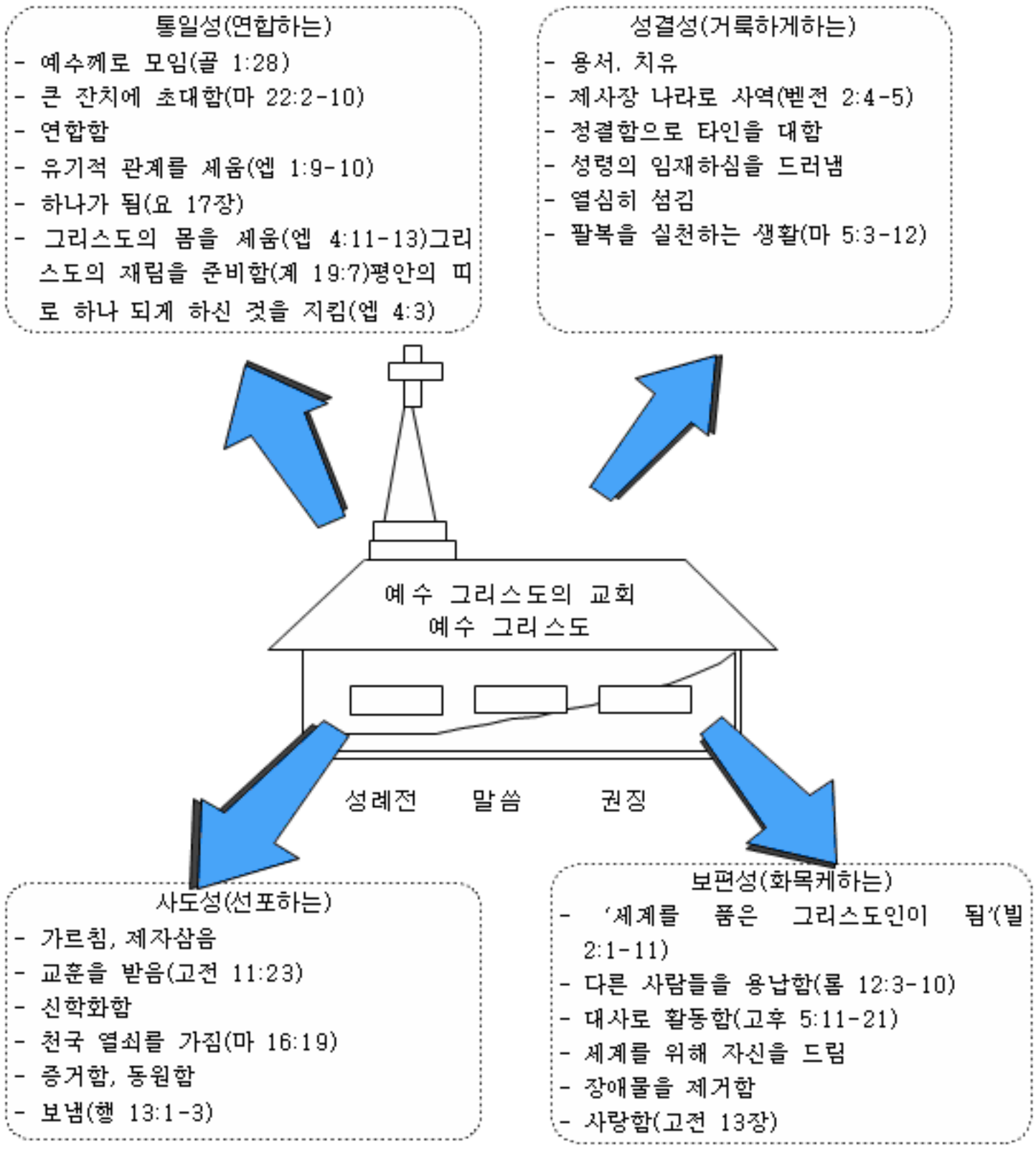
---

15). Ibid., 84.
16). Ibid., 89.
17). Ibid., 92.
18). Ibid., 82.

어져 이방인이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갖는 방법을 보여 주는, 다리를 놓는 운동이다. 여기서 교회는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세상을 부른다

[도표 2]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네 가지 본질

(찰스 벤 엔겐(Charles Van Engen)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p 93)



넷째로 교회의 사도성이란 선포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 진리는 오직 교회 안에 있고, 이 진리는 누구나 찾을 수 있으며, 안정감과 조직을 제공하고 또한 실제적이다.

교회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증거하고 동원하며 가르치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래 된 네 가지 본질들은 교회가 하는 선교 활동만이 아니라 전존재적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지역 교회가 의제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화목케 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서 분리된 것이거나 첨가된 것이 아니다. 지역 교회의 핵심적 본질은 선교이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실제로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선교이다"라는 말과는 아주 다르다.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교회 바깥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은 선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선교 활동들을 하며,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 나가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19)

하나님의 동일하심 안에서 계속 변화해 가는 세계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교회는, 퍼져 나가는 양태를 계속 달리해야만한다. 새로운 생각들은 오늘날 세계에 분명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선교적인 면을 향상시키고 강조해야만한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란20) 세상을 위한 존재,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함, 선교, 선포하는 증거, 그리고 숫자적 성장의 갈망 등이다.

3. 교회에 대한 현대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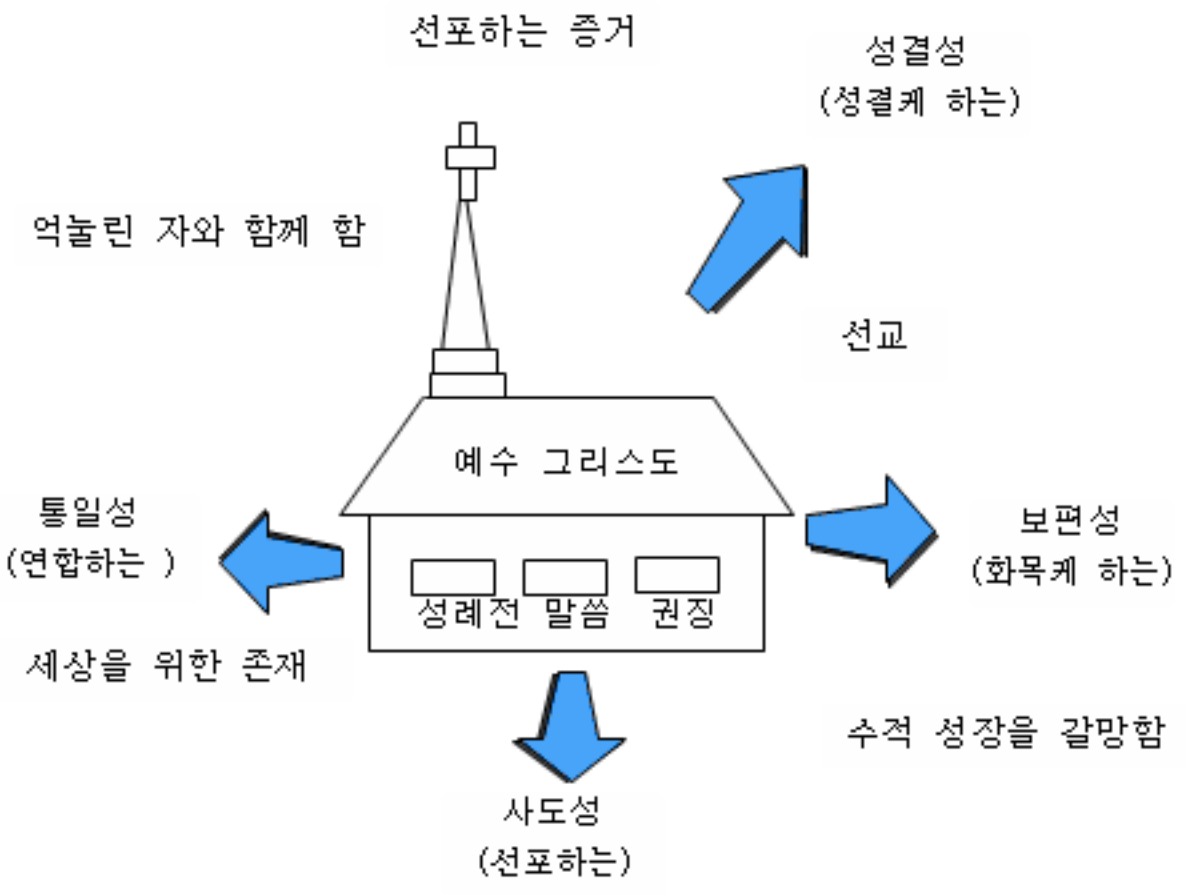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이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할 때에만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특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 존재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을 위한 존재'는 교회의 사도성과 관련되는 교회의 '보내심을 받음'에 대한 한 표현이다. 사도성은 보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함은 교회의 보편성과 관련된다.21)

---

19). Ibid., 94.
20). Ibid., 97.
21). Ibid., 100.

나.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함 : 참된 교회의 모습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도표 3] 선교하는 교회의 새로운 용어들 (교회에 대한 현대적 관점)
(찰스 벤 엔겐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p 110)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자유케하는 사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교회는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 순종하는 교회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 안에서, 세상을 향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선교는 선택과목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성육신이란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선교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리고 성자와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샘처럼 솟아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선교 활동은 교회의 본질에서 흘러나오고, 선교 신학은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그리스도가 주되신 교회의 선교가 아니면 선교가 아니다. 선교 사역은 선교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에 기준이 된다.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갈 때 교회이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다. 선교는 우리 교회들의 사역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도록 도전한다. 만일 선교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본질이라면, 선교는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22)

교회는 선포하는 증거가 있다. 교회의 설자리는 신앙으로 인해 환난이 오는 곳,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곳, 따라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곳에 증거하고, 순교하는 곳이다. 교회의 특성으로서 '선포하는 증거'는 교회를 밖으로 또, 위로 나아가게 한다.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증거는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 말씀 선포에 대한 이해는 종교개혁 당시 설교와 성례, 권징 등 교회의 특징들을 내향적으로 해석하여 교회 내에서만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한 개혁자들의 잘못을 개혁자들은 교회의 특징을 내면적으로 이해하였지만, 선포하는 증거는 교회의 특징을 밖으로 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를 변혁시킨다. 즉 그 본질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이 되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는 결혼 잔치에 손님을 초청하는 종들로 비유될 수 있다. 이러한 교회가 선포하는 증거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 것이다.23)

교회의 수적 성장의 갈망은 성경에서 발견된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며, 이 모든 것들은 한가지 핵심적인 실체를 가리킨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심, 신약에 나타난 모으심, 잃은 양을 찾으심, 온전케 하심, 성장하게 하심 등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갈망한다.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아들이기를 '갈망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 갈망은 하나의 운동이고 하나의 정신이며, 교회를 오순절에서부터 현재까지 세상 속에서 계속 넓히고 계속 나아가게 하고 계속 영향력과 삶의 영역을 키워 가게하는 원동력이다. 수적 성장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선교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며, 세상 안에서 교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성장하도록 참여한다.24)

---

22). Ibid., 106.
23). Ibid., 108.
24). Ibid., 111.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상을 향해, 선교명령에 순종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데서 지역 교회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참된 목적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에서 찾아야한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는 성경적 용어들을 한 번 기억해 보자. 세상 안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인 설명을 각 용어들에 다음과 같이 붙여 볼 수 있다.25)

4. 교회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교회 존재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 목적이라고 보았다.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에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말투리아를 통해서 동참할 때에 이루어진다. 세상 안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인 설명을 각 용어들에 다음과 같이 붙여 볼 수 있다.

가. 코이노니아 : "서로 사랑하라"

교회를 향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이다. 제자들은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최고의 덕목으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이 사랑은 교회의 의무로 여겨 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더 큰 계명은 없다. 제자들의 사랑의 사귐 안에 새롭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의 생명은 항상 제자들이 주님과 다른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사랑의 공동체가 가지는 코이노니아는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말투리아의 기초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밖으로 퍼져 나가는 사랑이기에,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가 '사귐병(koinonitis)'이라고 부르는 병든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귐은 인간 관계들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좋아하게 되고, 서로를 아끼게 될 때

---

25). Ibid., 118.

이 사귐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병이 들면 사귐(koinonia)은 사귐병(koinonitis)이 되고, 이런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만 너무 깊이 빠져들어 교회의 거의 모든 활동들이 초점이 된다. 그리하여 교회 내의 활동들과 인간 관계는 내향적으로 되고 만다.

이것이 필자가 목회하고 있는 성지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도의 사귐이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했을 때 사귐은 사귐병이 되고 만다. 즉 교회는 왜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기도회로 모이고, 이웃을 초대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게 된다. 성도의 사귐과 봉사, 자기 희생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안으로 움츠러들게 된다. 성도들간에 사귐을 잃어버린 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귐마저도 잃게 된다.26)

나. 케리그마 :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벅찬 감격을 견딜 수 없어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리를 선포하였다. 사귐의 공동체는 나사렛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무리들이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을 교회는 선포하였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교회 안에서만 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와 우주적 권세자들에게까지 주가 되심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눅 4:43).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을 주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케리그마적 신앙고백은 필연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포함한다.

교회는 화목케 하고, 구속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나라를, 곧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나라라고 인정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이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일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바른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복음 선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될 때에만 케리그마적(kerygmatic)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인류와 모든 창조물, 교회의 주가 되시

---

26). Ibid., 123.

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그의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러한 복음 선포를 힘있게하는 것은 신앙 고백과 밖으로 표출된 사랑이며 이것이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27)

다. 디아코니아 :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주인보다 높은 종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 이렇듯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를 제자들은 본받아야한다. 종이 된다는 참된 의미를 보여 주는 제자도의 세 가지 면을 살펴보면 증거, 서로 돕는 봉사,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

마태복음 25:31-36에는 주인에게 보고하는 한 청지기가 나온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종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심판하실 때 선한 행동, 희생, 경건한 생활, 예식, 신학 등에 기준을 둔다고 하지 않으셨다. 종들은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심판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게 하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의 확실한 의미를 알게 한다.

교회가 하는 디아코니아 사역은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를 보여 준다. 디아코니아는 간단한 선행 정도나, 세상을 조금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하는 모든 사람 누구나를 섬겨야하는 교회의 핵심적 본질이다. 선교하는 교회에 이런 섬김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적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된다.28)

라. 말투리아 : "나의 증인이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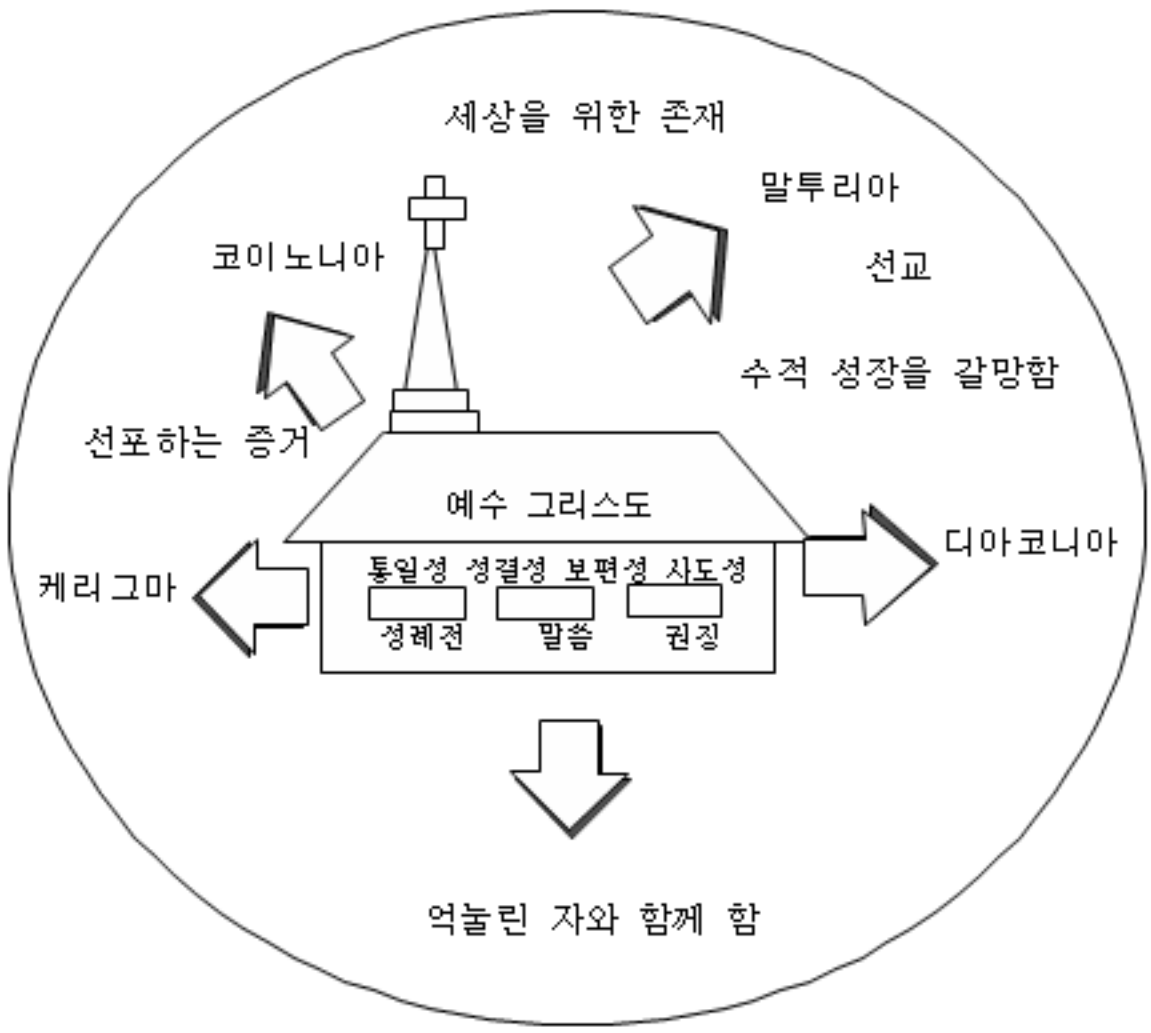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어야한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의 사귐, 공동생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던 복음 증거,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아 섬기는 사역 등 모두가 증인 된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

27). Ibid., 127.
28). Ibid., 131.

[도표 4] 선교하는 교회의 목적

(찰스 벤 엔겐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p 132)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임재, 선포, 강권하는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된다.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사실들을, 사랑의 사귐,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신앙고백, 섬기는 봉사사역들을 통하여 증거한다. 지역 교회 차원에서, 선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랑의 사귐을 이룰 때,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온 세대 최고의 사건을 증거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의 존재목적을 발견하게 된다.29)

교회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로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한다.30)

구약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보여 준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것이다. 이들 각 장의 사역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다. 제사장은

---

29). Ibid., 134.
30). Ibid., 165.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을 도왔다. 선지자는 공중, 사회, 종교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였다. 왕은 조직과 국가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였다.

각 지역 교회는 그들이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을 하도록 일이 맡겨진 활동하는 몸과 같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콜린 윌리암스(Colin Williams)는 "이 세 가지 직분들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본 교회의 본질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개혁자가 본,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예언자), 성례가 바로 집전되는 곳(제사장), 경건한 권징이 유지되는 곳(왕)이다"라고 지적하였다.31)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종의 공동체, 사역 공동체이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사람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5. 교회가 담당해야할 예수의 역할

교회에는 예언자의 역할이 있다. 교회는 인간 사랑과 인간 정의를 실현하게 하며, 도전을 주고, 경고를 주는 일을 설교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낸다. 제사장의 역할도 있다. 가능한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갖게 하고 위로와 용서를 목회 활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낸다. 성례 집전, 상담, 여러 목회적 활동들을 통하여 나타낸다.

교회는 예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자원들을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관리 계획, 훈련 활동들을 통하여 나타낸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치유였다. 치유란 몸의 치유, 마음, 정신적 스트레스, 영적 질병 등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며,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고 외치는 치유자의 역할을 성취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런 사역들을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32) 성직자도 평신도도 같은 마음으로 조직체든 비조직체든 함께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하는데 특별히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분들로 표현되는 사역들을 통하여, 또한 치유자라는 용어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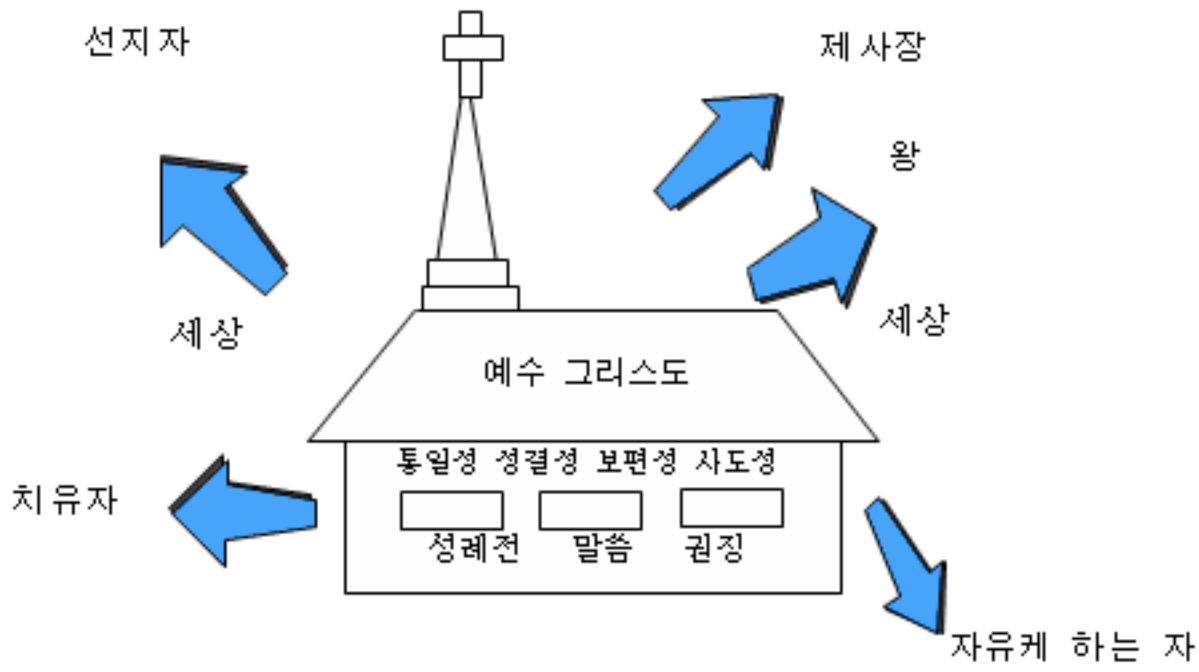
---

31). Ibid., 170.
32). Ibid. 174.

하여 선교적 본질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에 대해 갖는 비전은, 우리로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세상을 필요로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교회가 창조 세계과 인간 세상에서 선교적 역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 교회는 영적인 교제의 장이며 동시에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도표 5] 교회의 역할과 세상

(찰스 벤 엔겐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p 167)



6. 선교적 관점으로 본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를 다니는 일반 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온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교회성장 전략가인 윈 안은 미국의 1,000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존재목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9%의 교회가 교인들의 가족을 돌보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목회자들의 역할은 교인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1%의 교회만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같은 1,000교회의 목사들을 조사한 결과 90%는 교회의 목적이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였고, 10%만이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한다. 문제는 교인들의 대답과 목사들의 대답이 다르다는 것이다.33)

이것이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다. 목사와 일반 교인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확한 대답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몇 가지 찾아 볼 것이다.

가. 예배

교회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보존하신다.34) 교회는 우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불러내신 것은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예배 공동체이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35)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고 가르치신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와서 은혜와 권능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이 그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에 압도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는 것이다. 예배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응답하는 인간의 경배요 찬미요 감사이다.36)

그러나 이 예배는 단순한 인간의 의지의 노력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배는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인간의 응답이지만 인간의 응답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진

---

33).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108.
34).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30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56.
35).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0.
36).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9), 264-265.

리를 따라서 예배드려야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할 때에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을 붙여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그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예배는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경말씀과 성만찬을 먹으며, 기도하며 찬미하며 신앙고백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것이다. 예배란 헌신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현장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드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예배인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가져야하고 그 일에 몰두해야한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선교적이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과 사랑밖에는 없다. 선교적 관점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임마누엘의 삶이다. 성령충만한 삶이다. 예배는 실제적이어야한다. 예배는 살아 있어야한다. 예배는 살아 움직여야 한다.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잔치다. 예배는 기쁨이다. 예배는 우리의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뜻과 온 삶을 모아 드려야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마 4:10).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는 것이 되어야한다(빌 2:8-11).

나. 봉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 마태복음 22:39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한 부분이다.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온 인류를 위해 봉사하신 것처럼 교회도 봉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의 전이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시던 모든 일들을 교회는 해야하는 것이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온갖 필요들 - 영적, 정서적, 관계적, 육체적, 문화적, 물질적 - 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봉사며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0:42).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의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요 또 하나는 봉사하는 은사다.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방언통역, 가르침, 권위하는 일등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속할 것이요,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일 등은 섬기는 은사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37)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주셔서 사람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셨다. 교회는 세상에 고난 당하는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섬기는 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존재하지만 이 봉사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넉넉히 공급받아서만 가능할 뿐이다(벧전 4:11-12). 그리고 이런

---

37). 오성춘, 영성과 목회, 157.

온전한 봉사를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봉사도 결국 선교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종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도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과 교회를 이질적으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필요로 한다. 세상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어진다.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 기간동안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맛을 직접 보고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몸이란 일하기 위해 존재한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각 지체는 자기의 맡은 바 일만 하면 된다. 각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확히 알아차려야 한다.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하는 것이다.

다. 전도와 선교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지상명령이다. (마 28:18-20)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상명령의 '가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현재분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가면서"라고 읽어야 한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책임이요, 특권이다. 이 전도의 사역보다 우리 생을 바칠 만한 더 귀한 사역은 없다.38)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전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한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하여 죄와 죽음과

---

38).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122.

어두움 속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사람이 구원얻는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학문이 있으나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교회만이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전할 때에만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총동원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는 모이는 일과 흩어지는 일을 균형 있게 잘 해야 한다.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기도하여 성령충만하여 흩어져 나아가서 전도해야 한다. 우리의 이웃에 다니면서 전도할 뿐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서도 선교해야 한다. 우리는 다 같이 복음의 빚을 졌으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선교지로 나아가서 선교나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라. 성도의 교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의미하며(롬 6:4-6),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세례는 구원의 상징일 뿐 아니라, 또한 교제의 상징이다[39].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소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련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으나 그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있어서 몸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맡은바 일을 잘 할 수 있듯이, 모든 성도들도 교회에 붙어서 몸의 다른 지체들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자기의 맡은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한 몸 된 사람들이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으나 서로 뗄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 된

---

39).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3.

성도들도 서로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인 것이다. 이런 교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두드러진 표지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귐이나 또는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 이상의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의 교제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잘 하는 성도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매일 매일 주님을 닮아가면서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성도는 이 땅위에서 외톨이가 아니다. 수많은 성도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도의 교제의 시간에 꼭 해야 할 것은 말씀과 삶과 기도를 나누는 것이요, 그 외에 찬양의 나눔, 음식의 나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의 나눔, 죄의 고백과 용서의 나눔, 인도 등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한다.40) 성도간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교회 안에 사람들만이 모였다면 그것은 성도간의 교제라고 할 수 없다. 성도간의 교제에는 필연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하시는 일은 성도들을 감동, 감화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특히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모든 은사도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와 사역은 성도들을 무장시켜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은사를 활용하여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하는 일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하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하도록 교회는 존재한다. 초대예루살렘교회에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음으로 유무 상통하는 역사가 있었다. 거기에는 떡을 떼며,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끼리끼리만 모여서 친교를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이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면 친교병

---

40). 오성춘, 영성과 목회, 255.

이라는 몹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파벌을 형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교회가 이런 병이 걸림으로 인하여 스테반의 순교사건을 통하여 흩어놓으신 것이다.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던 그것이 세상으로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과 정으로 초청하여 함께 친교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깊이를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화목케 하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았으므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세상에 있는 소외되고, 외롭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하고, 병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 퍼져 나아가야 한다.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교회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한다.

마. 교육과 양육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과 동고 동락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국가나 기업이나 회사나 그 어떤 모임도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 만큼 사람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를 뽑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은 독특하셨다. 함께 살면서 배우도록 하셨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실제적인 삶으로써 보여주셨다. 모든 것을 본을 보여 주심으로 배우게 하셨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제자훈련이다.

서구 교회가 몰락하게 된 것은 제자를 키우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의 영적인 싸움

에 패배하게 된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자훈련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제자훈련에 성공하는 교회들임이 밝혀졌다.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교육과 양육과 제자훈련을 잘 하느냐의 성공여부가 21세기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41) 교회는 전도만을 위하여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까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것이다(딤후 2:2).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가르치고 돕도록 교회는 부름 받은 것이다.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 가정교회다. 가정교회는 소그룹으로서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서로 서로 배워 가는 곳이다.42) 21세기에는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할 것이다. 가정교회에서 구체적인 치유도 일어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으며 신앙생활의 참 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여기서는 교육의 목적과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론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현장과 실전이 중요하다. 교회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강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원하여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지니 이는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이론적으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실전에 강해야 한다. 자동차 이론에 대하여 다 배우고 운전에 대한 이론을 다 배웠다 하여도, 자동차를 가지고 직접 도로에 나가서 운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교회의 많은 교육과 훈련들이 이런 현상들인 것이 너무도 많았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자문하여 보아야 한다. 이론만 배우면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는데 사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데만 쓰는 것이다.

---

41). 옥한흠, Ibid., 31.
42). Dale E. Galloway, 20/20 비전,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4), 158.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마디로 하면 사람에게 복음은 전하여 구원하는 선교에 있다. 선교의 목적을 떠난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는 너무도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실정이다. 교회에서 계획과 행사와 예산 등 모든 것은 선교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바. 치유

복음서 기자는 우리의 주님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치유사역은 사복음서의 약 5분의 1(총 3779절 중에 727절)이나 차지하고 있다.[43] 교회는 예배, 사회봉사, 전도, 교제, 제자훈련(교육), 등 다양한 종류의 목회를 하고 있다. 한편, 치유목회 역시 교회의 태동기로부터 그 임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다. 윌리암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복음선포와 교육과 치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세 가지 형태의 사역이었다. 이 가운데 치유는 그분의 사역에서 결코 제외할 수 없는 핵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사도들 역시 이 일을 이어받아 실천에 옮겼다."[44]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에 내리신 지상명령의 내용은 "가서 가르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치유하라"는 3중적인 것이었다.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하실 때 그의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도록 내보내셨다(마 10:1-8).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같이 격려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12)고 하셨다.

사도행전에서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치유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행 3:1-10; 8:7; 9:33-34; 14:8-10). 사도들이 행한 치유사역은 그들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자들이 성령충만함을 받아 힘있게 한 설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베푼 치유사역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았을 때 비로소 확신을 갖기도 했다(행 8:4-7; 9:32-35).

---

43). Mark A. Pearson,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윤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13.

44).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배상길 역 (2쇄;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31.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그들이 믿는 것을 얘기한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선포한 것이 치유를 통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치유사역은 전도와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치유를 몸소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필자도 그런 경험을 했다. 필자가 목회하고 있는 성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에 의하여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복음이 증거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이다. 교회는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교회는 전인적 치유를 위하여 세워주신 것이다. 구원이란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가 있다. 구원은 병든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다.[45]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여기에 모든 치유가 포함되는 것이다. 영적 치유, 내적 치유, 귀신들린 사람들의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가 다 포함되어 있다. 너무 육체적 치유에만 강조점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균형 잡힌 그리고 전인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신약성경에 나타난 것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모두 병에서 놓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병원들이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가 의학이나 과학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고 치유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교회는 치유에 대한 많은 편견과 무지와 오해를 잘 극복하여 해결하고 치유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치유가 함께 나타났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주님과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

45). 조무남, 치유목회 (서울: 한국영성치유목회연구원, 1993), 29.

주님과 똑같이 실행하므로 복음이 진리와 생명임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교회는 치유목회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치유목회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일인 것이다. 선교하기 위하여 치유가 필요한 것이다. 모이고 흩어지는 지역교회는 바로 선교 공동체인 것이다.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확실하게 정립하고 바로 이 일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총집결하여 앞으로 매진하여야 한다.

제 3 절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도록 당부하신 후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행 1:9-11). 그후 120 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때로부터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이 땅 위에 탄생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령충만하여 다른 방언을 하였으므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였다(행 2:1-13).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구약 요엘 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못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을 촉구하자,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늘어나게 되었다(행 2:41). 당시의 신자들의 삶의 기록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행 2:42-47)

1.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건강의 특징[46]

초대 예루살렘교회에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있었다. 12사도와 70문도 120문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고 은혜를 참으로 받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12사도와 야고보는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영적 지도자는 권위와 사랑과

---

46).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5쇄;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4), 77.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 교육이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도들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성찬과 애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살아 있는 깊은 기도의 생활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치유가 나타나고 변화가 있었다. 서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찬양과 경배가 충만하였다.

그러므로 세상 불신자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유대교의 극심한 핍박을 잘 이겨내면서 더욱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크게 성장하므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마귀의 시험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게 되고(행 5:1-11)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직을 뽑게 되었다(행 6:1-6).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자체 일에만 몰두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음으로 주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다(행 8:1). 교회가 흩어져서 선교하지 않으면 병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안디옥교회의 건강의 특징

안디옥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고 나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예수께 돌아옴으로 탄생하였다(행 11:19-21). 예루살렘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착하고 성령충만한 그가 설교하고 전도하므로 큰 무리가 모여 오게 되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일 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행 11:22-26). 그 후에 큰 흉년으로 인하여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이 힘대로 부조를 모아서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예루살렘교회에 갔다가 돌아왔다(행 12:24).

안디옥교회의 특징으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특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영적 리더가 있었다. 전도와 성

경 교육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므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금식과 기도를 힘썼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성령의 역사에 절대 순종하였다. 또한 안디옥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그들을 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파송하였다(행 13:3).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제 4 절 현대 교회의 건강한 교회론

1. 피터 와그너의 건강한 교회론

피터 와그너는 그의 저서 「교회 성장 원리」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다섯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다.47)

첫째는 일편단심의 순종이다.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제자로서의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분부를 이루어 드리고 또 그 분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개의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둘째는 확고부동한 목적이다.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저들의 관심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있는 것이다.

셋째는 통찰력 있는 연구 조사이다.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 교회 성장에 관한 합리적인 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연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넷째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실용주의자들이다.

다섯째 신앙적 낙관주의이다.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철저한 신앙 낙관주의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힘써 일하며 그런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런 개인적인 성품이 인간의 정신력을 지배할 때 흥미 있는 일이 발생한다. 병

---

47). C. Peter Wagner, 교회 성장 원리, 권달천 역 (14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30-33.

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변하는 것이다.

2. 미국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

미국의 가장 빨리 성장한 5대 교회의 건강한 교회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48)

첫째 윌로크리크 커뮤니티교회로, 담임 목사는 빌 하이벨스(Bill Hybels)이다. 그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었다. 그는 사람들의 욕구, 특별히 교인들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목회를 하였다. 먼저 신자와 불신자의 욕구에 맞는 예배를 개발하여 따로 따로 드리고,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 그들에게 알맞는 일을 맡겼다. 계속 충성스럽게 비전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둘째 가는 길 교회로 담임목사는 잭 헤이포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동적 예배로 성장한 교회. "종교개혁은 했지만 예배는 그 이전과 대동소이하다"는 데 주목을 하고 여기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예배란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교회에 소개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교회는 그 권능을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배에서는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예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새소망 커뮤니티교회로 담임목사는 데일 겔로웨이다. 모든 사람들이 목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가정교회에 중심을 두었다. 그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첫째는 제자화, 둘째는 복음화, 셋째는 목자화였다. 그는 목회에서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것을 Tender Love Care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기)소그룹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여 삶에 적용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지교회가 가장 연구해야 할 교회다.

넷째 캔사스 중앙 커뮤니티교회로 담임 목사는 레이코튼이다. 예배, 설교, 소그룹으로 성장한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청중의 필요에 따르는 교회요, 제도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요, 예배를 중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지도층이 게

---

48).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118-152.

을러지지 않도록 훈련을 계속하고 전도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 라디오, 텔레비전 및 그 밖의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 하였다. 교인들의 은사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마음껏 기쁨으로 봉사하도록 격려하였다.

다섯째 휴스톤 제 2 침례교회로 담임 목사는 에드윈 영이다.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 성장한 교회. 그는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 교회를 짓고, 시설을 갖추었다. 그는 큰그릇이다. 그는 이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그것을 개선하였다. 심방과 기도를 강조한다. 스스로 많은 기도를 한다.

미국의 100대 교회들의 공통된 성장요인으로는[49]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는 교회, 선교지향적인 교회, 성경교육의 바탕을 둔 교회, 성도의 친교가 잘된 교회, 평신도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교회, 지역 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교회, 필요한 행정과 시설을 갖춘 교회라는 것이다.

3. 한국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

한국에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50]

첫째 광림교회로, 담임목사는 김선도 목사다. 사회적 관심과 사랑의 실천으로 성장한 교회다. 그는 적극적 사고의 대명사이다. 그는 여성 인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그의 목회철학은 적극적 신앙과 풍요로운 창조를 강조한다. 다음에 성실한 생활의 강조와 사랑의 실천과 일치된 순종을 강조한다.

둘째 명성교회로, 담임목사는 김삼환 목사다. 새벽기도로 성장한 교회다. 그의 설교는 아주 평이하면서도 위로와 힘을 준다. 그는 분위기에 강하다. 그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다. 그는 교인들의 욕구와 필요를 잘 알고 그것을 잘 해결해 주는 설교와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셋째 사랑의 교회로, 담임목사는 옥한흠 목사다. 평신도를 깨워 성장한 교회다. 그는 권위주의적 목회를 싫어하며 아주 서민적이면서도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 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둔다. 이것이 바로 제자화 훈련이다. 그는 교회의 건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목회한다.

넷째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담임목사는 조용기 목사다. 카리스마와 치유를 강조하고 기도에 힘이 있고, 구역 조직이 뛰어난 교회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기도와

---

49).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159.
50).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181-327.

은사를 강조하고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온누리교회로, 담임목사는 하용조 목사다. 경배와 찬양으로 성장한 교회. 연예인 교회를 목회하였다. 그는 간경화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영국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돌아왔다. 제자화 훈련을 힘쓰고 있다. 7단계 양육체계를 확립하였다. 매일 큐티의 생활화와 일대일의 양육과 소그룹의 성경공부를 실시한다. 전도폭발 훈련과 지도자론을 철저히 교육한다. 선교와 파견 전도를 강조한다.

여섯째 주안장로교회로, 담임목사는 나겸일 목사다. 그는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뒤에 바울처럼 생명을 내걸고 전도하면서 수많은 전도인들을 양육하였다. 이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나 목사의 죽음에서 치유된 체험과 성령의 체험에 있다고 믿는다. 당회가 나목사를 전적으로 밀어주며, 그에게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의 공통점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 혹은 그 교회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꼭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가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렵고, 또 성장한 교회가 모두 건강한 교회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상 완전한 교회는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여러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을 연구하여 각자의 목회하는 교회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제 5 절 건강한 교회의 구성요소

1. 건강한 교회의 정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성령의 사역 안에 있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생명체이므로 건강하기도 하고 병이 들어 약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심한 질병에 걸리면 죽기도 한다. 저명한 교회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는 그의 저서 「건강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요인들」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병들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그의 30년간의 교회 성장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서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의 질병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51]

---

51). C. Peter Wagner, 건강한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요인들, 홍용표 역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11.

그가 말하는 9가지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질병은 민족색 또는 지방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치명적인 질병이다. 주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새로운 인구변동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미국에서 흔하다. 백인들이 살던 지역에 흑인들이 들어오면서 백인들은 떠나가고 흑인들은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죽어 가는 것이다.

유령마을 질병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이것은 농어촌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몇 사람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것이다. 도시화로 인하여 농어촌이 황폐해지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이 노인들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서서히 죽어 가는 질병이다.

사람들에 대한 소경병이 있다. 우리가 서로 지리적으로 가깝게 사는 사람들의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문화적 차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다. 곧 문화적 차이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교회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특징을 깊게 연구할 것과 신세대들의 문화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대화가 통해야 한다.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세대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함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극단적인 협력주의라는 질병이 있다. 교회 협력은 선한 일이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목적을 위해 협력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극단적인 협력주의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흔히 중립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교회협력이라는 본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 전도 프로젝트와 개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회들의 초교파적으로 협력할수록 복음화의 효과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 극단적인 협력운동이 개교회의 중심성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강한 전도운동은 개교회의 전도이다.

친교병이 있다. 친교는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친교는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방해하는 질병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교회의 온 유기체는 고통을 당하고, 교회는 당연히 성장해야 하는데 그만큼 자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때 교회 프로그램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참여자들은 서로 자기 쪽으로 잡아끌게 되기 때문에 원심적이지 못하고, 그 동참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 나가지 못하게 한다. 친교병에 걸리게 되면 교회는 성장률에서 퇴보되고 그 다음에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침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친교병에 걸려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교회의 성장에 대해 상관하지 않

는다. 전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 전도에 대한 비전과 능력이 없는 것이다. 모든 관심이 '우리끼리'에 맞춰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분위기에 눌려서 잘 어울리기가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런 친교병에서 치유하는 길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영적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한다. 특히 우리 성지교회는 이 친교병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전도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철저하게 바꿀 때가 되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거다.

사회적인 교살이라는 질병이 있다. 교회가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의 능력 이상으로 교회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넘칠 때 발생하는, 교회 성장률에 있어서의 퇴보이다. 여기에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주차 영역과 대예배실 공간이다. 우리 성지교회는 특히 주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앞으로 대 예배실의 문제도 심각하게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침체된 영적 발달이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지 않을 때 교회의 모든 건강은 나빠지며,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거듭난 확신이나 변화가 없는 사람을 새롭게 교육과 훈련으로 제자화하여야 한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경건의 훈련에 힘 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하여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하고 자기의 직분에 맞게 성숙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되면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평생에 하는 것이다. 일평생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 매일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충만한 영적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요한 증후군이 있다. 왜 뜨거운 교회가 미지근해 지는가? 요한 증후군은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의 나타나는 교회의 책망 받을 질병들을 의미한다. 요한 증후군의 두드러진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명목성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때, 자신들의 신앙이 단지 판에 박힌 일이라고 느낄 때, 교회의 참여가 행동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교회의 소속하는 것이 가족의 전통과 사회의

명분뿐일 때 요한 증후군은 역사한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것이다 모든 조직이 틀에 박히게 되었다. 경험에서 온 믿음이 아니고, 전통에서 온 믿음을 가지고 지낸다. 첫 사랑과 첫 열정과 첫 믿음과 첫 사명을 상실한 교회가 된다. 현재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런 현상에 빠져 있다.

한국 교회는 9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 성장이 멈추어 버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성령 운동의 쇠퇴, 말씀생활 열매의 부족, 교인 향상으로 인한 쾌락주의의 기승, 지방색 및 자유주의 신학과 결합된 신학사조, 불신자와 신세대에 대한 구령 소홀, 비전 감퇴, 기복신앙,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 외적인 수단에만 치중함, 개 교회 주의, 교회 대형화에 따른 비인격적인 인간 관계 등이 저해 요인이었다.

여기에 해결책은 성령충만을 통한 전도와 양육에 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유입은 곧 자라서 성숙하고 스스로 재생산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심하는 갓난아이들의 공급이 지속되는 한,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활력적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성령 저조병이 있다. 교회의 삶과 사역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기형적인 저하 차원에서 야기된 교회 질병이다. 이것에 뚜렷한 현상은 뜨거운 기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마음에 열정이 없고, 전도와 변화된 삶이 없이 매일 매일 습관적으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생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려 있다. 이것의 해결 방법은 기도를 살리는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뜨겁게 해야 한다. 특히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상에 열거한 9가지 교회의 질병과 아마 그 외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더 많은 질병이 있을 것이다. 또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성지교회도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중에 몇 가지 질병의 증세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질병의 치료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교회의 질병도 정확하고 분명한 건강 진단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합 진단을 받는다. 또는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무언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는다. 미리 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이다.

교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교회의 건강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교회내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교회의 건강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교회를 진단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 전문가가 많

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건강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간단히 교회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병은 작은 병일 때 고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작은 병을 고치지 않고 키워서 큰 병으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요즈음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고 한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이길상, 안현필, 이상구, 황수관은 건강에 대한 책과 강의로 너무도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건강 원리는 교회의 건강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데 가 있다.

건강한 교회란 병이 없어야 한다. 음식을 잘먹어야 한다. 잠을 잘 자야 한다. 운동을 잘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잘 자라야 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야 한다. 잘 휴식해야 한다. 몸에 있는 노폐물을 잘 제거해야 한다.

자연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적인 모든 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한 사람의 건강법이 곧 교회의 건강법이나 원리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는 병이 없어야 하고 잘 성장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잘 자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하다. 성령충만한 교회가 건강하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교회가 건강하다.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건강하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건강하다. 무엇보다도 이웃의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 삶으로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2.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일까? 교회라는 모임이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모임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조건은 회원 또는 구성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역사상에 실존하는 구체적인 모임이어서 구체적인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52)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신약성경에서의 교회의 개념인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예정과 섭리에 의한 부르심에 따라 소집된 무리라는

---

52). 이종성, 교회론 II (재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18.

뜻이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훈련시켜서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비록 자기의 가정이나 부모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신이 교회의 구성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교인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표적은 세례다.[53] 어른 세례나 유아 세례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게된다.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
>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

부르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에 응답하는 자는 사람이다.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다(마 22:1-14).

부름의 대상은 전 인류를 의미한다. 인간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종족, 신분, 소유, 지식, 사상, 공과, 철학, 가문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된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전 인류가 모두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교회의 구성원은 그들의 직분에 따라 몇 가지 나누어져 있음을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감독, 장로, 집사직이 있었다.

이 여덟 가지 교직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54] 모든 직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 가령 사람들의 손에 의한 투표를 통해서 선택되었다 해도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었다. 교회의 모든 직무는 감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사에 이르기까지 봉사직이다.

교회의 모든 직책은 세상에 대하여 복음 증거를 통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

53). Ibid., 18.
54). Ibid., 43-44.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히 하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직책은 세습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생에만 국한된다. 모든 직책은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시대와 환경과 지역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종과 같은 태도로 주님과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종에게는 절대 복종, 절대 희생, 절대 충성이 요구된다. 모든 직분 자들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맡은 관리인이다.55)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청지기에게 특히 요청되는 것은 신뢰성이다. 또한 모든 일은 스스로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직분 자들이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3. 건강한 교회와 은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시작 되였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세례와 성령충만하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분명해 진다. 성령세례란 최초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56) 믿는 자는 모두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단호하게 선언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모든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날까?

첫째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요 16:8). 둘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다(요 16:9). 셋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요, 그 피가 나을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

55). 황의영, 교회의 직임과 리더십 (2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03.
56). 오성춘, 은사와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29.

보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 없다(고전 2:8, 10, 13; 행 2:1-39). 넷째로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전 12:3).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롬 8:15-16; 갈 4:6-7).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또 하나의 표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롬 8:9)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행 1:8). 이와 같이 성령세례란 성령을 최초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성령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령충만하다는 것은 최초로 성령님을 받아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할(행 2:4; 9:17, 눅1:15)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행 4:8; 4:31; 13:9등)을 의미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채움을 받는 과정을 의미하거나(행 13:52; 엡5:18)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령충만의 상태(행 6:3, 5; 7:55; 11:24; 눅 4:1 등)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는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중생 할 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분을 믿어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 세례의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역에 참여하게 하는 성령충만의 역사이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최초로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강조하며, 성령충만은 그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강조한다. 성령 세례를 단회적이라 한다면, 성령충만은 반복적이라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충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하는 것이다.

성도들 안에 내주 하시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새 삶을 살게하는 능력이다.57)

그러면 은혜(charis)는 무엇이고 은사(charisma)란 무엇일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은사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분배해 주신 교역(ministry) 또는 재능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상을 이기는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하나

---

57). Ibid., 42.

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58)

그러면 은사와 재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은사를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로 구별하여 자연적인 은사는 성령을 받기 전에 육의 사람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은사라 하고 영적인 은사는 예수를 믿은 후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지칭하여 재능은 바로 자연적 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를 구체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59)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든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다. 여기에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를 뿐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다. (바울의 사도직 : 롬 1:5; 15:1 이하; 고전 15:8-11, 존재자체 : 고전 15:10, 특별한 은사들 : 롬 12:6 이하, 고전 1:4-7, 엡 4:7-8, 11-12, 벧전 4:10, 생명구조 : 행 27:24, 충성스러운 증거 : 막 13:11, 독신 : 고전 7:7, 선행 : 엡 2:10, 고후 12:7, 구제 헌금과 감사 : 15:29).60)

독일의 성령운동의 기수인 비틴저(Arnold Bittlinger)도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한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결론짓기를, 단순히 바울은 이 양자를 결코 구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나의 자연적인 재능들이 성령에 의하여 본래의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게 될 때 타고난 재능들은 성령의 은사로"로 바뀐다고 하였다.6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재능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용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반적인 재능들, 자연적인 은사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성령님의 은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다. 앞으로 목사가 힘써 해야 하는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발견케 하여 훈련을 받게 할 뿐 아니라 재

---

58). Ibid., 49.
59). Edmund P. Clowney, 교회,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1998), 75.
60). 오성춘, 은사와 목회, 64.
61). Ibid., 73.

능을 은사화하고 전 교인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교역자화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목사 혼자 교회의 일을 도맡아 하려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이다.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명백하게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이 가진 재능과 온갖 은사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주셨으므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선교의 일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 때 삶의 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다. 삶의 진정한 맛이 있다. 만족과 행복이 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은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놀라운 해방감과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된다. 이때에 그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고도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다른 어떤 사람과도 구별되는 일을 수행할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성경적인 은사의 재 이해를 통하여62)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수직적으로 인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공동체를 향한 교역에 있어서만 의의가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둘째로, 모든 수평적인 봉사와 교역은 수직적으로 베푸시는 성령님의 선물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과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여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교역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셋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 자들이며 모두 신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을 반드시 교역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장에서 구체화시켜야 하며, 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 자로서 온 교회가 교역에 동참하여 각 지체의 사명과 교역을 감당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역에 관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은사를 받았다. 또한 그리스도인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서 각기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여받는다.

이 말씀을 간추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교역자로서

---

62). Ibid., 80.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교회의 교역자가 되어야 함을 중시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목적과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목회의 중심은 성도들을 훈련시켜 목사와 목회를 돕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의 은사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성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목사는 이일을 위하여 선택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다. 목사는 모든 성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명을 받은 교역자이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목사의 지도 아래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하여야 하며, 목사는 그들에게 합당한 교역의 자리를 배정하고 자기의 기능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게 지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63] 이것이 우리 성지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의 방향이다.

성지교회는 평신도 훈련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이다. 이 일을 위하여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이것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새로운 깨달음이다. 성령님의 사역을 다룰 때에 우리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불변하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람의 맥락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이 점이다.

이것은 진리의 불변성과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다양성과 가변성을 거기에 맞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성령의 이해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이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인간 쌍방 관계에서의 성령론 이해의 문제점이 있다.[64]

먼저 성령님을 하나님-인간의 쌍방 관계로 이해할 때 성령 이해의 주관성, 또는 주관주의적 신앙의 위험성이 항상 뒤따른다. 다음에 성령님을 하나님-인간의 쌍방 관계로 이해할 때, 끝없는 체험주의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배양하고 공동체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2자 관계에 중점을 둔 신앙 이해는 탈사회적이요, 탈 역사적이요, 현장감을 상실한 신앙을 조장할 것이다.

---

63). Ibid., 103.
64). Ibid., 106-109.

둘째 하나님-교회-인간 3자 관계에서의 성령 교역을 이해해야 한다.65)

먼저 성령 이해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인격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 사건을 삼각구도로 이해하게 될 때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교회-인간 3자 관계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현장성 회복과 사회 참여, 역사성 회복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 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의 일에 너무도 소극적인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나 같다. 하나님은 봉사하고 전도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임재하셔서 역사 하신다.

전도자와 전도를 받는 자 속에서 동시에 역사 하신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순간은 전도자와 전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순간이 된다. 이 말은 능력을 받아서 전도할 뿐 아니라 전도하면서 능력을 받으며, 전도하면서 양육이 되어 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구하며 성령충만을 원하면 구체적인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하나님-교회-인간의 삼자구도의 성령의 이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일치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66)

오순절 성령 강림(행 2:1-4)을 시작으로 해서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행 8:4-17)과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성령을 받았다(행 9:1-20). 다음에 고넬뇨 가정의 성령강림(행 10:1-48)과 에베소 제자들의 성령을 받았다(행 19:1-7).

위에 다섯 가지 성령 사건 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제외한 네 가지 사건은 모두 사명 수행 과정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였다고 가르친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성령님이 강림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받은 후에 사명자의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을 받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님께 순종하여

---

65). Ibid., 109-113.
66). Ibid., 116-120.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즉 구체적인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의 교회의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21세기의 선교 국가 또 우리나라를 복음화하여 우리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교역 현장, 전도 현장에 나가서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사건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재현하는 일이다. 이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힘차게 믿음으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교회에 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똑같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일상생활은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측면이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은사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의 활용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그치고 모든 욕심과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 독특하게 쓰여짐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능력이며 본질이다. 이 은사를 발견할 때에 나는 나의 것을 발견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원할 수가 있고 그들로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능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성경적인 길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는 성령충만한 삶을 지속하게 되고 시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 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은사의 신학이 올바로 섰을 때에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에 대한 관심사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의 이익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67)

---

67). Ibid., 161.

제 6 절 건강한 교회와 가정교회

초대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다. 그리고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가정 중심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20년 전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원을 들어가서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달 만에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주로 성경공부와 기도와 친교 중심이었는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사람들의 변화를 체험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도 가정교회(Cell Church)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몇 곳의 한인교회에서 성공적으로 가정교회 사역을 이루어 오고 있다. 필자는 1997년 10월에 Houston에 위치한 서울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가정교회에 대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의 대안은 바로 이 가정교회일 것이라는 대화를 최영기 목사(그곳 담임목사)와 나눈 적이 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가정교회 쪽으로 목회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68]. 여기서는 가정교회에 대하여 가정교회는 성경적임을 논의할 것이다.

1.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그들은 주로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념하였다(행 2:42-27). 사도행전 5:42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신앙 생활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회당 중에서 많은 회당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서신 서들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다(행 12:5-19; 20:9; 20:20; 롬 16:3, 5; 골 4:15; 몬 2).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회당, 성전, 야외 등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을지라도 사역의 많은 부분을 개인의 집안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예를 들면, 삭개오의 경우(눅 19:1-10), 마태의 경우(마 9:9-13). 마태복음 13: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

---

68).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7), 63.

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은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에서도 집에서 가르치셨음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사역도 역시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종종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마 9:1-8). 또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 하실 때에도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마 10:11)는 여기서도 거기서 머물라는 것은 집을 의미한다. 또 이와 비슷하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하라"(눅 10:5)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때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정이 기도, 가르침, 예배 및 교제를 위한 정상적인 모임의 장소였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또한 양육에 있어서도 소규모의 모임인 가정교회에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회심자를 삼아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마 28:19). 우리가 앞에서 본대로 신약성경에서 되어지고 있는 진정한 제자의 도가 개발되어 지는 장소는 군중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었다. 제자를 삼는 일은 값을 지불하는 인격적인 과정이고, 올바르게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에서만 실행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어떤 유기체가 건강하려면 그 기초 단위 혹은 세포들 자체가 건강한 것들로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전제인 것 같다.[69]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 중에서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몸도 100조나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와 똑같은 원리다. 교회의 세포는 바로 한 사람(가정교회)을 의미한다. 가정교회가 건강하면 온 교회가 건강하다. 생물의 세포와 영적인 세포인 가정교회는 원리가 똑 같다.

2. 가정교회와 구역조직의 차이[70]

가정교회는 구역이 아니다. 구역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은 것이지만 가정교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관계성을 토대로 묶은 것이다. 또 구역 모임은 일반적으로 친교 쪽에 중심을 두지만 가정교회는 교회의 총체적인 기능을 다한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순모임도 아니다. 순 모임은 제자 훈련이 주목적이지만 가정

---

69). Ron Trudinger, 가정 소그룹모임, 28.
70).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4판; 서울: 종합선교-나침반, 1996), 157-158.

교회는 제자 훈련이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장년 주일학교도 아니다. 장년 주일학교에서는 성경공부를 주로 하지만 가정교회는 성경공부를 이삼십 분밖에 하지 않는다. 가정교회는 기도모임은 더욱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는 무엇인가? 가정교회는 구역, 장년주일모임, 순모임, 기도회 주 기능을 포괄적으로 다하면서 지역교회의 기능까지 완전히 해내는 교회다. 가정교회에는 절대적인 모델이 없다. 가정교회의 조직이나, 운영방식, 모임의 순서 등은 교회 상황과 교인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 가야 한다. 가정교회를 시작하시려는 분은 개교회 실정에 맞게, 목회자 스타일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형태야 어찌됐든,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모델이요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성지교회의 개척 당시의 가정교회의 모습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규적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집에서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였다. 당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10년 다니던 현대건설을 그만두고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약 8개월만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규모로 가정에 모여서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각자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정해서 몇 곡씩을 부르고,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합심으로 하고, 각자가 각 가정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나누고, 서로의 한 주 동안 지내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새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으면 즐겁게 소개하고 먼저 인간적으로 친해지도록 배려하고,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해 주는 자유 주제 성경공부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지역중심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정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집이 바로 교회였으니까 서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집에 와서 그런 가정교회의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참으로 뜨거운 정과 사랑이 넘치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였다. 우리들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의 고민되는 일이나 문제나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므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언제나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새로운 불신자를 데리고 오면 친해지기가 쉬워서 전도도 아주 잘 되는 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번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 12시를 넘기기가 일수 였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지내는 시간이 한 주일에 20시간 이상이 되었다. 거기에는 자연히 삶의 변화가 따라왔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도 하고, 술을 마시던 사람도 술도 끊고, 또 세상에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낚시 광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낚시를 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진행되던 교회가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나의 건강의 악화로 이런 모임을 잘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일반 구역으로 화하게 되었다.

4. 가정교회에서 리더의 중요성

가정교회에서는 구역 장을 목자라 하고, 권찰을 예비 목자라 하고, 구역원을 목원이라고 부른다. 구역에서도 구역장의 위치가 중요하지만, 가정교회에서는 목자의 위치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하나의 완전한 교회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가정교회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다.

찬양, 기도, 성경공부, 교제, 봉사, 상담, 심방, 전도, 선교, 구제, 서로 나눔 등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기존 구역 장은 보통 제자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경건의 훈련을 잘 받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목자는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기 보다는 성경을 많이 몰라도, 기도를 많이 못해도, 봉사를 많이 못해도,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했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다.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 같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 외에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거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함께 모인 사람 중에 고난 당하거나 어려운 사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인양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므로, 사랑의 공동체, 충만한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성령충만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자에게 일을 맡겨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워서, 감격하고 감격하여 주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최고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자연히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갖 좋은 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는 것이다. 또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것이다. 가정교회에서의 리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5. 가정교회에서 목자의 할 일

가정교회는 하나의 완전한 교회다. 그러므로 목자는 목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양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

사람은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서 변화된다. 말로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한다. 말을 혼자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역모임에서는 구역장이 말을 많이 하는데 가정교회에서는 목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분위기가 화기 애애하고 자유스럽도록 배려해야 한다.

모든 목원들이 골고루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목원 중에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지혜롭게 절제시키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다 함께 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주제를 지혜롭게 선택하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목자는 가정교회 모임의 분위기를 항상 영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목자는 먼저 자신의 간증, 자기의 속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한 이야기를 솔직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사람(불신자, 새 신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가 쉽게 자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가정교회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간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모두가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 목자는 특히 기도에 힘써야 한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말하는데 듣지 않고 딴 청을 하면 분위기가 나쁘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자는 임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늘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한다.

지도자의 지도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이다. 목자는 믿음의 삶에 본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리더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 주에 한번씩 모임을 갖도록 하고, 한 주 동안에 전화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고 가능하면 만남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어린 신자일 때는 더욱 많은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난다.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나눌 때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좋은 것도 서로 나눔으로 더 좋아지고, 어렵고 힘든 일도 서로 나눌 때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문제를 잘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오래 믿은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 친구가 없다. 모든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하다. 목자는 동네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충만과 열정이다. 그리고 간단한 전도의 방법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이다. 인간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다. 신앙생활은 교회 내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신자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목자는 목사의 심정이 되고 목사가 받을 상과 축복을 기대해야 한다. 필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목사가 되기 전에 가정교회로 우리 교회를 시작하였다. 가정교회의 목자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사는 모든 목자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목자의 일에만 전념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목자가 되어 자기에게 맡겨준 목장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가정교회의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가정교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대부분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또한 문제에 공식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인의 경험이 의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또 집단 토론과 연구를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교육적인' 성격은 물론 '후원적인' 성격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다른 사람의 격려와 기도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그와 같은 모임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독특한 기여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격 형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어떤 종류이든 가정교회 경험이 삶에 대한 통합된 기독교적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확신한다.

다른 연구모임이나 실행 모임들도 가정교회와 똑같은 유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효과면에서 덜 총체적이며 가정교회와 똑같은 신뢰의 분위기를 창출할 수 없고 매일의 상황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을 촉진하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다".71)

필자는 이 의견에 동의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중심의 신앙 생활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 세상 속에서는 너무도 동떨어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삶을 실제로 살지 못하고 또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최선의 형태의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인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에 대하여는 너무도 잘 모르고 있다.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배워서는 행동에 옮기는데 너무도 미약하다. 보고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가장 행동으로 옮기는데 힘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다.

---

71). Robert Banks,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한화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4), 136-137.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가장 좋은 형태가 바로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제자훈련, 전도의 훈련, 봉사하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곳은 세상이다.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목자가 그의 전 삶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서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누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서로 끼칠 수가 있고 또 목자 밑에는 예비 목자가 있어서 예비 목자는 목자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학습하는 것이다. 다음에 목장이 커져서 분가할 때에는 그가 평소에 보고 배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가장 잘 양성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해 낸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별난 교회」의 저자 이남하 목사는 다음과 같이 가정교회에 대하여 힘있게 말하고 있다.72)

> '그때까지 해 오던 11 년간의 사역을 종합. 분석. 평가해 본 결과 셀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 주셨던 삶의 유형이며 예수님의 생명의 연장선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셀 사역은 다름 아닌 아비와 자식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필자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1세기의 목회는 단연 이 가정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타락, 침체, 권위의 상실, 많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신학 공부를 하기도 전에 집사의 몸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가정교회를 인도할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결단하고 새로워져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힘차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에 나온 Houston에 있는 서울 침례 교회나 이남하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버클랜드 교회에서도 세상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소위 엘리트라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께 붙잡히고, 그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서 가정교회의 목자로 섬기면서 세상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여건들을 초개같이 버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예를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다.

한국 교회가 가정교회로 충만하게 될 때에 부정 부패와 불신 또는 교회에 세속

---

72). 이남하, 평범한 사람들의 별난 교회, (9판; 서울: 종합선교-나침반, 1997), 100.

화, 인본주의, 율법주의, 세상 중심의 삶에서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충성된 평신도 지도자로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정교회에서는 교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교제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먹는 문제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을 할 정도로 먹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먹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식들을 맛있게 요리하여 먹는 것은 누가나 원하는 일이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기 쉽고 배가 고플 때는 먹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 배고픈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능률이 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음식을 먹고 하는 경향이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교회에서도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대접하고,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화기애애하게 모임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 성지교회에서도 가정교회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먹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돈이 비싼 것을 부담 갈 정도로 하지 말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성껏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보람있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면 된다. 또는 한 접시씩 만들어 와서 나누어 먹어도 된다. 가정교회에서는 먹는 문제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무 고상한 척하여 먹는 것을 등한히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고 마음을 서로 통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는 가정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음식에 대하여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6. 가정교회와 선교(전도)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들의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중단상태에 있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대부분의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믿는 자들의 수평 이동인 경우가 많았지 불신자를 전도하여 회심한 경우는 적었던 것이다. 수많은 전도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전도에 아주 중요한 요체가 된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 또 혹시 가까운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한두 번 오다가 별로 느끼는 것도 없고, 뭔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서

먹서먹한 것도 많고, 별 재미가 없어서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사람들은 처음에 인간 관계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먼저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가 있다. 가정교회에서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친해지고, 자기의 가진 문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정이 생기고 각자가 자기의 부족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또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들어내 놓고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

더욱이 불신자나 새 신자에게는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랑과 정에 굶주린 사람들은 가정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지내지 않으면 가족과 같이 가까워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아내나 또는 친구들의 간청에 의하여 몇 번 나오다가 가정교회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급기야는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때까지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결신하게 되면 자연히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여 교회에 나아와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이렇게 결신한 사람들은 교회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좀처럼 없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관계 전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전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로 뗄 수 없는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변화되게 되면 또 나아가서 자기가 체험한 가정교회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다.

전도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잘 못한다. 세상 친구들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전도를 잘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금방 가정교회의 사랑을 맛 본 사람은 얼마든지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가정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21세기 한국교회에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인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선교의 빚을 진 자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또한 세계 선교도 힘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21세기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려면 전 교회가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해 내야 한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선교를 하는데도 상당히 구체적이며 좋은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다. 가정교회마다 자기가 선교하기를 원하는 선교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선교사를 정한다. 선교사를 가정교회에 초청하여 선교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의 전략도 듣

고 선교의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서로 구체적으로 나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씩 선교비를 보낸다. 가정교회로 모일 때마다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

목원들이 차례대로 선교사님께 안부 전화나 또는 선교 편지를 보낸다. 또는 휴가나 출장 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지를 여행하는 경우도 있다. 선교가 이론으로 끝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좀 막연한 선교를 하는데 비하여 이 가정교회를 통한 선교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보 기도도 아주 구체적이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선교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가정교회를 통한 선교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가 가장 활발해질 것이 틀림없다.

제 7 절 건강한 교회의 목사의 리더십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10교회와 한국의 10교회의 성장 요인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리더십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다.[73]

한 교회는 그 교회의 목회자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한 가정의 운명이 그 가정의 가장에게 달려있고, 크게는 한 나라의 흥망 성쇠가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에 위대한 왕이 나타날 때는 그 나라가 흥왕하였고 한 나라에 악한 왕이나 무능한 왕이 나타날 때는 그 나라가 쇠퇴하거나 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도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날 때는 그 나라의 역사상 가장 흥왕하였으나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된 후에도 북쪽에는 악한 왕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남쪽 유대보다도 더 빨리 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의 운명도 그 기업의 리더에게 달려있다. 성공적인 조직과 기업에는 반드시 자기를 잘 알고 적기에 바른 일을 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다.[74]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도산하는데, 그 대부분 그 기업의 리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서 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여부는 거의 목사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통

---

73).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329.
74). Dale E. Galloway, 20/20 비전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4), 123.

하여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의 훈련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에 의하여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 온 것이다.

21세기가 개막되었다. 다사다난했던 한 세기가 끝났다. 너무도 많은 변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났던 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의 혁명뿐 아니라 원자시대, 컴퓨터시대, 우주개발시대, 생명공학시대 등이 폭발적으로 시작된 한 세기였다. 이러한 20세기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그 특징을 따라 20세기를 명명하였다. 예일대의 사학자 헥스터(J. H. Hexter)는 이 세기를 '혼돈의 시대'라 불렀고, 하버드대의 사회학자 소로킨(Pitrim Sorokin)은 '위기시대', 영국의 오덴(W. H. Auden)은 '불안의 시대', 미국의 경영학자 드러커(Peter Drucker)는 '불연속성 시대', 하버드의 경제학자 갈브레이드(John K. Galbraith)는 '불확실성 시대', 그리고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이 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75)

역사의 방향이 불확실할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리더십'이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의 현실에서 그곳을 향해 사람들을 이끌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각계 각층에서 요청된다. 그러나 당혹스럽게도 우리는 '리더십 위기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참된 리더들의 모습을 보기 힘들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심각한 IMF 사태는 리더십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겪고 있는 혼란도 결국은 영적 리더의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목사의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 교회를 개척하여 20 년간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부흥발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목사의 리더십의 확립이 가장 시급히 요청된다76).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목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목사 밑에서 평신도 리더가 태어나게 되어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사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1.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실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하신 사명의 종국적 목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

75).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5), 11-12.
76). 박형렬, 탁월한 목회 리더십 (2쇄; 서울: 도서출판 치유, 1994), 23-24.

지위, 명예, 권력에 있지 않다. 우리가 종국적으로 구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에 있다.77)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목사의 할 일은 오직 이 일 밖에는 전혀 없다.

창조주 되시며 만왕의 왕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을 직접 불러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일들, 즉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일을 맡겨 주셨다는 사명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이 세상의 일이 잘 안되니까,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니까 등으로 이 일을 한다면 자신만 망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명감을 가지게 될 때 엄청난 잠재력을 급격히 발휘하기 시작한다.78) 이런 확실한 사명감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많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봉사 헌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꿈과 비전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육안과 지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심안(영안)으로 보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볼 수 있다.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미리 그려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는 꿈, 기대, 소망, 비전 등의 형태로 우리의 깨어 있는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간이 역류한다. 과거-현재-미래의 흐름이 아니라, 미래-현재-과거의 순서로 흘러간다. 왜냐하면 미래의 비전이 오늘을 작동시키고 오늘의 행위가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79) 이런 사람에게는 과거가 자원이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의 무한한 미래가 그의 무한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백절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전진한 사람들이다. 이런 비전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

---

77).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121.
78). Ibid., 125.
79). Ibid., 127.

하여 사회와 세계의 과거와 현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밝은 미래를 구상하는 데서 얻어진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80)

먼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집중력을 가지게 된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사람의 집중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비전이 있을 때 사람은 그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고 그것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일생이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쉽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고 솔선해서 먼저 움직인다. 그러한 사람은 자연이나 사회 환경에 의해 동요하지 않는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배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의 가치 있는 일들이란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비록 실패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비전이란 앞의 일을 미리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비전은 우리에게 피드백(Feedback)하는 능력을 개발시켜 준다. 비전은 미래의 방향을 미리 보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틀린 길로 나아갈 때 궤도를 수정하는 능력을 준다. 인생이란 계속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비전이란 그물 모양으로 얽힌 복잡한 인생살이를 단순화해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온갖 복잡다단한 생각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에서 미래를 볼 뿐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보는 능력을 가진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뚜렷한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유있게 전진한다.

그러나 목사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꿈이요 비전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목사의 비전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비전인 것이다. 먼저 목사가 이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삶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줄 때, 거기에 이런 비전을 가

---

80). Ibid., 130-131.

진 많은 사람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일곱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81)

당신의 마음에 비전의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도록 하라. 비전을 가진 사람 안에 있는 창조적인 상상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도 미리 그려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 일단 청사진이 그려지면 창의성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다.

다음에 비전의 실현을 위해 당신 자신을 쏟아 부어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장애물과 마주칠 수 있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장애물을 만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더 쏟아 부어야 한다. 당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비전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열정에 불타야 한다. 비전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강한 능력이다. 자기의 비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 비전의 성취에 집중하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것저것에 기웃거리다가 일생동안 아무 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려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야 한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덜 중요한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바로 그 비전의 성취만을 위하여 집중해야 한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다. 몸에는 여러 개의 지체가 있다. 각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체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된 수많은 지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서로 돕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정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직해야 한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실패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 믿음을 모험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큰 위험을 무릅쓰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하다가 성공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

81). Dale E. Galloway, 20/20 비전, 48-60.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 안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먼저 말해야 한다. 믿음으로 말한 비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 하도록 하며 아직 존재하지 않던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야 한다.

필자의 꿈과 비전은 평신도 훈련센터를 만들어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평신도 리더를 많이 배출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한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왔다. 20년간의 목회도 이런 훈련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다.

3. 구체적인 분명한 목표

비전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니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련의 조치가 없으면 실제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조치를 목표라고 한다.

목표가 없는 리더는 좌표 점 없는 배의 선장과 같다. 목표 설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끊임없는 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 목표는 비전과 비교해서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척도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목표는 명확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모호한 목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82]

그러면 좋은 목표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SMART해야 한다.[83]

먼저 구체적인 목표(Specific Goals)와 측정 가능한 목표(Measurable Goals)를 만들라. 다음에 성취 가능한 목표(Attainable Goals)와 현실적인 목표(Realistic Goals)와 눈에 보이는 목표(Tangible Goals)를 만들라.

그리고 이런 SMART한 목표를 세우려면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우선 목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것에 기초하여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세워준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수 없고 또 실행에

---

82).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137.
83). John E. Haggai,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임하나 역 (4쇄; 서울: 하늘사다리, 1997), 65-70.

옮길 수도 없다. 자기 스스로 세운 것만이 자기에게 꼭 맞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을 크게 하라. 하나님과 그가 하신 놀라운 일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앙망하고 오직 믿음으로 일관하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나누어라. 꿈과 비전을 서로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라.

목표를 상세하게 기술하라.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우라. 단기 목표는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세우라. 장기목표는 큰 덩어리로 세우라. 기도하면서 목표를 수정하여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목표는 기록으로 상세하게 남겨두어야 한다. 목표를 긍정적으로 세우라. 사람은 청지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목표를 세우라. 목표는 이루어지는 쪽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목표는 행동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한번 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예민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만한 목표를 만들라. 너무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날그날 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우라.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실력과 능력이 생길 때 더 큰 목표도 세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목표는 반드시 글로써 기록해 놓아야 한다. 목표나 계획을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종이에 또박또박 써내려 갈 때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 목표는 간략하면서 장기와 단기 목표로 구분되어져야 한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조화를 이룰 때 목표 설정자들은 균형 잡힌, 성숙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목표 설정은 단 한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삶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고 역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는 계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목표의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때에 맞게 목표를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 장기 목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삶의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시작해야만 되며, 궁극적인 장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줄 단기 목표를 개발해 내어야 한다.84)

필자는 평신도 훈련센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나 분명한 목표도 세우지 않

았고, 또 목표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단기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된다.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85)

무엇보다 목표는 의사 결정(decision-making)과정을 간단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매일 매일 수많은 생각과 선택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된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목표에 맞는가를 살피고 즉시 의사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 다음에 목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강하게 한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왕좌왕하는 고민이 줄게 된다. 쓸데없는 정신과 힘의 낭비를 줄이고 집중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강건할 수 있다.

목표는 존경을 창출한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에만 마음을 쏟고 일사불란하게 일하게 될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 목표는 측정 체계를 제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누리게 한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매일 매일 그 일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가를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성취감을 북돋아 줄 수 있다.

목표는 지속성을 만들어 낸다. 목표에 따라 일하게 될 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목표달성을 위하여 더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와 같이 목표설정에는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에게는 목표 설정이 너무도 힘든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게으름 때문이다. 또는 목표를 세워놓고 성취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또는 남의 비판이나 조롱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실패도 없겠지만 또한 성취도 없고, 진정한 리더십을 갖는 리더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목표설정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제며 또한 훈련이다. 목표설정을 하기 위하여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4. 큰 믿음

목사의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86).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철저하게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고전

---

84).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141.
85). John E. Haggai,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81-83.
86). Dale E. Galloway, 20/20 비전, 45.

10:31-33).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근거로 하여 세운 분명한 목표 설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영적인 리더는 모든 일을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한다(롬 1:17).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요 3:16).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일반적인 믿음이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큰 믿음이 있다.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다(고전 13:2).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의 생애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신앙인이었다는 점이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사무엘 등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었다.[87]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로서의 믿음이다(고전 12:9).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믿음이다(행 2:43).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다(고전 12:10). 담대한 믿음이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다(단 3:13-27). 예수님의 믿음이며, 사도들의 믿음이다. 모든 인간적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다(막 9:23).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할 때가 많다. 불치병이 나았거나 어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결코 기적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을 이루어 내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한다. 영적 지도자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행 27:9-44).

목사의 리더십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오늘 여기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을 제외하고 믿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매일 계산이나 하고 따지기나 하면서 불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이다.

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요

---

87).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173

8:29).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조롱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쓴다(약 4:8).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살전 5:17).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시 1:2). 생각이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말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안다(전 3:1).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훈련을 감지덕지하면서 받는다.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믿음이다(롬 5:3-4). 자아가 다 깨어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다(마 11:29).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여긴다(마 16:2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으로 답하고(고후 1:20), 즉시 순종한다(행 16:6-8).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약 2:14-26).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솔선 수범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용기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하기를 좋아한다. 목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신다(마 8:13).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해 나아간다. 생각과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살전 5:16-18), 여유 있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행 16:25).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시 37:5).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롬 8:28) 간증한다. 목사는 반드시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리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큰 믿음의 목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5. 사람을 키우는 능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요일 4:9).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 본 사람이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맛보고 평생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좇아가는 사람이다(고후 5:14-15). 목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목사는 영적 지도자다. 목사가 강한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런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을 이 사랑에 이끌리어 이

루어 나아가야 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계 2:4).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적 리더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매일 매일의 삶에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마 22:39). 모든 일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고전 13:5). 사람을 키우고 개발하는 일은 리더십에 있어서 최고의 소명이다.[88]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늘 살펴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사랑 받고 축복 받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는 그릇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딤후 2: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필요하다(마 10:1-4).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돌봄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재미있고, 쉽고 편하게 살기를 좋아한다. 경건의 훈련이나 제자훈련이나 기타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일들을 하기를 싫어한다. 교회 안에까지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침투하여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적 리더는 사람을 발굴하여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키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표시다.

우리 성지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사명이요, 비전이요, 목표인 교회다. 영적 지도자는 끊임없이 오래 참으면서 사람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목회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될 것 같아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게을러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묵은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까지도 지극히 사랑하여 다시

---

88). John Maxwell, 당신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 임윤택 옮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160.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여 일으켜 세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다운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목사의 리더십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딤후 2:3-4). 지금은 평신도 지도자가 너무도 많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고, 또 세계의 선교를 넉넉히 감당하려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 센터가 참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

우리 성지교회는 이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성지교회 내에 이미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지도자로 키워나갈 것이다.[89]

6.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구조 조정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늘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영적 리더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갈 1:10)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다.

지금은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다. 눈앞에 다가 온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남고, 또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현재의 교회의 구조를 다시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병적인 모든 요소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고쳐 나아가야 한다[90]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마 9:17).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다(삼상 17:38-39). 사울의 갑옷을 입고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개혁을 가장 많이 외치는 곳이 교회이면서도 가장 개혁과 변화가 늦거나 잘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먼저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목사의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도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사 55:8-9).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롬 8:5-8).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자기만이 옳다는 독

---

89). Ibid., 11.
90). George Barna, 교회성장의 침체를 극복하라, 안보헌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21-36.

선을 버려야 한다.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흑백 논리를 버려야 한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잘못을 고쳐야 한다.

신학이란 하나의 학문이다. 신학의 견해 차이로 서로 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령론의 정립이 시급하다. 특히 은사론의 통일은 더욱 시급하다. 이단을 가려내고 이단의 침투를 막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신학적 견해 차이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잘못을 고쳐야 한다.

현재 교회의 모든 구조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조직, 행정, 예배, 시간사용, 교회내의 놀이문화 등 연구할 분야가 참으로 많다. 교회가 해야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해온 것이 아무리 옳고 좋았다고 해도 이제는 21세기를 위하여 그리고 불신자들과 특히 젊은 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구해서 구조 조정할 것들은 과감하게 해야만, 건강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며, 교회의 관습적으로 해오는 일들 중에서 교회의 비본질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율법적 교역에서 복음적 교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분리주의적 교역에서 통합적 교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부분적 교역에서 전인적 교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도자 중심의 교역에서 교회 중심 교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평신도를 개발하여 그들로 일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일만하고, 실제적인 일들은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교회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91)

필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뜨거운 열정하나만 가지고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즉시로 우리 집에서 집사의 몸으로 성경공부를 시작으로 교회를 개척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왔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고, 참으로 헌신적으로 일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한 마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론이나 치유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아는 것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목회가 효과적이지 못했다.

---

91). 오성춘, 은사와 목회, 50-54.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상히 여기셔서 그럭저럭 오늘의 성지교회가 된 것이다. 내가 교회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고 신학에 대하여 좀더 폭 넓은 이해와 또 인간에 대한 사랑과 더 넓은 이해가 있었다면 우리 성지교회는 한국을 넉넉히 개혁할 수 있는데 더욱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6년 전에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나아져서 지금 이렇게 안식년으로 1년 6개월간 미국에 와서 D. Min을 공부하고 논문까지 쓰게 되었다. 그 동안 치유에 대하여 많은 곳을 다니기도 하고 많은 체험을 쌓게도 되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중풍병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한국교회는 마치 중풍병에 든 환자와 같다. 중풍병은 한 쪽이 마비되고 항상 온몸이 굳어지고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한쪽을 잘 못쓰는 당사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겠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필자의 고통도 참으로 보통이 아니었다. 내조를 받아도 힘든 것이 교회의 목회사역인데 나는 그 동안 중풍병든 아내를 외조하면서 목회를 해 왔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신 것이다.

나는 그 동안 일생에 배우지 못할 많은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하여 체득하게 되었다. 교회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악령에 대하여, 치유에 대하여, 인간이해에 대하여, 주님의 심정에 대하여, 등 등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배우게 되었다.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되는 교회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 하실까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병든 한국교회를 치유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중풍병을 당장에 고쳐주시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서서히 고쳐주시고 있다. 한국교회도 빨리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중풍병 고쳐 나아가듯이 하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다.

그 동안 일년동안 미국에 많은 교회를 탐방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런 많은 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 한국교회에는 구조 조정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참으로 새롭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다.

사람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너무 절대화해서도 안되지만, 아무 것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

이 자기가 책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배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인양 주장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 우리 성지교회도 구조조정 위원회를 만들어 교회의 모든 분야를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고쳐 나아갈 예정이다. 현재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려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그 한 달란트를 파묻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 같이(마 25:14-30), 책망받아 마땅하다. 영적 지도자는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21세기에는 이런 영적 지도자가 인도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교회만이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7. 의사소통의 능력

영적 리더가 아무리 좋은 사명과 비전과 목표 설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의 기본적 기능은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있다. '목사(Minister)'에 해당하는 희랍어 'Huperetes'는 'Hupo(아래쪽에)'와 'Eretes(노를 젓다)'의 합성어이다, 즉 지도자는 '배의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한문의 지도자(指導者)와 의미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전통의 지도자도 '指 - Pointing'와 '道 - The Way'와 '者-Direction'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선장(船長)이 큰배를 움직이려면 선원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선원들이 선장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일체감이 있는 팀웍을 조성, 유지, 발전하는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92)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만큼 의사소통은 중요하다. 그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리더십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의사소통이 없는 리더십이란 있을 수 없다.93) 리더는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이 곧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도 참으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그들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비전을 서로 의사소통하므로 가능한 것이다.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비전을 함께 나눔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열심을 다해 헌신할 때 엄청

---

92).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157.
93). David L. Hocking,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김원주 역 (2판 2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56.

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목사는 교회의 리더로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계속 반복하여 온 교인들과 주기적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선명히 그려질 때까지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지도자는 교회의 예비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능력은 말하는 것과 글을 통하여 가능하다. 존 학가이는 그의 책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에서 7가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94)

먼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고립감을 극복해준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재생산의 한 요소가 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웅변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준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가치 있는 생각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청중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파악해야 한다. 청중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청중의 태도를 평가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청중들의 태도를 평가해야 한다. 당신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청중들의 태도를 평가해야 한다.

리더는 도착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알아야만 한다. 출발하려고 할 때에 목표가 있어야만 한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감동 받고, 확신하고, 환대하고, 실제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리더는 대개 실제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룹 원들에게 목표를 알리고, 감동을 주고, 확신시키며, 환대하도록 실제화 시키는 노력을 한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청중들의 주의를 사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선입견의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리더 스스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 거리가 무엇인가?"를 질문에 보아야 한다. 또한 그들의 욕구와 필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해결법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처음에 강렬한 인상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은 그것이 반복되는 횟수에 비례하여 더욱 선명해지게 된다. 경험은 그것이 회상하는 수에 비례하여 더욱 선명해진다. 경험은 최근에 일어난 것일수록 더 선명하다. 리더의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주장하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주장하는 바가 지지를 받지 못하면, 리더는 교훈적이고, 독단적이고, 심지어 독재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지지를 한다"는 것은 명료하게 하고, 확대하고, 입증하고, 혹은 어떤 식으로든 주장을 분명하고도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다. 주장은 뼈대와

---

94). John E. Haggai,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159-188.

같고, 지지한다는 것을 살과 피-생명-를 주는 것이다.

리더는 사람들이 이미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동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욕구에 호소해서 행동하게끔 자극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 자신들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익하고도 영원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 -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욕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기본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실현화의 욕구가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욕구에 대하여 논하겠다.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은 오래 사는 것과 건강에 대한 욕구이며, 좀더 유쾌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 욕구는 슬픔에서, 고통에서,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포함한다. 사람의 1차 적인 욕구이다. 다음 재산(Property)은 부, 상품, 토지, 금전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단지 생존에 대한 욕구만이 아니라, 갖고 싶어하는 욕구-그것이 필요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이다.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욕구 중에 하나이다.

권력(Power) 은 기술, 힘, 에너지를 갖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그것은(도덕적, 신체적) 힘, 권세, 영향력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 이런 범주에서 보면, 모든 야망도 권력이라는 것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고 본다. 평판(Reputation) 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견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것은 자기존경과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거의가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바란다. 올바르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학구적인 것으로 알려지는 것에서부터 기쁨을 발견한다.

애정(Affection)은 다른 사람의 복지-사랑하는 사람, 마을, 국가의 필요에 대한 관심-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리더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행동하게끔 만들 수 있으나 기본 욕구에 호소하는 법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

목사는 영적 리더로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오직 효과적인 의사소통만이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분명하게 해주고, 이런 필요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들어 준다.95)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끈질긴 열정과 훈련이 필요하다. 계속 연구하고 연습해야 한다. 교인들과의 원

---

95). John E. Haggai,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188.

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우리 성지교회의 중직자들과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나의 건강의 악화로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므로 대화를 하지 못했다. 그들의 인간적인 필요와 욕구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했다. 그들에 대한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96] 그들이 게을러지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못하므로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하면서 목사의 리더십이 교회의 건강과 발전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8. 자기 훈련

리더십은 천성적, 생래적으로 탁월한 천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훈련에 의하여 내재적 잠재력을 키워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97]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장차 리더가 될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계발을 하므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vard Business Review)'지는 1980년에 리더십에 관한 15편의 글을 모아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방법 :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Paths toward Personal Progress : Leaders Are Made, Not Born)'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외과 의사, 전문가, 연설가와 같은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재능을 주시지만, 이것을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재능들은 나타나지 않는다.[98] 세상에서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하물며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님께서 피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은 영적 지도자인 목사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일평생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훈련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먼저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무엇보

---

96). David L. Hocking,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205.
97).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172.
98). John E. Haggai,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34.

다도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모든 영적인 자원을 넉넉히 공급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남을 잘 인도하기 전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이다.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하여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고백하고 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자기 훈련과 자기 성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는 자기가 가 본 길보다 사람들을 더 멀리 인도할 수 없다. 한 기자가 위대한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을 가장 괴롭게 하느냐" 고 물었다. 무디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 "살아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 라는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소". 잭 파아도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 일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다. 그 중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었다".99)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나는 관찰을 통해, 많은 가능성 있는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어리석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울 때 우리는 자신을 정복하기 원한다.100)

필자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기도에 전념해 왔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00일간의 철야기도, 또 40일 금식기도, 금요 철야기도, 매일의 새벽기도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2년 이상 아침저녁 매일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기도에 실패하면 영적인 일은 실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훈련에 전념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목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찾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행에 옮기므로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경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큐티 훈련도 생활화하여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인도하고, 구역예배도 매일성경을 사용하고 많은 성경공부반을 개설하여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 참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말씀과 이를 이해하는데

---

99). John Maxwell,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강준민 역, (6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256.
100). Ibid., 257.

필요한 많은 영적인 책들을 읽는 훈련을 힘써야 한다.

목사는 많은 것을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쓰는 훈련도 해야 한다. 말하는 훈련도 해야 한다. 얼굴 관리 훈련도 해야 한다. 거울을 보고 웃는 얼굴을 연습하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자기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의 순결한 모습, 자신의 진짜 모습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해에 Houston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에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최영기 목사로부터 자기 이미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은 바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과 문제와 고난과 시험 등을 통하여 매일 매일 자기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여 모든 면에 실력을 쌓아 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실 날이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쓰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의 영적 훈련장이다. 모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많은 영적인 선물들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것이다. 또한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체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명도 비전도 꿈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필자는 처음 개척교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완전히 탈진(burn out) 되어서 그후 10여 년 간 아주 약한 가운데 지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을 중단하고 많은 기존 교회들과 같이 타성에 젖은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후 건강회복을 위하여 참으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여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고, 21세기에 우리 성지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가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을 위하여 절제하는 생활을 몸에 익혀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고전 9:27)고 고백할 정도다. 우리 주님도 사도 바울도 또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두가 건강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기독교 지도자들의 첫째 요건은 '하나님의 전'인 몸을 잘 지키고 체력을 증진하는 일이다. 체력이 약하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101)

자기 훈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다. 먼저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끊이지 말고 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에 밸 때까지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한 가지 이상 개발하여 꾸준히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 운동 부족 때문에 많은 현대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목사들은 대부분이 운동 부족 증에 시달리고 있다.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자기 훈련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정적인 것을 숭상하고 점잖은 것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심신을 단련하여야 한다. 운동을 할 수 없으면 산이라도 가고 그것도 잘 안되면 걷기라도 해야 한다.

영력은 체력에 비례하는 것 같다. 몸에 건강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성취할 수 있다.

이상에서 건강한 교회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교회를 정의하였고, 선교적 관점으로 본 교회의 존재 목적을 기술하였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살피고, 건강한 교회를 정의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리더십임을 기술하였다.

---

101).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179.

제 3 장
치유에 대한 이해

제 1 절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에 대한 많은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많은 교회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치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란 질병을 고치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이 영적 통로, 심리적 통로, 육체적 통로, 전환경적 통로, 그 외의 통로 등 많이 있는 것 같이 치유의 방법도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영적인 치유를 다룰 예정이다. 치유의 어원을 조사해보면 치유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다.

1. 용어의 의미[102]

믿음에 의한 치유는 믿음에 의한 치유자 또는 그의 행동에 역점을 둔 용어이다. 이 용어를 따를 경우에는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기울어지기 쉬우며, 따라서 그러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기가 쉽다. 믿음의 치유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것만은 사실이지만, 모든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는 그분의 치유능력의 통로에 불과한 믿음에 의한 치유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치유의 역사가 저해될 가능성이 커진다.

신적 치유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이다.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것이므로 당연히 신적(divine)인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의 사용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은, 하나님의 치유능력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나치게 그분의 주권

---

102).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29-30.

적인 역사에만 의존함으로써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치유사역의 기회를 간과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는 물론이려니와 간절한 중보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도 역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적 치유라는 용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의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치유사역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치유에 관한 기록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치유의 가능성은 하나의 우주적인 현실이며, 종교적인 테두리를 훨씬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치유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일차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적인 치유라는 용어는 치유에 관련된 교회의 모든 사역을 나타내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 용어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본다. 영적인 치유란 물질적 또는 심리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유를 말한다. 이는 또한 믿음, 기도, 영적인 수련, 그리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가치들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역점을 둠으로써 이루어지는 치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영적인 치유는 진료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에, 약품보다는 믿음에, 수술보다는 헌신에, 그리고 처방보다는 기도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교회의 치유목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복음선포와 교육과 치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세 가지 형태의 사역이었다. 이 가운데 치유는 그분의 사역에서 결코 제외할 수 없는 핵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사도들 역시 이 일을 이어받아 실천에 옮겼다."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에 내리신 지상명령의 내용은 "가서 가르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치유하라"는 3중적인 것이다[103]

2. 구약성경에 나타난 치유

구약성경에서는 치유의 의미로서 히브리어 '라파(rapa)'와 '아루카(arukhah)', '마르페(marpe)'가 있다. 'rapa(라파)'는 '고치다. 온전케 하다(출 15:26; 민 12:13)', '치료하다(창 20:17)',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다, 용서하다(대하 30:20; 렘 3:22)'의 의미를 가진

---

103). Ibid., 31.

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인간의 질병치유(시 6:2; 렘 17:14)뿐 아니라 나쁜 물의 치유(왕하 2:22), 바닷물이 소생함을 입거나(겔 47:8), 토기장이의 그릇이 회복되는 것(렘 19:4), 국가적인 회복(호 6:1; 렘 51:8-9) 등에 사용된다. 'arukhah(아루카)'의 의미는 의사가 상처를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긴 붕대'이다. 'marpe(마르페)'는 '치료하다', '고치다'(렘 8:15)라는 뜻과 '몸과 마음의 양약'(잠 12:18), '재앙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마르페'는 '싸매고 치료하여 온전케 하는 회복'의 의미이다.[104] 이외에도 'Halam(회복하다. 사 38:16)', 'Tsama(치료하다. 사 58:8)', 'Rapha(상처를 고치다, 치료하다(창 20:17)',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시 30:3)', '위로하다(렘 8:11)', '치료받다(레 13:37; 사 53:5)' 등의 뜻이 있다.[105]

3. 신약성경에 나타난 치유[106]

신약성경에서는 치유의 의미로서 헬라어 'sozo'와 'iaomai hugies'가 있다. 'sozo(소조)'는 '구원'과 '치유'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은 "위험과 고통과 죄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소테리아(soteria)'이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17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치유를 이렇게 묘사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소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질병과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신적 구주(소테르, Soter)이신 그분은 이제와 영원히 사람들을 풍부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iaomai(이아오마이)'는 신약성경에서 육신적인 치유를 의미하는데 22회 사용되었다. 가나안 여자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이 좋은 예이다. "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마 15:28). 그 단어는 또한 영적 치유를 뜻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선언하시기 위해 이사야 61:1을 인용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 4:18).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에서 육체적, 영적 필요들의 치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아오마이를 사용하고 있다.

---

104). 박형렬, 탁월한 목회 리더십, 120.
105). 이훈구, 지금도 행하시는 치유 (서울: 도서출판 양문문고, 1996), 17.
106). Walter Kaiser 치유자 예수님, 김진우 역 (2판; 서울: 도서출판 횃불, 1995), 20-21.

'hugies(후기에스)'는 복음서들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 가에 있었던 사람에게 하신 질문에 사용되고 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 5:6). 흠정 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마 12:13).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셨던 것이다. 그분은 생명의 창조자로서 그렇게 하셨다. 오히려 그분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스스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취하신 것이다.

4. 치유의 정의[107]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의 치유목회에 오랜 세월 동안 종사해 온 버나드 마틴은 다음과 같이 치유를 정의했다.

> "치유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저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을 파멸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치유에는 그 밖에도 그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 그의 인격이 활짝 꽃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질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완전한 인격을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유된 사람이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계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을 모두 제거한 사람을 말한다. 치유란 단순히 병들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의료 선교에 종사해 온 제임스 반 버스커크 박사는 "치유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였다.

데이비 박사는 치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치유는 인간의 전인적인 건강을

---

107).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32-34.

지향하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치유를,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체의 악한 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치유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궁극적인 승리가 죽음 저 너머에 놓여 있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 승리가 이미 선포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에벨린 언더힐은 "치유란 인간성을 회복시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게 함으로서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트르담 대학교 교수인 몰튼 켈시박사는 현대 치유목회 분야에서 업적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 그는 "치유란 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일이다"고 하였다. 레슬리 웨드해드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치유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육체가 물질적인 세계에서, 정신이 참된 이상의 영역에서,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작용할 수 없게 된 왜곡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조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치유란 단순히 병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의 의미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하면 단지 신체적으로 질병 또는 약함이 없는 상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나, 그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보는 시각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건강정의108)는 다음과 같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나, 허약하지 않다는 등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여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이라야만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7년에는 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의료위원회(C.M.C)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건강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의 역동적 상태이다. 이것은 곧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녕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서로 서로 뿐 아니라 물적 환경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 안녕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과 역동적인 접촉에 있음을 지칭하는 것이고, 기독 자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부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

108). 이길상, 성경에서 본 식생활과 건강법 (8판; 서울: 기독교문사, 1996), 197.

요즈음 미국에서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래 'health(건강)'의 어원은 'hal(건전한, 완전한)'의 뜻의 고대 영어라고 한다. 그러므로 건강이란 원래 신성하고, 완전하며, 부분적이 아닌 전체라는 뜻이며, 자기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최근에 'holistic health'라는 한 부분적인 건강이 아니고,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건강을 뜻하는 사상이 선진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개발해 주어야 할 전인건강은 영성적인 건강(Spiritual Wholeness)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과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얻는 삶의 생동감과 능력을 증진시킴을 의미한다.109)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평화'는 건강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Shalom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이며, 공동체가 경험하는 경제적 번영, 정치적 번영을 포함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건강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10) 건강은 기본적으로 온전한 상태며,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누어지지 않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측면의 건강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영적측면의 건강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함한다. 물리적 측면의 건강은 힘과 장수로 나타난다.

신약성경에서의 건강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뜻으로 이해되었다. 건강은 온전함, 유쾌함, 건전함, 생명 그리고 구원 등의 단어로 나타난다. 이는 구약성경에 있는 건강의 관점과 같다.

건강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를 살펴보자.111) '휴기에스(hugies)'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에이레네(eirene)'는 '평화로운 상태'라는 말로 '전쟁 또는 혼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의미한다. '조네(zone)'는 '생명'을 뜻한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중심주제인 생명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한다. '텔레이오스(teleios)'는 영어성경에서 보통 '완전한(perfect)'으로 번역된다. 신약에서 '건강'의 뜻으로 사용된 '소테리아(σωτηρια)'는 '신체적 건강', '안녕', '온전함'이나 '구원'의 의미로도 번역된다.112)

전인건강의 6가지 차원113)이 있다. 인간의 마음을 북돋아 주는 일, 인간의 몸을

---

109). 엄예선, CN 742 Family Crisis and Pastoral Care 1997년 강의록, 5.
110).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서울: 도서출판 좁은 문, 1995), 116.
111). Ibid., 117-118.
112). 박형렬, 탁월한 목회 리더십, 113-114.

잘 관리하는 것,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잘 하는 일, 생태계를 잘 돌보는 일, 인종차별, 성 차별, 서대차별, 계급주의, 종족주의, 정치적 억압 등의 사회 문제해결 과정에 동참하는 일, 인생의 의미, 가치관, 신앙을 포함하는 영적 성장을 키워 주는 일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건강이란 전인적인 것으로 사람의 영적, 정서적, 인간 관계적, 사회적, 문화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균형 잡힌,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2 절 치유의 목적

치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4:23-24에서 우리 성령님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치유하신다. 고린도전서 12:7-9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증명하고 있다.114)

1. 예수 그리스도의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마 9:35)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교육, 전도, 치유였다. 사복음서의 오분의 일(총 3779절 중 727절)이 치유와 관련된 것들이다.115) 사복음서의 오분의 일이라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말씀이 치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 심장하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사역을 하실 때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도록 파송하셨다(마 10:1).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서 41번 이상에 걸쳐서 치유를 행하셨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치유)하러 오신 분이시다.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에서 치유하러 오신 분이심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1:2-6에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치유임을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때, 열병, 말라리아, 문둥병, 선천성 소경, 파킨스씨병, 신장염, 관절염, 간질병, 귀머거리, 신체장애, 정신병 등의 치유였다. 예수께서는 두려움, 불안, 긴장, 흥분, 불면증, 우울증 등 각종 신경성 질환도 고쳐주셨다.116)

---

113). 엄예선, CN 742 Family Crisis and Pastoral Care 1997년 강의록, 6.
114). Colin Urguhart, 치유함을 받으라, 이광호 역 (재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9.
115). Mark A. Pearson,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윤수인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13.
116). Ibid., 45.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례표117)

개인의 치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하의 아들				4:46-54
더러운 귀신		1:21-28	4:31-37	
시몬의 장모	8:14-15	1:29-31	4:38-39	
한 문둥병자	8:1-4	1:40-45	5:12-16	
중풍병자	9:1-8	2:1-12	5:17-26	
못가의 병자				5:2-18
오른손 마른 사람	12:9-14	3:1-6	6:6-11	
백부장의 종	8:5-13		7:2-10	
과부의 독자			7:11-17	
거라사의 귀신들린 자	8:28-34	5:1-20	8:26-36	
혈루증을 앓는 여자	9:20-22	5:25-34	8:43-48	
야이로의 딸	9:18-26	5:21-43	8:40-56	
두 소경	9:27-31			
귀신들린 벙어리	9:32-34			
가나안 여자의 딸	15:21-28	7:24-30		
귀먹고 어눌한 자		7:32-37		
벳세다의 소경		8:22-26		
간질병 아이	17:14-21	9:14-29	9:37-42	
소경된 사람				9:1-14
소경, 벙어리 귀신들린 자	12:22-30		11:14-26	
허리 굽은 여자			13:10-17	
고창병 든 자			14:1-6	
나사로를 살리심				11:1-44
열 명의 문둥병자			17:11-19	
소경 거지 바디메오	20:29-34	10:46-52	18:35-43	
대제사장의 귀			22:50-51	

예수에 의한 다수의 치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시몬의 집 앞 각색병 환자들	8:16-17	1:32-34	4:40-41	
귀신들을 내어쫓으심		1:39	행 10:38	
문둥병 고친 후 찾아온 무리			5:14-16	
가버나움 근처의 무리	12:15-21	3:7-12	6:17-19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	11:2-6		7:18-23	
막달라 마리아 등 악귀가 치유된 여인들			8:2	
오천 명을 먹이기 전	14:13-14		9:11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14:34-36	6:53-55		
사천 명을 먹이기 전	15:29-31			
요단강 건너편의 무리	19:1-2			
성전의 소경과 앉은뱅이	21:14			
나사렛의 병든 자들	13:53-58	6:1-6		
각색 병든 자들	4:23	6:56		
모든 아픔과 병	9:35			
예수의 말씀과 믿는 자들과의 약속	10:7-8	6:7	9:1-2	
열 두 제자에게 은사 주심	10:1, 7-8	6:7-13	9:1-6	
칠십인 의 파송			10:1-20	
예수 자신의 치유사역에 대한 증언			13:32	
완전한 영원의 치유			계 21:4	

117).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42-44.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우리 주님을 좇아가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교회는 종합 치유 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이일을 명령하셨다.

마태복음 28:19-20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 속에 병든 자을 치유하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18] 그런데 교회가 교육과 전도를 하면서 치유를 빼놓거나 등한히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에 의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행 2:43).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표적(sign)과 기사(wonder)라고 묘사한다.[119]

표적(sign)은 두 가지 일을 한다. 즉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우리는 여행할 때 길거리에 세워놓은 도로 안내판을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얼마나 남았으며, 어떤 길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표적들도 마찬가지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어디에 우리의 건강하고 풍성한 삶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준다. 치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치유를 통해 그 치유를 있게 해주신 치유자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치유는 또한 기사(奇事)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병에서 치유를 받는 일이며, 그렇게 크시고 할 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 많고 부족하고 욕심 많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치유의 권능으로 고쳐주시는 것은 참으로 기사(wonders)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치유사역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120] 치유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요 14:12)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시대며, 노아 때보다도 더 악한 시대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모든 징조가 밝히 보이는 시대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얽매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다. 병원에서 고치

---

118). Colin Urguhart, 치유함을 받으라, 295.
119). Mark A. Pearson,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15.
120). Ibid., 15.

는 것은 한계가 많다. 교회가 치유에 대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각성하여 전적으로 치유목회를 감당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럴만한 충분한 성령의 권능과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121)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모든 은혜와 은사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후 9:8; 롬 8:32).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들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전 10:31).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멘' 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이다(고후 1:20). 치유사역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 일을 교회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의 축복을 잘 모른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것이다. 이 사실은 깊은 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들이 깨닫는 진리이다.

사람은 아프기 전에는 세상에 원하는 것이 많지만 몸이 병들면 소원은 한 가지가 된다. 병에서 낫는 것이다. 특히 병이 오래되거나 병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변화되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어떤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잘못 때문에 치유사역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

121). Walter Kaiser 치유자 예수님, 26.

것은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치유는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성공주의나 자기과신주의가 아니다. 치유는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122)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일에 대하여 로마서 15:17-18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3차의 선교여행과 마지막으로 로마로 향해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많은 부분이 치유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자들에 의하여 다수가 치유된 내용들이 많다(행 2:43; 5:12-16; 6:8; 8:5-13; 14:3; 15:12; 19:11-12; 28:9). 현재도 많은 선교지에서는 이런 류의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선교지에서는 절박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교회들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123)

[도표 6]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개인의 치유에 관한 기록들124)

제자들에 의한 개인의 치유	사도행전
앉은뱅이 된 자의 치유	3:1-10
바울이 다시 보게됨	9:12, 17, 18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침	9:32-35
도르가를 죽음에서 일으킴	9:36-42
루스드라의 앉은뱅이	14:8-10
돌을 맞아 죽은 듯한 바울의 일어남	14:19, 20
점하는 귀신들린 여종	16:16-18
죽었다가 다신 살아난 유두고	20:7-12
독사에 물리고 이상 없는 바울	28:3-6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	28:8

122).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212.
123). Don Dunkerly, 누구나 병고치는 기도사역으로 전도, 부흥할 수 있다! 권혁재 역(서울: 종합선교 나침반 , 1996), 22-23.
124).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47.

3. 우리의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

앞에서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하면 "치유란 고통, 부자유, 슬픔, 속박, 여러 가지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 불편에서 구원, 해방시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125)이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10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는 지를 잘 알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마귀는 영적인 도적이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은 실재하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최종적으로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히 2:14).

질병은 우리에게 수많은 손실을 입힌다. 오늘날 수많은 대형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진찰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입원이나 수술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 가정에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간적 손실, 정신적 손실, 마음의 손실, 자신의 건강까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환이 도적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깊은 병에 걸려 있는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게 되기도 하지만, 가정 분위기가 항상 밝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짜증을 잘 낸다. 항상 우울하다. 자기 중심적이다.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치유란 이런 사람을 고쳐주어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므로 본인도 활기에 찬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여 가정을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온 인류는 질병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고 있는지 모른다. 교회는 질병과 더욱 적극적으로 싸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야 한다. 온 세계에 있는 병원만 다 없어질 수만 있다면 그 인력과 돈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복음전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치유사역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질병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너무도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도적질해 가고 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질병도 대적해야 한다. 질병을 고치는 것

---

125).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32-34.

이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는 인간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징표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들어 있는 복음을 나타내주는 징표다.126)

필자는 자신이 치유를 받은 체험이 있고, 또 우리 성지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해 본 경험도 있다. 특히 아내가 1992년 4월 24일에 중풍으로 쓰러져 한 달간을 사경을 헤매었다. 왼쪽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어서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전혀 없었다.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변소도 못 가고 끝없는 통증 때문에 하루에 네 번씩 몰핀 주사를 맞았다. 정신도 오락가락하였다. 그 때 아내의 소원은 단 5분만이라도 머리의 쪼개지는 것 같은 통증만 없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는 좀 나아서 내가 걸어서 화장실만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많은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걸을 수 있고 혼자 밥 먹을수 있고, 변소도 갈 수 있다. 현재는 모든 건강상태가 전 보다 더 좋아졌다. 단 왼쪽 손만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필자는 이 일을 통해서 치유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직접 깨닫게 되었다. 한 가정에 이런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 것인가를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통적인 복음주의를 고수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는 결여된 상태에 있다.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는 그의 체험을 통하여 자서전적인 「능력 그리스도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27)

"영적인 능력을 통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결코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으며, 단지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행사하셨을 뿐이다. 그리고 같은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며(눅 9:1), 그분의 사역 말기에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시하셨다(마 28:20). 나는 예수께서 '모든 것'이라고 하신 것들을 모두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나는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의 일부 - 사랑, 용서, 회개, 복음전도 등 복음주의자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고 여기는 일들 - 에만 힘을 쏟아왔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모든 것'의 다른 측면 - 영적인 능력의 차원 - 을 체험하도록 권고하고 계신다. 나는 우리 모두가 사랑에 가득 찬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능력에 가득 찬 그

---

126).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209.
127). Charles H. Kraft, 능력 그리스도교,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2), 31.

리스도교를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필자는 체험을 통하여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치유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온 인류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궤계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류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해방시키는 것은 복음과 성령의 권능과 치유에 대한 열정과 이를 위한 기도를 통한 교회의 치유목회전략이다. 죄와 질병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아 영생을 얻었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면서도,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며, 마귀에게 속은 것에 불과하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 계속 육신적인 생각에 젖어서 사는 수많은 신학자, 목사,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치유가 너무도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본주의 생각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상이다.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는 신학이며 사상이다. 귀신의 축사부분도 마찬가지다. 현대는 일곱 귀신 들린 세대와 같이 역사상 노아 때 이후 가장 악한 시대다.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그럼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이며 통합적이며,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다.128)

4. 전도의 기회

돈 던컬리(Don Dunkerly)는 치유와 전도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세계 도처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의 공식 활동에 치유사역을 연계시키는 교회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치유를 뒷전으로 밀어 놓으면서 동시에 특별히 잘 부흥하고 있지도 못한 교회들 사이에 상관 관계가 어떤지 당연히 의문이 제기된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일까?

게다가 아직도 이 세계 도처에는 의사도 마땅치 않고 의약품도 없으며 기도 응답으로 오는 치유만이 유일한 소망인 가련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병원과 진료소와 의약품만을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선교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바로 치유나 또한 여타

---

128). 박형렬, 탁월한 목회 리더십, 92-93.

의 '표적과 기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가와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간구해도 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에서 보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벽을 뚫는 대부분의 돌파구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의 결과들로서 또는 그런 현상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다.129) 성령의 능력에 의한 표적과 기사로서의 치유는 많은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 주님의 사역부터 그러하다. (마 4:23-24)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복음전파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그의 치유의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의 순서가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꾸짖어 고쳐주고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을 모두 고쳐주고 이 소문이 널리 퍼진 후에 전도하러 가심으로 되어있다(눅4:31-44).

믿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 성령의 능력에 의한 표적과 기사로서의 치유는 전도의 문을 넓게 열어놓는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나 또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이른 것임을 믿도록 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자신이 치유를 체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기가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회개로 치유를 체험하게 되면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사실에 대하여 간증하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이다.

자기가 치유를 체험한 사람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무어라고 하여도 그는 믿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체험적이다. 많은 체험 중에서도 치유의 체험이 가장 많은 것이다. 치유사역은 복합적이며, 전 인격적이다. 치유를 너무 육체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육체의 치유를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치유란 영, 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한다(살전 5:23).

이런 성경적인 전도의 복구에 치유가 나타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130)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미국 중산층의 학식 있는 사람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것은

---

129). Don Dunkerly, 병고치는 기도사역으로 전도 부흥할 수 있다, 22-23.
130). Ibid., 34.

바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서구의 세속적 세계관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성경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도입하는 '패러다임 전환'이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회에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기독교 신학자들만큼 흑백논리가 강하고 자기의 배운 것을 절대화하여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양극단에서 서로가 이단이라고 싸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열고 대화를 하며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폭 넓은 태도가 요청된다.

물론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도적질하는 이단을 파헤치고 그들을 박멸해야 하지만, 신학적인 조그만 견해 차이로 서로를 헐뜯고 정죄하며 물고 먹는 그런 짓은 중단해야 한다. 신학이나 교단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를 끼칠 때가 많은 것은 유감된 일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치유는 전도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필자는 아내의 중풍으로 인하여 많은 치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일반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가 치유에 대하여 오해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무지하고 치유사역을 등한히 하므로 기도원이나 기타 엉터리 치유사역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치유사역을 정립하여 교회가 바로 이 치유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필자가 참석한 치유집회는 Toronto Blessing, Vineyard Church Ministry, Benny Hinn Healing Ministry, Pensacola에 있는 Brownsville Church의 회개와 찬양과 치유집회, Francis and Hunter의 치유집회 등이었다.

이런 치유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즉시에서 놀라웁게 치유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나와 아내도 치유의 체험을 갖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몇 명의 치유의 은사를 가진 집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지금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똑같은 은사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므로 많은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율법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얼마나 편견과 선입관과 고집과 아집이 강한지 모른다. 필자도 신학을 공부하고 배운 대로 목회하다가 아내의 중풍으로 인하여 영적인 세계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리고 치유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성령론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성령의 은사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5.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해

치유와 하나님나라의 관계를 탐 마샬(Tom Marshall)은 이와같이 말한다.131)

> "지난 세기 동안 교회 내에서 치유사역이 실제로 미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가 빠져버렸거나 체념된 상태에 있었던 데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치유사역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강조는 함께 동반하는 것임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 치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자 하나님나라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복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에는 본래 장소나 일정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공간을 포함한 전 우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나라의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되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곧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132) 마귀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한 첫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이 만연한 어두움의 왕국이 되었다. 특히 질병과 귀신들림은 사단의 속박의 하나이며 사람을 압제할 수 있는 귀신은 그의 '사자'이다(행 13:16; 10:38).133)

이러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

---

131). Tom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이상신 역 (8쇄;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1997), 55.
132). Ibid., 56-57.
133). Ibid., 58.

땅위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침노한 것이다.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나라를 건설하시는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마 4:1-11). 다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병자를 치유하셨다(눅 13:16).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선언하셨다(마 12:28).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눅 9:1-2). 그리고 죽음의 영역에까지 침입하셔서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로부터 죽음의 희생자들 - 야이로의 딸, 나인 성의 과부의 딸, 베다니의 나사로 - 를 다시 살리셨다(마 9:24-25; 눅 7:12-15; 요 11:43-44).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다(마 9:2; 요 8:10-11). 또한 자연에 대한 저주를 없애시고 땅을 다스리는 인간의 권위에 대한 상실을 회복시키셨다(마 8:24이하; 14:15이하; 요 2:23이하; 21:5이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며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여 하나님 나라를 공포하였다(눅 4:18-19).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탈하셨다(히 2:14; 요 12:31).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을 포로로 잡아두고 있었던 모든 근거가 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셨으며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대적의 세력을 해체시키셨다(골 2:15; 1:13-14).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있다(마 16:18-19).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행 1:3-4).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명령과 함께 이 말씀을 제자들은 명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 - "주의 날"에 관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욜 2:28; 행 2:16-21).

이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땅 위에 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그것은 이미 도래한 것이지만(마 12:28)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마 6:10).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이곳에서 미리 맛을 보는 것이다.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전 4:20).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표식이다134).

6. 교회는 치유 공동체임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는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마 이루시고 승천하시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 위에 탄생한 교회는 치유 공동체로서 맡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 교회가 치유를 마땅히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135)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창시자로서 치유사역을 하셨다. 교회에 내리신 지상전도 명령에는 치유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치유는 초대교회가 행한 정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 초대교회에 여섯 가지 사역이 있었다. ① 선포하는 교회(고전 1:23-24). ② 가르치는 교회(행 2:42). ③ 찬양하는 교회(롬 15:6). ④ 친교하는 교회(행 2:42). ⑤ 봉사하는 교회(행 2:45). ⑥ 치유하는 교회(행 5:16).

치유는 초대교회에 내려 주신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다(롬 12:6-8; 고전 12:8-10; 고전 12:28-30; 엡 4:11). 교회는 장구한 세월 동안 치유사역을 행하여 왔다

오늘날 교회의 치유사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다시 크게 고조되고 있다. 교회는 신약에 제시된 것과 같은 치유를 포함한 본격적인 사역 형태를 재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치유에 관한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고, 치유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치유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교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 분야에서 교회가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새롭게 일깨워지고 있다.

교회는 치유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이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다. 교회는 종합 치유원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름 모를 많은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어야 한다.

야고보서 5:13-16에서는 죄와 병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의 확신을 줄뿐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여 주는 것이다. 죄 사함을 믿는 사람은 병 낫는 것도 믿어야 합당하다.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세움을 입은 것이다. 오늘날에

---

134). Ibid., 64.
135).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149-151.

도 성경 말씀대로 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치유는 교회의 정규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136) 교회는 치유사역을 위해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 3 절 치유의 방법들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다. 질병의 근원은 마귀이지만 질병이 사람의 몸 속에 들어오는 통로는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다양한 치유의 방법들을 알아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치유의 방법을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치유는 모든 지역교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치유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약속이다.137)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1. 예수님의 치유 방법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온 병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셨다. 그는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거나,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적인 매개물을 사용하셨다. 그가 치유해 주신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였던 것처럼 치유 방법도 다양하였다. 같은 종류의 병을 치유하실 때에도 항상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다. 소경을 치유하실 때에도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치료하셨고(눅 18:42), 또 어떤 사람은 단계적인 치유(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확인하신 후 다시 안수)에 의하여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치료하시기도 하셨다(요 9:6). 그의 치유 방법들을 다른 가능한 치유 방법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의 치유가 그 본질에 있어서 주로 성례전적 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138) 그의 가장 일반적인 치유 방법은 병자들에게 말을 거시는 것과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이었다. 비록 때때로 그는 이 두 가지 방법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셨으나, 종종 이 두 가

---

136). Ibid., 157.
137).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181.
138).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 역 (5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90.

지 방법들을 함께 사용하시기도 하셨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방법 7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 귀신을 쫓아냄

귀신이 질병을 가져다 준 경우나 또는 귀신들려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귀신을 직접 쫓으시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다(요일 3:8).

(1)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심(막 1:21-28; 눅 4:31-37)

예수님께서 안식 일날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세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니 뭇 사람이 놀랐고, 마침 회당 안에 있었던 한 귀신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고 그 사람은 온전케 되었다. 여기에 몇 가지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다.[139] 회당이라는 종교단체 속에 악한 귀신의 세력이 숨어 있다.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있었다. 귀신들도 떼를 지어 악한 짓을 하고 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우리도 성령충만하고 말씀에 권세가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은 쫓겨 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거나 난리 법석을 부리고 나간다. 마귀는 파괴자다. 회당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아보았다.

(2) 무덤에서의 해방(마 8:28-34; 막 5:1-20; 눅 8:26-39)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들린 두 사람이 무덤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린 두 사람은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였을 때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 떼들은 비탈로 내리 달

---

139). Michael Harper, 예수의 치유, 고재봉 역 (2쇄; 서울: 요단출판사, 1993), 50-52.

아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였다. 두 사람은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긍휼히 풍성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파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기이히 여겼다.

(3) 제자들이 치유할 수 없었던 사건(마 17:14-21; 막 9:14-29; 눅 9:37-43)

이 사건은 모든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본문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라 하였고,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귀신이라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귀신이라 하였다. 한 사람이 귀신이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고 불과 물을 분별치 못하고 그 속에 마구 들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 달라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신앙고백을 받아 내신 후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는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영적인 교훈은 제자들이 믿음이 적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귀신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사람에게도 여러 종류인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귀신은 영적인 능력으로만 쫓아 낼 수 있다.140)

(4) 귀신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고침 받음(마 12:22-24; 눅 11:14)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들으시면서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실 때 귀신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었다.

(5) 일곱 귀신에게서 해방된 어떤 여자(눅 8:1-3)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주님께 고마워하였던 것이 틀림없다.141)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 여인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6)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으심(마 15:21-28; 막 7:24-30)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서 와서 흉악 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처음에는 주님께서 냉담하였으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 매달리므로 주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

140). Ibid., 57-58.
141). Ibid., 60-61.

나. 죄를 용서하여 주심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질병을 고쳐 주셨다.

(1)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마 9:1-8; 막 2:1-12; 눅5:17-26)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이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하시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으로 완전히 고쳐주셨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중풍병자의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은밀한 죄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받았을 때 그는 즉시 고침을 받았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권세의 말씀으로 치유가 이루어졌다.

다. 손으로 만지심으로 치유하심

예수님은 때로는 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심으로 치유하셨다.

(1) 두 소경을 고치심(마 9:27-31)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두 명의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그들에게 묻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자 그들은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 그 눈들이 밝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심과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지 사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보다는 눈뜨기를 갈망하는 저들에게 신앙을 북돋아 주기 위한 사랑이 깃들인 보살핌으로 봐야 한다.142)

(2) 한 문둥병 자를 고치심(마 8:1-4)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아와 절하고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

142). 이훈구, 지금도 행하시는 치유, 165.

실 수 있나이다"하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 자를 만지신 것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라. 침을 사용하여 치유하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치유하셨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는데, 침을 사용하시기도 하셨다.

(1)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심(막 8:22-26)

예수님께서 벳새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간구하므로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자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여 완전히 고쳐주셨다. 여기서는 안수하심과 침을 사용하여 소경을 치유하여 주셨다.

(2) 나면서부터 소경 된 자를 고치심(요 9:1-12)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나면서 소경 된 자를 만나게 되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의 소경 된 근원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소경 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요청이 없었으나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소경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침으로 소경을 치유하셨다.

(3)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막 7:31-37)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가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안수와 침과 권능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셨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안수와 침을 사용하셨을까 ? 첫째 예수님은 소경이나 귀머거리에게 직접 접촉하심으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표시하였고, 둘째 환자가 능동적인 믿음을 지닐 수 있게 하려 함이다. 닫혀진 눈이나 귀가 열리게 하는 직접적인 약효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과 노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43)

마. 명령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매개체도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명령하심으로 죽은 자를 세 번 살리셨다. 그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었다.

(1)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마 9:18-26; 막 5:22-43; 눅 8:41-56)

이 기사는 모든 공관복음서에 포함되어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신 유일한 경우이다. 모두가 예수의 옷을 만져 치유함을 받은 여인에 대한 막간의 이야기를 포함한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다. 사람들은 울며 장사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러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훤화 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 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고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12살 어린 소녀가 다시 산 것이다.

(2)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심(눅 7:11-17)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과부의 독자의 시체를 메고 나오매 주님께서 슬픔에 빠진 과부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관속에 있는 시체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어미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시체에게 명령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단적인 실례였다.

(3)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요 11:1-44)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함께 사는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쳐왔다. 나사로가 깊은 병에 걸려 죽음이 임박하고 있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

143). Ibid., 164.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지난 후에야 오셨다. 나사로는 죽은지 이미 사흘이나 되어 무덤에 있었다. 이제 그의 시체는 썩었고 냄새가 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르러 무덤에 문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후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의 시체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죽어 시체가 되어 썩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권능의 명령에 따라 다시 살아난 것이다.

바. 말씀으로 치유하심(눅 17:11-14)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매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하자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 예수님은 아무런 다른 치유의 방법을 쓰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이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의 발아래 엎드려 사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 일곱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심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 온 환자 자신의 믿음이나 대신 간구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셨다.

(1)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료하심(마 9:20-22; 막 5:25-34)

이 여인은 12 년간이나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 졌을 때 예수님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질병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곧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서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신 것이다.

(2)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심(마 8:5-13)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의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 달라고 간구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백부장은 다만 주님의 권능의 말씀만으로 명령하시면 낫겠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이 즉시 고침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셨다.

(3) 두 소경을 고치심(마 9:27-30)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거기를 떠날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 하외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들의 눈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믿음으로 고침 받은 것이다.

(4) 소경 거지 바디매오를 고쳐주심(막 10:46-52)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고쳐달라고 하자 많은 사람은 꾸짖어 잠잠 하라 하였으나 그는 오직 믿음으로 계속 고쳐달라고 간청하매 주님께서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바디매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신 것이다.

2.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치유 사례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교육, 전도, 치유사역에 전념하셨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며 치유사역을 명령하셨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눅 9:6).

또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병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다(눅 10:17).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하였다(눅 10:17).

마지막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문

도들을 중심으로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시작되자 거기에서도 치유사역은 계속되었다.

가. 베드로의 치유한 사례들(행 3:1-10; 5:15-16; 9:32-35; 9:36-40)

사도행전 3:1-10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 앉은뱅이가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사도행전 5:15-16에 보면,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덮여서 고침을 받을까하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이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9:32-35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가서 애니아라는 8년간 중풍으로 상위에 누운 여자를 만나서,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

사도행전 9:36-40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선행과 구제가 많은 여제자가 죽어 다락에 뉘인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그가 산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교회에 기둥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치유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며 전도하였다. 치유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나. 사도 바울의 치유한 사례들(행 9:1-18; 14:8-10; 14:19-20; 16:16-18; 20:7-12; 28:3-6; 28:8-10)

사도행전 9:1-18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사울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또 그가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사울의 사도로서의 생애는 이 다메섹의

체험에 의한 것이며144), 또 치유의 체험은 엄청난 충격과 확신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필자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치유를 받은 체험이 있었고 또 오늘날까지 20년간 목회하면서 수차례 치유의 체험을 통하여 더욱 충만한 삶을 사는 힘이 되었다.

사도행전 14:8-10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설교할 때에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눈길을 끌었는데 그에게 치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앉은뱅이는 뛰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무리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으로 변신한 신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쓰스(제우스)와 허메(헤르메스)라고 불렀다. 그 두 사람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먹었다(행 14:8-12).145) 사도행전 14:19-20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 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니라." 사도행전 16:16-18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들은 귀신이 들린 한 하인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는 점을 침으로써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다. 그 소녀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면서 바울을 성가시게 하였으며 소리쳤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결국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고 그 소녀는 온전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0:7-12에 보면, 유두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3층 창문에 앉아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졸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뛰어 내려가서 그를 들어올렸을 때, 그는 죽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감싸안고 말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 무리들은 그 다음으로 함께 먹고 아침까지 이야기하였으며, 살아 있으며 건강한 유두고를 데리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사도행전 28:3-6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서 바울이 나무로 불을 떼다가 독사에 물렸으나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토인들은 바울을 신이라 생각하였다. 사도행전 28:8-10에 보면, 멜리데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인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

144). 김세윤, 예수와 바울 (수정증보판;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305-318.
145). Kelsey, Morton T., 치유와 기독교, 130.

다. 그 외 제자들의 치유의 사례들

사도행전 2:43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치유의 은사가 실제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기사와 표적'이 사도적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음이 거듭 언급된다. 사도들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146)

사도행전 6:8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사도행전 8:5-8에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 할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낫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도행전 14:3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사도행전 19:11-12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같은 초대교회의 치유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147)

(1) 치유는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사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의 치유사역을 이어받은 것이었으며, 그분의 지상명령 -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 - 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권능을 받아 행하였다.

(2) 초대교회는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증언했다. 치유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곤 했다(행 3:6; 19:11-13). 초대교회의 치유사역에는 언제나 성령이 임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 줌은 물론 집단적인 복음전도와 교회성장의 계기가 되곤 했다(행 2:43, 46-47; 3:8; 4:21; 5:14; 8:6-8)

---

146). William Barclay, 예수의 치유이적해석, 김득중, 김영봉 역 (3쇄; 서울: 컨콜디아사, 1991), 241.
147).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48-49.

(3) 초대교회의 치유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극적으로 증거하는 일이기도 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곤 했다. 따라서 그들의 적들조차도 예수를 주님으로 경배하는 새로운 영적인 운동의 거센 물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제 4 절. 네 가지 치유의 방법 - 전인 치유사역의 여러 분야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200만종이 넘는 모든 생명체중에서 가장 특이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다. 영은 하나님과의 접촉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을 갖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게하는 작용을 한다.148) 혼은 자신과의 접촉부분으로서, 자기의식을 갖게 하여 자아와의 관계를 맺게 한다. 육은 세상과의 접촉부분으로서, 물질세계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켜 외부와의 관계를 가지게 한다. 성경은 사람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에서 흙, 생기, 생령이 나온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영은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 생령(생혼:living soul)은 헬라어로 '프쉬케(psyche)'다.

지, 정, 의는 혼에 속한 것이다. '지'는 우리의 생각을 포함한다. '정'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의'는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149) 육(body)은 영과 혼이 물질세계와 접촉하도록 하는 물질적 부분이다. 육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을 느낀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영은 혼을 주관하며, 혼은 육을 지배한다. 인간은 물질적인 세상의 것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늘의 영광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마귀에 유혹에

---

148).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이재범 역 (8판;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122.
149).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144.

빠져 따먹음으로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기능이 파괴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렸다. 이로 인하여 혼은 영의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처리하게 되었고, 몸을 지시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몸의 욕구에 거꾸로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몸은 영과 혼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는데, 반대로 몸의 욕구를 가지고 혼을 충동하는 기관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 혼, 육이 전부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이탈하여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기관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인 인간은 전인격적인 치유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인격적인 치료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150)

1. 죄 사함을 통한 영적 치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더욱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영의 치유는 여러 가지 치유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일은 다른 모든 치유들에 대하여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151)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치유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유형은 죄의 용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만일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가장 깊은 단계의 구원과 치유를 맛보게 된다.152) 영적 치유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새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구원받을 때 인간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소생하게 된다. 그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153)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원천은 창세기 3:1-24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 유혹당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닥쳐왔다. 죄는 그들의 마음에 수치심을 일깨워 놓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수치심을 가리려 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였다. 그

---

150). Francis S. Macnutt, 치유, 변진석 변창욱 역 (4쇄; 서울: 도서출판 무실, 1996), 201-208.
151).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122.
152). Francis S. Macnutt, 치유, 209.
153).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144.

들의 관계가 사랑에서 소외의 관계로 변질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낌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나 숨으려 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감정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죄로 인한 영적인 파멸, 즉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이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있었으나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변질되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기대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자유롭게 알 수도 없게 되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육체적인 노동에 고통과 좌절감이 뒤따르게 되었다.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타락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 사회적, 심리적, 생태적, 영적인 영역들 – 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154)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은 모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그래왔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로부터 파생한 것이다.155) 인류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영적인 병은 사람들의 삶에 다른 영역들 즉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영역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영적인 질병과 다른 문제들과의 상호관련성을 말해주는 예들이 있다. 마가복음 2:1-12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예가 그것이다. 네 사람에게 들려 예수님 앞으로 인도 되어온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 사함의 말씀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풍병의 뿌리가 죄임을 분별하셨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한 질병인 경우에는 무엇보다 죄의 회개와 용서가 우선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또 하나의 예가 요한복음 5:1-15에 기록되어 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다. 이 병자는 비참하고 고독했으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인생자체와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너무 오랫동안 질병으로 시달려 온 사람들은 치유에 대한 불신감이 가득 차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 물으셨다. 즉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됨은 물론이려니와 분노와 불신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다. 이 병자는 자기의 믿음 없

---

154).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123-125.
155). Ibid., 125.

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려 했다. "주여, 물이 동할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7절)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치유를 받을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늘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가 믿음 없는 가운데 자기연민에 가득한 탄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를 치유해 주심으로 응답해 주셨다.156) 그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다. 그의 질병의 원인이 죄였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죄 사함과 죄로 말미암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다.

죄가 사람의 몸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예가 시편 32:3-4이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늘날에 사용하는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그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 몸무게도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의욕상실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쇠퇴하고, 정서적으로도 고갈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신경쇠약 상태가 된 것이다. 이 사람의 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죄가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로움과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죄는 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죄의 이름을 적개심, 분노, 복수심, 시기심, 증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 치유의 필수적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 죄로 인한 질병에서 해방되고 이에 따른 다른 질병으로부터 놓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육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육이란 우리 내부에서 활동하는 '죄의 법'으로서,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서의 신원을 위협받게 된다. 그러한 '죄의 법'은 끊임없는 싸움을 통하여 점차로 극복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56). Ibid., 127.

가. 존 윔버(John Wimber)는 죄로 인한 영적인 병에서 놓임 받는 믿음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157)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우리들은 대체로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옳고 자기는 그릇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다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그분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는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하며,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때로는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들이라. 사람들 가운데는 이상과 같은 행위를 모두 하고 나서도,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겸손한 마음과 오직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 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치유가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의 병이 깊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직접적인 해악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나. 프란시스 맥너트(Francis S. Macnutt)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죄 용서에 능력이 있음을 직접 깨달은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58)

> 먼저 육체적인 질병 중에는 구속적인 고난이나 축복으로 주어진 병도 가끔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육체적 질병은 흔히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고, 영적인 차원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육체적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 이전에 먼저 죄의 용서나 내적 치유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가 흔히 있다.
>
>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 회개시켜야 할 것은 흔히 기독교인들 스스로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원한과 분노의 죄악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이야

---

157). Ibid., 134-136.
158). Francis S. Macnutt, 치유, 220-221.

말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냉담함, 상한 감정 그리고 원한을 허물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다.

2. 내적 치유/깊은 차원의 치유/상한 감정의 치유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상처의 크기가 다르고 상처의 종류는 다를지언정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러 종류의 질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서적, 심리적인 상처들은 쓰라린 기억(과거의 아픈 체험에 대한 생각)의 형태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인격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처들은 심지어 여러 가지 형태의 악한 행동, 정서적인 장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쓰라린 기억을 포함한 정서적 심리적인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악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면 속 사람 -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볼 수 없는 - 이 회복된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육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치유, 즉 외적인 치유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내적 치유(inner healing)'라고 불리고 있다.[159] 존 윔버의 내적 치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적 치유란 손상된 감정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죄의 용서와 정서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으로서, 곤경에 빠져있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영역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160]

아그네스 샌포드는 이를 '기억의 치유(the healing of memories)'라고 부른다. 이것의 기본적인 생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손상된 감정까지 고치신다는 것이다.[161] 찰스 크래프트는 내적 치유를 이와 같이 정의하였다.[162]

"내적 치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명칭인 깊은 차원의 치유(deep-level healing)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성령의 능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중 대다수가 상한 감정이나 영적인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이런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내적 치유는

---

159).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145.
160). Ibid., 146.
161).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149.
162). Charles H. Kraft,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윤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188.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도움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기억들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기억 치유'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우리가 자주 대면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문제들은 용서 못함, 분노, 원한, 거부, 낮은 자존감, 공포, 걱정, 그리고 성적인 것들이다"

깊은 차원의 치유는 전인적이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는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둘째는 깊은 차원의 치유를 이루려 할 때는 한 사람의 전체적인 면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이다.163)

깊은 차원의 치유와 다른 형태의 치유와의 관계에 대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주에는 단 한 분의 치유자가 존재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치유는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은 치유에 있어서도 사람을 사용하신다. 깊은 차원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함께 역사하시는 치유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네 가지의 다른 방법이 있다.164)

가장 분명한 치유 방법 중의 하나는 의학이다. 하나님은 치유를 위해 심리 치료사, 정신과 의사, 상담자들을 사용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목회 상담을 자주 사용하신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형태의 치유사역은 '축사'라고 불리는 것이다.

나. 깊은 차원의 치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65)

깊은 차원의 치유는 기도 사역이다. 또한 깊은 차원의 치유는 전체론 적이며 깊은 차원의 치유는 능력을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깊은 차원의 치유는 정당한 자료에서 얻은 모든 종류의 통찰을 사용한다.

다. 존 윔버는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쓰라리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험들을 대체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166)

---

163). Charles H. Kraft,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윤호 감수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46.
164). Ibid., 50-53.
165). Ibid., 54-56.
166).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145-146.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입게 되는 상처들이다. 여기에 세 가지 예를 든다면, 유전적인 질병, 사고, 가난의 경우가 그것이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입게 되는 상처들을 들 수 있다. 부모나 가족들, 또는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면, 알코올중독에 걸린 부모들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나, 부모들로부터 심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들, 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성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우리 자신이 범한 개인적인 죄악의 결과로 오는 마음의 상처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간통이나 동성연애 등이 있다. 탐욕, 경쟁심, 질투심 등 그릇된 마음가짐 역시 정서적, 심리적인 상처의 원인이 되기 쉽다. 그 외 올바른 선택이나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감정적인 상처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심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167)

어떠한 형태로든 과거의 상처들에 의하여 삶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심지어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적 치유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내적 치유에 있어 대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자기혐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자기중심적인 성향, 위선적인 태도, 우울증,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결함으로 인한 열등의식, 고독감, 거부감, 가학적인 성향, 이혼, 가장된 죄의식, 각종 성적인 문제 등이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일으켰던 체험, 임신과 출산의 공포 또는 기억 같은 것들 역시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168)

내적 치유의 목적과 의도는 과거의 쓰라린 체험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인 속박

---

167). Ibid., 149.
168). Ibid., 151.

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169)

그들의 정서적인 정신반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서적인 정신반응은 거의 본능적으로 올바르게 작용한다. 또한 그들의 정서적인 정신반응은 올바른 행동반응을 위한 것이다.

찰스 크래프트는 "삶의 감정적인 문제와 영적인 부분들은 매우 가깝게 얽혀 있어서, 그중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주로 감정적 증상들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표면상의 증상만을 보고 그것이 영적인 병인지 감정적인 병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 영적인 근원과 감정적 근원을 구분해 볼 수는 있다. 우리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적어도 일곱 가지 영적인 근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일곱 가지 근원 하나 하나가 영적인 병을 발생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70)

영적 질병의 주요 원인은 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영적 질병의 근본 원인이다. 각 사람이 내면에 있는 쓰레기를 통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외에도 귀신 들림, 즉 개인의 내면에 사는 악령이 사는 현상도 있다. 이런 것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령이나 저주이다. 이상과 같이 깊은 차원의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질병인 것이다.

마. 여기에 두 가지 감정적 질병의 근원이 있다.171)

사람마다 독특한 삶의 경험이 있다. 삶의 경험, 특히 부정적인 경험은 개인의 육체적, 감정적, 영적 건강을 해친다. 그것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삶의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치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건강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따라 반응한다.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해왔고 계속해서 행하는 것들 -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고 행하는 것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

---

169). Ibid., 152-154.
170). Charles H. Kraft,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74-78.
171). Ibid., 79-81.

기에게 대하여 긍정적이고 좋은 면보다는 비판이나 상처를 입히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감정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교정하려면 깊은 차원의 치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귀신들은 우리의 대인관계를 망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들은 험담, 비평, 경쟁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참 모습을 알까 두려워하는 마음 등을 충동질한다.

바.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172)

먼저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병들어 있다. 심한 경쟁의식과 상호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병들어 있다. 다음에 결혼이나 가정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파괴될 때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반응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통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부끄럽게 여기는 자신의 배경이나 죄가 들어 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성격적으로는 지배하려는 성향, 문제가 있을 때에 남을 탓하는 것, 건방짐, 우월감이나 열등감, 지나친 수줍음, 지나친 의존, 결단력 결핍 등이다. 이 모든 것이 대인관계에서 질병을 초래한다.

사. 치유사역에 임할 때 꼭 기억해야할 일반적 지침들이 있다.173)

전인을 다루어야 한다. 사람들은 복합적인 존재이므로, 단순히 육체나 감정 또는 영으로가 아니라 전인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에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주장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치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잠정적으로 말해 주고, 크게 소리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팀을 이루어 치유사역을 하는 것이 좋다. 치유사역에서 누가 어떤 일에 책임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상처 난 감정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부분과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

172). Ibid., 83-84.
173). Ibid., 122-124.

아. 여기에 제시하는 이 원리들은 손상된 감정을 치료받기 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할 원리들이다.174)

먼저 문제를 직시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억하기조차 싫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대면하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 자신이 먼저 그것을 시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깊이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깊은 마음의 치료를 경험하지 못한다.

다음에 어떤 문제이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이나 실수 때문에 나에게 많은 악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모든 책임은 내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손상된 감정을 절대로 치료받지 못한다.

그리고 고침을 받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 보라.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는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는 사람이 많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또한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거의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기 전에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에만 내적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님께 구하라.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내적 치유의 해답은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에 있다.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회개와 용서다.175) 회개는 단순히 자책감을 느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것이다

사단의 병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일부는 심리적인 무기이다. 두려움이 그 중에 하나이고 의심도 이에 속한다. 분노, 악심, 걱정 그리고 죄책감도 물론 여

---

174). David A Seamands, 상한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50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30-33.
175).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160.

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무기는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이다. 사단의 가장 무서운 심리적 무기는 열등감과 부족하게 느끼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들이다. 놀라운 영적 경험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열등감에 묶여져 있고 깊은 무가치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 사단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으로 모든 정서적, 심리적인 무기 중 가장 치명적인 이 무기를 사용한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패배와 실패로 이끌어 간다.176)

먼저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열등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무시무시한 영향력들 즉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비극적인 손실과 물이 밑바닥으로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삶, 못 쓰게 되어 낭비된 은사들, 진정한 금광과 같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새어나가게 한다. 이것은 우울증의 주원인이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스스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의해 마비되고 말았다. 그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의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림으로서 안전하게 지내려고 했다. 주인으로부터의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투자를 하는 다른 두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정되어 버렸다.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향해 소원하는 일이다. 사단은 당신을 그러한 감정으로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고정시키고 마비시켜서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도록 만든다.

다음에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꿈(이상)들을 파괴시킨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한 꿈들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특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상을 보게 하신다. "묵시(꿈 혹은 이상)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 29:18). 그렇다. 당신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상과 자신을 스스로 열등하고, 무엇이든지 잘 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때 당신은 진정 자멸하고 만다. 당신의 이상은 파괴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

176).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65-73.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대인관계를 해친다. 사단은 당신이 계속 열등감을 갖고, 부족하게 느끼도록 하며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 윤리와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질 때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자신을 위축시킬 때는 자신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남지 않게 된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당신은 필경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슈퍼스타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점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점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놀라운 기회가 당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유실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지도 않고 자신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잘못이다. 낮은 자존감은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두려움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할 것이다.177)

3. 귀신들린 사람의 치유/귀신축출

인간의 원수가 세 가지 있다. 그것은 죄의 삼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단(악의 배후에서 역사 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 세상(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불신의 영역), 육신(인간의 죄된 본성)이다. 인간은 이 세 가지와 영적인 싸움을 벌리고 있다. 사단은 처음에는 하늘 나라에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으나,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범죄하여 사단이 되었고(사 14:12-20; 겔 28:12-19), 그와 함께 하늘 천사 삼분의 일이 함께 타락하여 하늘나라에서 쫓겨남으로 악령 또는 귀신이 되었다(계 12:9). 인간의 죄와 질병과 귀신들림의 근

---

177). Ibid., 74.

원적인 원인이 바로 이러한 악의 세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미치는 사단(마귀라고도 함)의 세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양극단을 피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양극단이란 한쪽은 귀신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요, 또 한쪽은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에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모든 불행과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178)

오늘날 서구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많은 지식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대체로 믿지 못하는 경향이 농후하다.179)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귀신의 존재나 그들이 하는 일등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결국 우리는 사단과 귀신들의 존재에 관한 문제에 있어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미 제 3장 3절 질병에 대한 이해에서 질병의 기원, 마귀의 근원, 사탄의 이름들, 마귀의 하는 일, 질병의 근원은 마귀임을 논증한바 있다. 여기서는 신약성경에서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한다.

신약은 사단과 귀신들의 존재에 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눅 10:17, 20; 계 12:7-12).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귀신들과의 끊임없는 대결로 특징 지워지고 있으며(눅 4:31-37, 41; 6:18; 7:21; 8:2, 26-39; 9:37-43; 11:14-26),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눅 9:1, 49-50; 10:17-20; 막 16:17).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세에 관한 초대교회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으며(고전 10:20-21; 엡 6:10-18; 골 1:13-16), 축사가 행하여지는 사례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행 5:16; 8:6-8; 16:16-18; 19:11-12).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귀신들의 존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귀신이 존재하며,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믿고 있었다.180)

치유사역을 행하려면 치유의 네 가지 기본적인 유형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귀신들린 사람의 치유/귀신축출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들을 자연적인 것과 마귀 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병든 자가 '귀신 들렸다'고 묘사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단지 '병들었다'고만 묘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의 원인이 귀신에 의한 것일 때에

---

178). Tom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141.
179). Charles H. Kraft, 능력 그리스도교, 52-54.
180).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178.

는 그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81)

그러나 우리는 귀신들린 사람의 치유에 있어서 먼저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프란시스 맥너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82)

> "문제는 '귀신에 사로잡힌다'라는 용어에 관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인격이 외부의 악한 세력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사로잡힌 경우는 분명히 거의 없다고 믿는다. 신약성경(영어번역본)에서 흔히 '사로잡힌(possessed)'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본문의 원 뜻은 '귀신들리다(demonized)' 혹은 훨씬 광범위한 용어로서 '귀신들린(to have a demon)'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귀신들리고 귀신의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거나 억눌리는 경우는 흔하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영들에 의해 억눌려 있다면, 이 경우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없는 귀신축출 사역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 찰스 크래프트도 이런 용어의 정의에 동의하고 있다. '귀신에 사로잡힌'이라는 용어보다는 좀더 중성적인 의미를 주는 '귀신들린'이라는 표현이 훨씬 낫다고183)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귀신들림에 대하여 갖고 있는 12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184)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귀신 들릴 수 없다거나, 사람들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든지 또는 축사 사역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든지, 귀신들림은 단순히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감정적 문제는 모두 귀신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귀신들림이거나 감정적인 것 둘 중 하나다. 미국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흔치 않다. 귀신 들리는 이유는 죄와 불순종 때문이다. 은사 있는 사람만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다.

내적 음성을 듣거나 인격이 바뀌는 것은 분명 귀신 들린 것이다. 축사 사역은 항상 소란함을 수반한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오류다.

필자는 우리 성지교회에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면서 위에 지적한 것이 너무도 사실임을 경험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또 귀신들림과 귀신을 쫓아냄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귀신이란 말 자체를 너무도 싫어한다. 귀신들림이라든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성경에서나 나오고 또는 극소수의 기도원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

181). Francis S. Macnutt, 치유, 274.
182). Ibid., 285.
183). Charles H. Kraft,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50.
184). Ibid., 47-78.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너무도 결여되어 있다.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너무도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인 병이건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병이건 사람들은 병이 들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실정이다. 교회에서 귀신에 대하여 올바른 영적, 성경적 교육이 너무도 필요하다. 귀신의 정체와 귀신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손실은 막대하다. 귀신들림에 의한 질병과 정신병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귀신들림에 의한 질병은 병원에서 결코 치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지 못하고 병원으로만 가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다.

가. 찰스 크래프트는 교회가 축사사역을 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185)

>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다음에 축사사역은 귀신에 들린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에서 시작한다. 끝으로 축사사역은 예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

필자는 성지교회에서 축사사역을 함으로써 성경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귀신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심한 고통에 빠져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치유됨에 놀랐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었다. 그 동안 성경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미비하던 점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 성지교회에서는 축사를 비롯한 치유목회사역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아니면 결코 없는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실제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이론만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신이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귀신들림의 체험이나 또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음을 시인한다.186)

메릴 엉거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성경적인 귀신론」(Biblical Demonology)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만 귀신 들린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사람들의 반대 의견과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성경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

---

185). Ibid., 33-38.
186). Ibid., 81-82.

었고, 중생한 사람 속에는 귀신이 거할 수 없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옛 주장을 번복하게 되었다. 딕 케이슨이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하는 질문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187)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한번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은 영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 마음, 감정, 몸, 의지 등에 거할 수 있다. 축사 사역이란 그리스도인들의 부분중 이와 같은 것들에 거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188)

나.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가?189)

먼저 귀신들은 사람의 초청을 받아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의 초청에 의해 귀신 들릴 수 있다. 또한 조상으로 인해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저주를 통해 들어간다.

다. 귀신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치유사역 원리190)

먼저 우리의 관심은 귀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바로 사람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영, 혼, 육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절대 어떤 문제를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다, 감정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혹은 귀신에 의한 것이다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 귀신들은 사람의 내부에 있는 어떤 문제에 기생한다. 귀신들은 '먹이'가 없으면 사람 안에서는 살수가 없다.

귀신들의 전략은 무엇인가?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야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힘을 다해 사람 밖에서 공격을 시도한다.

라. 귀신들의 전략을 소개한다.191)

모든 문제의 배후에 귀신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혹의

---

187). Ibid., 85.
188). Ibid., 88.
189). Ibid., 90-100.
190). Ibid., 101-103.
191). Ibid., 137-149.

첫째 원인은 귀신이다. 귀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 모르게 하려고 한다.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탄의 활동에서 거짓이 주된 무기이다. 그리고 귀신들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 선한 것을 방해한다. 귀신들은 사탄과 마찬가지로 정죄하는 자들이다. 귀신들은 사람들이 충동적이 되도록 부추긴다. 귀신들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러한 적군의 전략과 활동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어야 한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영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며, 이런 치유사역에 종사하며,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축출 사역에 힘을 다해 힘써야 한다.

필자는 귀신이 왜 그리스도인에게도 들어가는가를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 찰스 크래프트와 거의 같은 내용인데, 파리가 모이는 곳은 더러운 음식이나 쓰레기가 있는 곳이다. 아무리 파리를 쫓아보아야 그런 더러운 냄새나는 음식을 치우고 깨끗하게 소독을 하지 않는 한 파리는 계속 꼬이게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사람의 죄악이나 특히 상처 입은 감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귀신들은 감정적, 영적 쓰레기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간다.[192] 보통 귀신들은 감정에 붙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과 관련된 이름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대체로 기능적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귀신들은 혼자 행동하는 경우보다는 단체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우두머리가 한 명씩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귀신들의 정체를 감안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개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귀신축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회개와 용서다. 다음에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귀신이 더 이상 있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쫓겨나가는 것이다.

마. 기능에 따라 붙여지는 귀신들의 이름.[193]

죽음의 영, 파괴의 영, 어둠의 영, 격노의 영, 용서 못함의 영, 반역의 영, 거부의 영, 두려움의 영, 자기 거부의 영, 죄의식의 영, 근심의 영, 기만의 영, 혼동의 영, 비판

---

192). Ibid., 161.
193). Ibid., 165-167.

의 영, 간통의 영, 강간의 영, 우울의 영, 신경질의 영, 신경과민의 영, 의심의 영, 자만의 영, 완전의 영, 경쟁의 영, 허약의 영, 모독의 영.

감정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귀신들에 덧붙여서, 강압적으로 충동질하거나 중독이 되게 하는 영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강박 충동의 영, 통제의 영, 성취의 영, 지성주의의 영, 광신의 영, 음욕의 영, 포르노의 영, 동성연애의 영, 자위 행위의 영, 알코올 중독의 영, 마약 중독의 영, 담배중독의 영, 식욕과다의 영, 식욕감퇴의 영, 게걸병의 영, 카페인 중독의 영이 있고, 사교에 속한 영들로는 프리메이슨리의 영,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영, 사이언톨로지의 영, 여호와의 증인의 영, 뉴에이지의 영, 연금 마법술의 영, 일체파의 영, 몰몬의 영, 부적판의 영, 점성술의 영, 마법사의 영, 행운점의 영, 손금술의 영, 물마녀의 영, 불교의 영, 이슬람교의 영, 힌두교의 영, 신도의 영이 있다.

귀신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바. 귀신들의 힘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정해진다.194)

귀신들의 힘은 서로 다르고, 귀신의 먹이인 쓰레기 분량에 따라 힘이 좌우된다. 귀신들의 집단은 계급제도이기 때문에 상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교의 영이 아닐지라도 어떤 특정한 귀신들은 다른 귀신들을 통솔한다. 사람 속에 있는 영들은 사람 밖에 있는 높은 계급의 귀신에게 복종한다. 귀신들린 사람의 행동이 귀신의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필자는 귀신의 세계도 사람들의 세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온갖 좋은 것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대신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불신자들은 마귀를 닮아 가는 것 같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영이라면, 악령은 인간을 타락시켜 악한 귀신과 같이 변질시키는 영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귀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귀신과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치유목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축사사역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일곱 귀신 들린 시대와 같다.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사. 축사사역에는 먼저 필요한 준비 사항이 있다.195)

---

194). Ibid., 168-171.
195). Ibid., 246-247

먼저 축사 사역은 반드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좋다.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하는 장소와 시간,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위에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귀신의 정체를 노출시키는 믿음과 은사와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귀신을 직접 다루기 전에 귀신들린 사람의 내력을 참고하여 먼저 조상으로부터 오는 귀신들이나 저주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어 해방시키는 단계는 어떠한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의 묶임이 깨뜨려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것은 하나님나라의 임재의 표시이며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 되심의 증거이다.

아. 귀신을 쫓아내는 성경적인 몇 가지 단계를 소개한다.196)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야 한다(마 16:19). 이것은 귀신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것조차 금하는 예도 있다. 이 일에 앞서 귀신들린 사람의 내력을 잘 알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귀신의 침투통로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별하고 먼저 내적 치유를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선행하는 것이 좋다. 영적 쓰레기나 상처 입은 감정의 쓰레기를 처리한 후에 하는 것이 귀신을 제어하기가 좋다.

다음에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해야 한다.(눅 4:35).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공간적으로 한 곳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아낼 필요가 있다. 한편 쫓아낸 자리는 영적 진공 상태가 되므로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눅 11:24-26). 귀신에게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해야 한다(막 9:25). 주님의 모든 주권에 맡겨야 한다.

때때로 귀신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귀신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단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해 강하게 선포해야 한다. 해방되는 일에 흔히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경련, 괴성, 기절, 기침을 심하게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막 7:30). 이런 일에는 악령의 존재를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케 되었는지 확인하

---

196). Tom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154-156.

기 위해 영들 분별의 은사가 중요하다(고전 12:10).

해방된 후에 치유가 뒤따라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생긴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이상이 해방과 더불어 급속히 사라진다. 축사 사역을 끝낸 후에는 치유를 받은 사람과 상담을 통한 양육이 꼭 필요하다. 귀신으로부터 자유 함을 받은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상담해 주어야 하고, 계속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축사 사역은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사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4. 육체적 질병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의 대부분은 육체의 질병이었다. 소경, 문둥병, 중풍병, 간질, 열병, 고창 병, 혈루병, 손이 마르는 병,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병, 귀머거리, 벙어리, 저는 자 기타 각색병, 38년 된 병자, 백부장의 하인, 왕의 신하, 귀신들린 자, 귀신들려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 귀신들려 벙어리 되고 귀먹은 자, 간질하는 자 등이다. 대부분이 육체적인 병들이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치유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그 원인을 따져 올라가면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육체적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에 알맞은 치유의 방법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질병의 경우 이에 따라서 질병의 원인을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병의 성격이 육체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병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197) 육체적인 질병에는 두 가지 종류 – 신체 기관상의 이상과 신체 기능상의 이상 – 가 있다. 신체 기능상의 이상이란 신체 기관(또는 구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마음의 자세 또는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 신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사들은 육체적인 질병의 80% 가량이 이러한 신체 기능상의 이상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한편, 신체 기관(또는 구조)상의 이상이란 신체 기관의 일부가 잘못된 상태를 말한다.

만약 어떤 육체적 질병의 형태가 신체 기능상의 이상이라고 판명되었을 경우, 원

---

197).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101-102.

인과 증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치유사역을 행하여야 한다.

그 원인과 증세가 모두 신체 기능상의 이상에 속한 병은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기능상의 이상을 유발하는 죄책감,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두려움, 염려, 울분, 원한, 증오 등 파괴적인 감정들은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 올려져 고백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감정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오직 정상적인 인격의 기능에 역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그 원인은 신체 기능상의 이상에 속한 것이면서 그 증세가 분명히 신체 기관상의 이상에 속한 병의 경우에는, 우선 신체기관의 이상을 치유하기 위한 물리적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러한 정신-신체연관 질병의 증세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심리적. 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준거의 틀 안에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정신병리학자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원인과 증세가 모두 신체 기관상의 이상에 속한 병일 경우에는, 합리적이고도 정상적인 물리적 치유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유능한 의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조언을 구하여야 함은 물론, 공인받은 의술과 치료기법들을 사용하여 치유에 전념하여야 한다.

필자가 깨달은 영적 치유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도, 만드시고 영적 법칙도 만드시고, 건강의 법칙, 치유의 법칙도 만드셨다. 모든 법칙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건강이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것이고 질병이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호흡의 법칙은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과 내쉬는 탄산가스의 양이 균형이 잡혀야 한다. 호흡을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다.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면 건강하다. 몸의 모든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되면 건강하다. 우리 몸에 먹은 것만큼 소화가 잘되어 그것이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 남김없이 잘 배설되어야 한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만큼 온몸을 위하여 잘 사용되고 나머지는 몸에 쌓이지 않고 모두 다 배설이 잘 되어야 한다. 서로의 사랑과 뜻과 마음을 주고받아야 한다. 듣기도 잘하고 말하기도 잘해야 한다. 대화가 잘되는 사람이 건강하다.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넘치게 받고 하나님께 넘치게 받칠 줄 알아야 한다. 쌓아놓으면 병이 된다.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도 알고 또 아뢸 줄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일차적인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주고 쓸 줄 아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이런 사람만이 건강하다. 쓸 줄 모르고 쌓아놓기만 하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사람이 많다.

사랑도 주고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강권하시는 사랑을 마음껏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믿고, 서로 도와야 한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며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와 연합하여 서로 주고받아야 건강하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 교회는 먼저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고 다음에 흩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은 전해야 한다. 이런 교회가 건강하다. 고인 물이 썩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쓰지 않으면 병이 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심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정확히 회복해야 건강하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다. 굳어지거나, 뭉치거나, 막히면 병이 된다. 이런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 게을러지는 것,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 게을러지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꼭 그대로 사용되어질 때 전인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것이 좋다.

> 나는 무슨 특별한 죄를 하나님께 지은 것이 없는가? 나는 과로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운동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나는 과식하거나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은 아닌가? 나는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사단의 시험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적당한 휴식을 잘 취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질병이란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이다. 우리 자신이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쉽게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질병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와 같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그것이 밝혀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특히 우리들을 전인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질병에 걸린 자신은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이나 영적 치유 또는 내적 치유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육체의 질병의 치유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못 믿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성경적인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불치병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질병이라 하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가정 식구들도 함께 기도하고, 구역 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전 교회가 치유를 위하여 합심하여 중보기도 해야 한다.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다.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를 끊질 기게 계속해야 한다.

제 5 절 치유의 장애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특히 많은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다. 사복음서는 이 사실의 일부를 선별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 21:25)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여 주셨다. 그러나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막 6:5-6).

대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시는데 방해를 받으셨음에 틀림없다. 교회는 치유공동체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치유사역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에 치유의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치유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그것들을 잘 처리할 때 더 많은 치유의 역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병든 자가 교회의 치유사역을 통하여 다 치유 받는 것은 아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또 어떤 사람은 즉각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치유되는 사람도 있다. 치유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전혀 그 원인을 모르는 것들도 있다.

1. 콜린 우르크하르트(Colin Urguhart)의 치유의 장애물,198)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에 대한 가르침과 태도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많은 실패의 원인은 불신앙이다. 주님께서도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막 6:5-6). 현재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불신앙을 경계하라.

치유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에 대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도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치유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무지와 치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치유의 역사를 막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는 사도들의 시대에나 일어났던 일이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못 가르친다. 즉, 기적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고들 주장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예수께서 인간의 신체적 질병을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아픈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며, 질병을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즉시 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즉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다. 치유도 마찬가지다.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질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견해며 오해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 받고자 자기에게로 나아온 자들을 냉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질병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그들이 아픈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며, 질병을 통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

---

198). Colin Urguhart, 치유함을 받으라, 251-283.

을 훈련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그냥 되돌려 보내신 적이 없다. 그는 다만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나를 훈계하신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어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계하실 수는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할 때 훈계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야만 한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고통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도록 부름을 받긴 했어도, 질병 중에 고통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는 않았다. 고난 당하는 것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주를 위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과 질병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질병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가 질병을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고 지고 가려 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질병을 십자가에 대신지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이 다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기도로 치유를 다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질병을 주셨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물론 소수의 질병이 사람의 죄와 불순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은 큰 오해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질병으로 인해 아플 때, 일단은 치유를 받기 위해 즉시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할 뿐 아니라, 치유가 즉시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질병과 맞서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

지 결코 질병 때문에 패배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지는 않았다.

2.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장애물.[199]

고백하지 않는 죄(약 5:16), 귀신의 속박 또는 누름(눅 13:11-13), 두려움 또는 날카로운 근심(잠 3:5-8; 빌 4:6-7), 현재 믿음을 저하시키는 과거의 좌절감, 사람들(막 10:48), 비성경적인 가르침(막 3:1-5; 7:13), 불신(막 6:3-6; 9:19, 23-24), 육적인 행동(고전 11:29-30) 등이 있다.

3. 몰튼 켈시의 치유의 장애물

몰튼 켈시는 그이 저서 「치유와 기독교」에서 '기독교 치유에 반대하는 견해들'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다.[200] 대부분의 현대의 기독교 교회들은 그들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 상관할 바가 없다고 믿고 있다. 교회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갖고 있다고 그들은 느끼지 않는다. 사실상, 기독교의 의식과 정신 및 신체의 건강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어져 오게 된 것이다. 현대 프로테스탄트교회 내의 치유에 관한 네 가지 견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주의 견해가 있다.[201] 그것은 사람의 신체는 의료 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으며, 종교적인 도움은 피상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학의 과제는 신체를 치유하는 것뿐이다. 환자는 본질적으로 신체기관들과 생리적 과정들의 집합체이며, 이것들은 물질적 수단, 예를 들면 수술, 약품, 호르몬, 휴식, 식이요법 등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신체만이 실재하며 중요하다. 성직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의학적 치유의 견해를 받아들여 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영혼만 다루면 되고 물질에 속한 육체의 질병에 대한 것은 의학에게 넘겨준 것이다. 치유가 단일 주제로서는 신약의 본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대의 매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치유와는 상관없는 영혼의 구원에만 매달리게 되고 윤리와 도덕만을 강조하는 종교집단이 된 것이다. 치유

---

199).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175.
200).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19-42.
201). Ibid., 20-26.

의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는 2000년을 내려오면서 완전히 변질된 교회가 된 것이다.

다음에 성공회와 병자심방 규범서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질병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훈계적인 선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202) 질병을 환난이나 핍박 또는 고난 같은 류로 보는 견해며, 질병은 인격을 재정비하고 양심과 신앙을 올바로 정리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치유보다는 질병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질병이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의 견해는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징계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로서 질병이란 징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을 여신다는 것이다.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하나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죄 지었음을 보여 주실 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 또 하나는 그것은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다.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목사의 임무는 그의 영적인 건강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목사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질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고 더욱 장성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십자가라고 간주함으로써, 교회는 질병을 치유할 책임을 배제한다.

또한 경륜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견해가 있다.203)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치유와 같은 사역들을 잠시 동안만 행하신다고 하는 견해이다. 종교개혁자 루터(Luther)는 기적의 시대는 과거에 지나갔다고 결론 내렸다. 성령의 진정한 선물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의 특별한 계시나 기적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종교개혁자 칼빈(Calvin)도 같은 의견이다. 치유의 은사는 다른 기적의 능력들과 함께 사라졌다. 그 능력들은 주님께서 복음의 새로운 선포를 가능케 하기 위해 잠시 동안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함께 치유는 이전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판례를 남겼다. 신학자 칼 바르트(K.Barth)에게 치유는 부인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되었고, 개신교회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된 것이다. 즉 치유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이 한 때 일어났었으나, 그 이후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겼다.

마지막으로 불트만(R. Bultmann)의 신학을 들 수 있다.204) 그것은 자연법을 깨뜨

---

202). Ibid., 26-32.
203). Ibid., 33-37.
204). Ibid., 38-40.

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해이다. 그는 치유에 관한 복음의 서술을 신화라고 본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그는 주장한다. 심지어 부활의 경험도 사실이 아니라 신앙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천사들과 악마들, 초감각적인 모든 지식, 예언과 방언의 체험, 꿈과 환상들의 가치,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치유에 관한 모든 기록들은 단순히 배제되어야 한다. 불트만을 비롯하여 그와 견해를 같이 하는 신학자들이 오늘날 신학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에 반대하는 매우 강한 경향이 더욱 심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확실히 구교든 신교든 기독교인들의 생각에서 신앙적 치유라는 관념은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필자도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믿는 것 같이, 치유를 위하여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현대 의학이나 병원 또는 약국의 약을 더 의지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었다. 병만 걸리면 먼저 병원으로 뛰어가는 것이다. 병의 치유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말로는 믿는다고도 하고 기도한다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적인 치유를 불신하는 것이다.

4. 찰스 크래프트의 치유의 장애물

찰스 크래프트는 그의 역저 「능력 그리스도교」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이 치유를 믿지 않는 전통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치유 사역자가 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다.205)

그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풀러 신학교의 교수로 부임하기 전,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악한 영들에 의해 당하는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가 풀러 신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후 존 윔버의 '표적, 기사와 교회성장' 과목을 통해 능력의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마음 문을 열게 되었고, 피터 와그너와 더불어 '제3의 물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

205). 찰스 크래프트, 능력그리스도교,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2), 15-17.

영적인 능력을 통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마 28:20). 나는 예수께서 '모든 것'이라고 하신 것들을 모두 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의 일부 - 사랑, 용서, 회개, 복음전도. 등 복음주의자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고 여기는 일들 - 에만 힘을 쏟아왔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모든 일'의 다른 측면 - 영적인 능력의 차원 - 을 체험하도록 권고하고 계신다. 나는 우리 모두가 사랑에 가득 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능력에 가득 찬 기독교를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206)

비록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실재'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배움은 물론 거기에 따라 우리 자신의 실재에 대한 인식을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마음 문을 열어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정한 실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추구하여야 하며, 그 새로운 통찰력에 우리 자신의 인식을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관점을 다른 사람들이나 새로운 체험 - 책을 포함하여 - 을 통해 접하게 되는 관점들과 꾸준히 비교해 보아야 한다.207)

가. 그는 '진정한 실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개한다.208)

세계관, 체험의 한계, 성격, 또는 기질, 의, 죄 등이 있다. 그는 서양적인 세계관에 미친 '계몽주의'의 영향에 대하여 말한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경직적인 종교적 태도에 대한 반발로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념들은 모두 버리거나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태도가 서양인들의 일부가 되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209)

나. 서양적인 세계관의 특징들210)

서양적인 세계관은 자연주의적이다. 세계의 다른 대부분의 민족들과는 달리, 서

---

206). Ibid., 31.
207). Ibid., 39.
208). Ibid., 45-49.
209). Ibid., 54.
210). Ibid., 55-66.

양인들은 세계를 '자연적'인 영역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나서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은 대체로 무시해 버리고 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온통 자연적인 세계에 대하여만 관심을 쏟고 있다.

서양 사회는 물질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서양 사회에서는 물질을 많이 모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승리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문명권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지도 모르나, 서양인들은 우선 물질적인 대상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그들은 부와 빈곤을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정의 내리고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서양 사회는 인본주의적이다. 서양인들은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순전히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과 그의 능력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곳에서는 과학이 진정한 종교로, 그리고 과학자들이 사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과학이고, 장차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를 약속해 주는 것도 과학이기 때문이다.

서양 사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이성을 통해 '진정한 실재'를 인식한다. 서양인들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물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러한 접근방법을 '합리주의'라고 부른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하여는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양 사회는 개인주의와 독립성을 높게 평가한다. 서양인들에게는 오직 개인만이 실재이고 집단은 그러한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 홀로 포로처럼 갇혀 지내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의 체험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고나 체험에 대하여 거의 무지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만이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과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이 느낀다.

서양인들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인다. 과학적, 기술적인 성취로부터 유익한 삶의 변화를 그토록 많이 체험한 그들로서는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

다. 계몽주의적인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신론적(理神論的) 신앙이다. 이신론은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단순한 제 1원인으로 환원시켜 버린다. 이신론자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시계 제조업자에 비유하여 그분이 태초에 오직 한 번 그 시계에 태엽을 감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개입없이 그 시계(우주)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한다.211)

계몽주의적인 그리스도교의 속성들212)로는 첫째, 합리주의이다. 계몽주의는 우리에게 모든 사물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지성적인 접근방법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그 결과, 우리는 심지어 성서조차도 순전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일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처리하는 태도다.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한다는 말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차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강의/설교 중심의 교회 모임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임이 강의/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상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특히 학교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강의/설교 중심의 교회 모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형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의 감정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한다. 예배가 단순히 또 하나의 지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지식에 비하여 체험을 경시하는 태도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축적일 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체험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조차 이들의 관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성을 통해 그분의 관한 지식을 얻는 데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체험이 지식에 비하여 열등한 것인 양, 경시할 때가 많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기록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듣거나 볼 때마다, 그것을 말이라기보다는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을 때 복음주의자로서 우리들이 느끼는 의구심과 주관성에 대한 염려는,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계몽주의 적인 형태의 그리스도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지 않을까?

---

211). Ibid., 72.
212). Ibid., 75-84.

다섯째, 복음전도와 선교에 대한 지식과 기법 중심의 접근방법이다. 우리는 복음전도와 선교가 마치 지식이나 기법의 문제인 것 같은 인상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깊이 배울 필요가 절실하다.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앞서 약이나 의사를 생각하는 경향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약이나 의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 약이나 의사가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당신께 찾아와 상의하시기를 원하신다.

여섯째, 세속적인 성격을 띤 구제사업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 사업은 영적인 것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하며,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하는 것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길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초대교회에서 변질된 계몽주의적인 현대교회의 모습들이다.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익숙하다. 인간은 길들여지는 존재로서 이런 교회 생활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 있다. 여기에 무슨 돌파구는 없는가? 현대인들은 누구나 영적인 실재에 대해서 까지도 먼저 머리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또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해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단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이성과 사고력을 통해 우리를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213)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대화는 쌍방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일방통행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의 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란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진

---

213). Ibid., 87.

정한 실재'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214)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도록 역사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필자도 이런 체험을 통하여 '관점의 전환' 뿐 아니라 '행동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 현대인들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모든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운동을 반대하는 것이다. 계몽주의 기독교로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미리 규격화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의지적으로 성경의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 그리고 능력과 영적 치유에 대하여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릇된 지식이 얼마나 의지를 약화시키는지 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로막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라.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릇된 지식들이 있다.215)

우리의 의지는 치유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은 기괴한 인생을 풍긴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약해질 때가 많다. 여러 교회, 성경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치유, 방언, 예언 등의 은사들은 오늘날에 해당되지 않는다)으로부터 나온다. 그러한 가르침의 대부분은 소위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가 인성에 대한 강조에 비하여 훨씬 미약하다는 점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점이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자기 자신을 능력 안에서 사역을 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적인 거물'들만을 들어 쓰시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을 갖는 것이다.

두려움(개인적 또는 사회적)이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시작하였음에

---

214). Ibid., 89.
215). Ibid., 120-126.

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믿음은 모험인 것이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에서 과감하게 뛰어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계관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아닌 성경의 말씀으로 살기로 하는 생각의 변화가 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표적과 기사, 성령의 은사,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만 따라 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을 알게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최소한 세 가지 차원(지적인 지식, 관찰에 의한 지식, 체험에 의한 지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체로 이성적인 성향을 띤 그리스도교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교'로 옮겨가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16)

우선, 의지의 문제를 극복하여야 한다. 지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존의 세계관을 새로운 체험에 비추어 반성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복음서를 읽어야 한다. 성경이 어느 구절에도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교 초기 시대 이후로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관한 서적들을 읽고 테이프를 들어야 한다. 성경말씀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교리적인 이해를 기꺼이 재고 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배워 알게된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자신이 영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사역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대하여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비록 당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지나치게 염려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한 사역을 행하는 것에

---

216). Ibid., 160.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분께서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과 행동의 본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217)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세계관을 배워야 한다.

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218)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본성과 활동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분으로 보셨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계시며, 그들에게 순종과 신실함을 요구하시면 서도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시다(눅 15:11-32).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시며, (요 5:17) 압제자들(바리새인들과 같은)을 대항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대하시는 분이시며,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나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인 동기를 보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으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나라 -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 가 존재한다고 믿으셨다(마 12:22-29). 예수님께서는 또한 능력과 능력의 대결을 믿고 계셨던 것 같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성령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눅 3:21-22; 24:29; 행 1:8; 10:38). 예수님께서는 단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그대로 하실 따름이었다(요 5:19).

예수님에게는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었다(눅 8:9-10)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지식이 생긴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요일 1:9).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눅 6:29).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집중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마 6:33).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받은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마

---

217). Ibid., 167.
218). Ibid., 178-188.

18:1-5).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마 20:25-28).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세계관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차원의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배워 온 인간적인 세계관이 '정상적'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할 경우 영적인 능력에 또렷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고 계신 영역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치유, 귀신축출, 천사의 보호,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통한 계시와 인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 '중요한' 사람으로서 '중요치 않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 죄인을 용서하는 일,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거나 세상사를 염려하지 않는 것,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지 않는 것 등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그런 일들은 오직 세상의 관점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으로 보인다.219)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에 예수님의 세계관을 융합시킴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던 대로 '정상적'이라는 말을 정의해야 한다.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분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매일 매일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먼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성지교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꿈인 것이다.

5. 필자의 치유의 장애물

왜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앞에 여러 치유사역자들이 지적한 복합적

---

219). Ibid., 190.

인 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불신이다. 그들이 세계관, 문화, 시대사조, 편중된 신학사조, 무지, 편견, 선입관, 고집, 오해, 합리주의, 인본주의, 잘못된 교육, 과학 만능주의, 관습, 전통, 습관 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불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자기의 조그마한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장님에 불과한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불신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교만이나 고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얼마나 깊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가를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인 것이다. 성경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이런 성령의 치유사역자들을 마귀나 이단으로 매도하는 큰 잘못까지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그의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이나 방법을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막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이는 성령의 사역을 할 때에 그런 일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하심의 다양한 면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론 잘못된 치유사역자들이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 때문에 치유사역자체가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치유의 방법은 아주 다양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는 역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간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필자는 많은 치유집회를 다녀 보면서 성령의 다양한 치유의 역사를 여러 은사자들을 통하여 독특하게 베푸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자기의 조그마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판단하여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억지를 쓴 것이다.

신학이 성경과 성령의 역사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유익을 주어야 하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신학은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병기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배운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성경과 성령에 조명에 비추어 과연 생명과 진리인지를 겸손하게 점검해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떻게 이런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가가 치유사역에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그의 긍휼 하심을 힘입어 마음을 열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므로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체험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런 불신이 제거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사역을 체계적으로 하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셨던 것보다도 더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며 교회가 이런 삶들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치유목회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사역이란 전인적인 치유사역을 의미한다. 건강이란 전인적인 것이다. 현재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귀신들린 병, 육체적 질병, 환경적 질병 등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병명조차 알지도 못하는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든 이들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치유하는 치유목회가 21세기에 교회의 사명인 것이다.

교회는 종합 치유원이 되어야 한다. 질병은 우리의 대적이다. 마귀를 대적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질병에 대하여 대적하여 이겨야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는지 모른다. 질병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질병은 위장된 축복도 아니다. 질병은 치유하여야 하는 악인 것이다.

교회의 치유사역을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개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해 내어, 그런 요소들을 교회 적으로 제거하므로 성령의 치유역사를 풀어놓아

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다. 우리는 마귀와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대적하여 이겨야 한다. 치유의 역사를 풍성하게 풀어놓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성지교회의 사명이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다.

사실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더 큰 기적이요 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인데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치병을 고치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교회에서는 치유사역의 체계를 확고하게 하여 체계적으로 믿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 성령의 치유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다.

이상에서 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었다. 치유와 건강의 의미를 다루었다. 치유의 여섯 가지 목적과 예수님의 일곱 가지 치유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사도들의 치유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전인 치유사역의 4가지 분야를 자세히 다루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치료방법을 사용해야 좋은 치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치유의 장애물에 대하여는 자세히 다루었다. 현대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치유의 장애물들에 대하여 자세히 규명하므로, 교회 내에서 이런 치유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얼마라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제 4 장
치유목회에 대한 이해

제 1 절 목회에 대한 이해

목회란 무엇인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220). 목회는 하나님과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며, 목회자가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 목회의 기본성격은 선교, 성례전 집행, 교회의 관리운영, 평신도 지도교육, 설교, 봉사, 돌봄, 감독, 권위 등의 직무와 연관된다. 이런 직무의 결국은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를 위한 영혼치료와 하나님나라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목회는 특별히 개개인의 영혼 돌봄이 강조된다.221) 예수님은 영혼구원과 하나님나라 복음선포를 위해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 4:23). 주님의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적 기능과 사탄의 왕국을 추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적 기능과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적 상황과 필요를 채워주고 대변하는 제사장직 기능을 총체적으로 다루셨다.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반응이 만나는 데서 동기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다. 목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삶과 영혼구원을 위해 돌보고 먹이며 싸매 주어 저들과 함께 하는 거룩한 사역이다.222)

목사는 목회를 맡아서 하는 자이다. 목사는 목사와 교사의 준말로, 구약적 어원에서는 통치자, 왕, 하나님의 보필 자, 대신, 종의 뜻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 등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목회원리와 원

---

220).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4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5.
221).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치유, 1994), 43-44.
222). Ibid., 47.

칙을 추종하는 본분을 나타낸다. 목사라고 번역된 원어는 '포이메나스'(ποιμένας)라는 말이다. 고전 희랍어의 뜻은 '백성을 다스린다'(ποιμήν λαῶν)라는 뜻이었다.223) 이 말은 신약에서 '목자'로 18회, '예수'로 7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히 13:20)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리스도"(벧전 2:25)로 각각 1번씩 사용되었다.224)

목사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목자의 일을 하고, 원시교회의 교인들은 감독자와 목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세심히 돌볼 지도자가 필요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동굴에서, 다락방에서 숙식을 같이하고 기도를 같이할 목자가 필요했다. 이러한 일을 한 일꾼이 바로 목사였다. 그들은 양떼들을 치고(ποιμήν), 먹이고(βοσκε), 가르치고(διδάσκε), 감독하고(ἐπίσκοπε), 경우에 따라서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요 10:11). 선한 목자로서 목사였다.225) 목사는 교인들과의 사이를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요 10:11),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한다(시 23:2). 양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도록 되어있다. 모세, 여호수아, 요셉, 다윗은 모두가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이다. 그들은 모두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하였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요 10:14). 예수님은 특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고 힘없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특히 사랑하셨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마 9:36)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다(롬 1:16). 세리장 삭개오, 세리 마태, 산헤드린 회원인 니고데모, 회당장 야이로, 백부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인 양떼들이었다. 교회 역사에서 목회는 영혼의 치유(cure of souls)라고 불렀다. '치유'(라틴어 cura에서 온 말)는 '치료하다(to heal)'는 뜻으로 쓰였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보살피다'(to care)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 목사는 영혼의 의사로 간주되었다.226) 즉 교역자들은 세상의 어느 전문직보다도 오래된 고대의 보살피고 돕는 목회전통에 속한다는 사실을 앎으로써 사명감과 용기를 얻는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건강은 목사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

223). 이종성, 교회론 II, 37.
224).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40.
225). 이종성, 교회론II, 38.
226). 엄예선, CN 742 Family Crisis and Pastoral Care 1997년 강의록. 3.

1. 목회사역의 여섯 가지 균형 있는 표준227)

현재 덴버 신학교에서 목회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제임스 민즈(James Means)는 목회사역의 여섯 가지 균형 있는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목회사역은 목회자의 인격과 기량(skill)을 전제로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좌우된다. 목회자는 반드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며,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하고,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의 부재를 지도력의 무능, 운영의 나태, 관계 형성의 서투름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훌륭한 목회자는 성령님의 역사, 영적 전쟁에 사용되는 영적 무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안들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 설교, 가르침 등을 포함하는 성경적 지침에 대해 내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또한 현대의 윤리적인 방법론이나 전문 기술 등도 최대한 활용하는 자이다. 영적인 지도자는 미래에 대해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사고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대해 사려 깊은 관심을 보여 주며, 세심한 면에까지 고통을 나누는 관심을 기울인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복음을 침투시키도록 인도하며, 교인들로 훈련시키는 일과 사역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교회의 선교적 영역, 공동체적 영역, 유기체적 영역들의 최고 효용성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다.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까요?"라고 질문하지 말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라고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목회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많은 예산, 첨단의 기술, 훌륭한 건물, 많은 재능, 향상된 마케팅이 아니라, 권위와 권능을 갖춘 지도력이다.

2. 목회 사역에 필요한 목회자의 인격228)

개인적으로 성실해야 한다. '성실'(Integrity)은 라틴어 'integritas'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건전함'을 의미한다. 이는 완전함 혹은 끊임없음, 충실한 상태 등의 질 혹은 조건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은 외적 고백과 내적 실체 사이의 기본적 일치를

---

227). James E. Means,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배헌석 김응국 역 (2판: 서울: 종합선교 나침반, 1997), 11-12.
228). Ibid., 17-30.

의미한다. 성실은 윤리, 정직, 명예, 원리, 도덕성을 포함한다. 성실은 진리에 대한 각별한 헌신, 거짓에 대한 줄기찬 항거, 그리고 윤리, 도덕, 미덕에 대해 변하지 않는 헌신을 모두 포함한다. 성실성 자체는 진실과 통하지, 인기와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행복과 물질적인 성공을 우상화하는 사회이다. 성공 증후군을 향한 헌신은 몇 명의 슈퍼스타를 만들어 내지만, 많은 설교자들의 성실성을 파괴한다. 성실성은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기 위해 성경적 기준을 낮추는 것을 거부한다.

영적 생명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을 말한다.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지도자들은 목회를 향한 열정,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파의 열정, 그리고 영적 훈련에서 충실함을 보인다. 영적 생명력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대로 진실한 기도 생활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 있는 목회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취약함을 보인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딤전 6:11)와 같은 깊은 영성의 증거를 갖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지도력을 구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상식이 있어야 한다. '상식'(common sense)이란 말은 라틴어 'sensus communis'와 헬라어 코이네 아이스시스(koine aisthesis; 일상적인 통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특수한 지식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건전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영어의 '통찰'(insight), '분별'(discernment), '지혜'(wisdom), '판단'(judgement)은 상식의 개념에 근접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완전히 그 의미에 부합되는 것은 없다.

상식은 지도자로 하여금 적절한 우선 순위를 정하게 하고, 스케줄을 지혜롭게 짜도록 하며, 잘못된 것보다는 좀더 나은 대안을 제시토록 하며, 상이한 사안들 속에서도 그 연관된 가치들을 인식케 한다. 상식이 부족한 목회자는 그 어떠한 가치 있는 일들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그 자체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목회 열정으로 표현된다. 자비로운 사랑이 없이는 은사의 의미는 상실된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엄청나게 갖추어진 실용적 방법론 등에 대하여는 강조하지만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열정적인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수많은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양육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목회에서 열정이 없거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 우리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목회자의 본질적인 인격의 요소 외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는 잘 훈련된 몇 가지 능력들에 크게 좌우된다. 건강한 목회자가 되려면 비전을 확대시켜야 하고, 재능을 개발해야 하며, 은사를 향상시키고, 지식을 습득하며, 기량을 연마해야 한다. 어떤 지식이나 능력도 모범이 되는 인격에 대체될 수 없지만, 인격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지식이나 능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문성에 대한 경멸은 평범 혹은 실패를 초래한다. 무능력한 목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경우는 없다.

3.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다섯가지 기량229)

성경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구비해야 한다. 목회사역은 영혼의 병에 대한 진단과 그 치료를 위해 성경의 가르침의 처방을 으뜸으로 한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목회에는 평생동안 말씀을 사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사회에서는 혼돈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도시화, 다원주의, 물질주의, 과학 발명, 기술 혁명, 대중매체 지배, 그리고 상대주의가 이 변화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목회자는 복음을 사회 속에 침투시킴으로써 교회를 인도해 나간다. 그러나 문화에 민감하지 않고서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목회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인간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고, 갈등 상황을 대처하는 기술과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인간 관계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유념해야 한다.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전체 성도에 대한 열정적인 교감과 관심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는 성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대화술은 신중하게 듣는 기술과 기꺼이 그리고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능력 있는 목회는 대화 능력에 좌우된다. 목회자가 대화를 잘 이끌지 못할 때 생명력 있고 의미가 충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교인들을 탁월하게 이끌지 못하게 된다.

훌륭한 목회자들은 회중을 잘 인도한다. 지도력의 기술이 없이는 어떤 목회자도 자신의 목회를 훌륭하게 감당할 수 없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은 전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 개인들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목회에 꼭 필요한 기량을 연마하기 위하여 목회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

229). Ibid., 31-43.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목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그가 얼마나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하였느냐 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 2 절 성경적 인간이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치유목회사역을 이해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불신자들의 인간 이해와 그리스도인들의 인간 이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역사상 나타난 인간론에 대하여 논하고 다음에 성경적 인간론에 대하여 논하겠다.

1. 원시인의 인간이해230)

희랍의 신화적 인간 창조론에 의하면 인간은 성경의 창조론과 비슷하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또한 다른 신화에 의하면 돌 또는 바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땅에다가 어떤 씨를 뿌려서 곡식이 그 씨에서 자라듯이 사람도 땅에서 자라났다고 한다.

영혼의 윤회라는 사상은 어떤 특정한 신화나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시종교와 신화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인도교에 의하면, 선한 사람이 죽으면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신들과 같이 고통이 없는, 모든 아픔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의 생활을 누린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가 있다가 다음 세대에는 더 저속한 존재로 회생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도교에서는 개인의 영혼이 사람과 동물과 식물 사이를 전전(轉轉)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도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는 모든 존재의 무시 무종을 강조한다. 다만 무한한 변혁이 계속될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사건은 전생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다.

조상 숭배사상이 발달됨에 따라 조상의 혼백이 사후에도 살아있어서 자손들이 그 혼백에 대해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 복이나 화를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 혼백이 전생(轉生)하여 동물이 되거나 식물이 된다고 믿지는 않는다. 또한 그 혼백이 몇 대 손까지 관계를 가지며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 말도 없이 사라진다.

---

230).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10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16-18.

2. 희랍철학의 인간이해231)

플라톤(Plato)의 인간론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중 더 중요한 영혼이다. 육체는 영혼을 잠깐 담가두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플라톤은 영혼은 신적인 동시에 죽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자체 안에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바로 그 동력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다. 플라톤은 철저한 이원론적 원칙을 가진 인간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비 본래적이요, 상대적이요, 변하고 죽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는 반대로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 실재의 세계, 이데아(Idea)의 세계에 가기를 원해서 끊임없는 상승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이 중요하다. 육체는 아무 가치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인간이해는 인간의 중심은 영혼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육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그의 영혼론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존재한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은 다만 육체와 영혼으로써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는 마음(mind)이라고 부른다. 마음은 영혼 안에 심겨져 있는 독립적 실체인 것 같으며 그것은 파괴될 수가 없다. 이 마음이 수학이나 철학을 알게 한다. 또 그는 영혼 안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으로 나눈다. 후자는 모든 물리적 존재의 기초가 되는 데 대하여 전자는 관조와 자아 충족에서 존재한다. 이 이성은 신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이 신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3. 동양인의 인간 이해232)

불교에 의하면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생은 고(苦)에 싸여 있다고 한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는 것도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과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번뇌의 수풀 속에 뿌리 박고 있는 이 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괴로움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고통의 존재로 본 불교는 그 원인을 인간의 무명(無明)의 마음 때문이라고 한다.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생각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리의 판단을 바르지 못하게 한다. 사람의 이런 욕망을 집체(集諦)라고 부른다. 따라서 사람에게 가장

---

231). Ibid., 19-21.
232). Ibid., 22-25.

중요한 것은 이 집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 집체를 없애려면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팔정도(八正道)의 생활을 해야 한다. 팔정도는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精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다. 이 팔정도의 생활을 한다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게 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배다.

불교의 인간이해의 특징은 인간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이해한다. 현실적인 인간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불교는 자력 종교요, 인본주의적 종교다.

유교의 인간이해는 불교의 인간관보다 더 현실적인 동시에 윤리적이며 또한 사회학적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인(仁)이라고 한다. 인(仁)과 인(人)은 같은 개념이다. 사람이 인신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인(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 인(仁)은 유교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인(仁)은 인격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겸비하고 있다. 또한 인(仁)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인간의 생명 자체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허식과 가식과 언변과 수식만으로는 인(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인(仁)은 인간성 전체를 가리키는 통일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仁)이란 개념에는 정, 지, 용, 충, 성, 예, 공, 신, 효(情, 知, 勇, 忠, 誠, 禮, 恭, 信, 孝)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인(仁)은 인륜의 극치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인(仁)의 극치에 도달하나 사람은 천을 알게 된다. 유교는 인간을 도덕적 주체자로 보았다. 이와 같이 유교는 인간을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이상적이며, 또한 도덕적 주체자로 이해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의 인간이해에서 최수운의 천도교 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 '한울님'은 우리 인간을 떠나서 존재하며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떠난 한울님이란 생각 할 수 없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한울님을 모시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한울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한울님을 모신다는 것은 마음에 신령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물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울님을 모신다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싶은 신념을 가지는 것이다.233) 이렇게 한다면 한울님은 사람 안에 있게 된다.

결국 한울님은 자아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 안에서 발견되다. 한 걸음 나아가서 깊은 자아 속에서는 한울님과 자아는 일치가 된다. 여기에 그의 유명한 명제인 인내천(人乃天)의 사상이 싹트게 되었다.

4. 현대의 여러 가지 인간 이해234)

인간은 물리적 - 화학적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면서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다. 또한 인체는 수소와 질소와 인산과 칼슘 등 여러 가지 원소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이러한 물질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인간관. 사람을 다른 동물과 동일한 체계를 가진 동물에 속한다고 보는 인간관. 특히 진화론자들의 의해 주창되고 있다.

영혼과 정신을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영혼은 정신의 모체로서 질적으로 더 깊고 고상하며, 이 영혼의 기능에 의해서 유기체의 생동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해. 보편적 인간이해는 일정한 체계나 이론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소유자로 이해하는 인간이해이다. 유물론적 인간이해는 인간의 특유한 인간성을 자기 자신의 이성과 의지와 사랑으로 보는 견해.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본질이다. 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인간이란 완전히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로 보는 인간관이다.

실존주의 인간이해는 인간을 단독자로 본다. 인간이 대중 속에 잠겨버리면 그는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 이 단독자는 스스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고 신과 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만 만족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 절망적이란 것과 이 절망을 극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실존주의 신학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간이해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인간이해는 인간의 본질의 일면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성경적 인간 이해

성경 저자들의 인간 이해는 처음부터 신과의 관계에서 이해했다. 그래서 인간이

---

233). Ibid., 25.
234). Ibid., 30.

란 무엇인가 질문하고는 그 자체 안에 있는 무엇으로 판단하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구약인은 인간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해했다. 즉 사람은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이며, 이웃과 같이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235)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창 1:1). 인간뿐 아니라 모든 물질적 존재까지도 그렇다. 모든 현실적 존재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창 2:7).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며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에 구속의 도구로 삼는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천지를 만드시기도 한다(계 21:1). 이러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인류 역사를 구속하시고 주관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요 1:9; 빌 2:5-11).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와 하나가 될 때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행 4:12; 16:31; 롬 10:10).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지상에서 존재하는 실제적 존재인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고후 5:17). 이와 같이 성경의 존재론은 매우 동적이고 인격적이다. 여기에 인간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 진다. 인간의 삶의 주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236)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완전 타락하였다. 인간은 전인적으로 구속받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제 3 절 질병에 대한 이해

질병을 의미하는 영어 'disease'는 'dis'(아니다)와 'ease'(평안)의 합성된 것으로 '평안하지 않은 상태'이다. dis의 어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disobey'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obey) 건강하고, 불순종(disobey)하면 평안하지 않은 상태, 즉 질병(disease)에 걸리게 된다.237)

---

235). Ibid., 39.
236).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103-109.
237). 이길상, 성서에서 본 자연치유력과 건강법 (3쇄; 서울: 기독교문사, 1994), 15-16.

1. 구약성경에서 질병의 의미

구약에서 질병이라는 말이 동사로는 'Hala'로 쓰였고, 그 의미는 '아프게 되다' 혹은 '현기증을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 오랜 여행 후에 오게 되는 피곤함(사 57:10), 육체적 손상으로 오는 질병(잠 23:35), 낙상으로 다치게 되는 것(왕하 1:2), 다양한 원인의 병들(창 48:1; 왕하 20:1), 아사의 발에 들은 병(왕상 15:23),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짐승의 상태(말 1:8, 13)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단어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아 2:5; 5:8). 이사야 53:3-4의 질고는 영적 혹은 육체적 질병을 가리키기도 하며 '슬픔'으로 번역된 'makob'은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외 파생어인 'mahaleh'는 '질병', '허약함'의 뜻으로(대하 21:15; 잠 18:14), 'mahaluy'는 '병' 혹은 '상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대하 24:25).[238]

2. 신약성경에서 질병의 의미

신약성경에서는 질병의 개념이 6가지 용어로 사용되었다.[239]

Astheo : 병이 들어 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마 10:8; 25:36; 막 6:56; 눅 4:40; 요 4:46; 행 9:37; 딤후 4:20; 약 5:14).
Kamno : 계속적인 일로 인하여 지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히 12:3).
Sunecho : 질병에 걸리는 것을 가리킨다(행 28:8).
Noseo : 정신적인 질병을 가리킨다(딤전 6:4)
Kakos : 나쁜 병이나 악령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마 4:24; 8:16 막 1:32; 2:17; 눅 5:31; 7:2).
Malakia : 쇠약한 것이나 질병을 가리킨다(마 4:23; 9:35)

3. 질병에 대한 종합

질병이란 신체적으로 저항력과 파괴력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서, 예를 들면 세균의 침투로 저항력이 파괴력을 이기지 못하여 평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정신적으로 평온이 깨진 상태로 불만, 공포, 초조, 시기심, 질투, 보복심, 이기심, 억압감 등에 휘말리어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뜻한다. 사회적으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는 자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종 관계 속에서 무질서와 불의, 불신이 싹트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목표를 세우거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질병이란, 자신, 이웃, 자연

---

238). 이훈구, 지금도 행하시는 치유, 144-145.
239). Ibid., 45.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무질서, 불균형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240)

건강함(Health), 온전함(Wholeness), 거룩함(Holiness)은 모두 '온전(Completion)'함이라는 뜻의 'hal'에서 유래된 것인데, 질병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균형이 깨져 온전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조직체의 규칙적인 반응에 의해 연합된 사물들의 집합 안에서 어떤 것이 고장난 상태 또는 조직체의 '부적응' 및 '부조화' 상태가 질병이다.241)

결국 질병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전인적인 인간과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의 단절이다. 어떤 형태든지 마음과 영혼에 평안함이 없거나 행복하지 못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것은 질병의 상태이다.

4. 질병의 기원

치유목회전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질병의 원인과 질병의 기원에 대하여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다.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먼저 질병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계시에 대하여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자유와 치유와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질병의 원인은 참으로 많이 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는 현대의학이나 전통의학 또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인간 관계적, 환경적, 등의 많은 원인이 있다.

질병의 근원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한다. 창세기 처음 부분을 통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가 임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겼는데, 이러한 행위야말로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음은 나타내 주는 것이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창 3:8-9). 아담은 유혹의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돌렸는데, 이는 감정이 병들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요, 대인관계의 불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창 3:12).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으로

---

240). Ibid., 146.
241).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117.

병들고, 고통 당하고, 죽게되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병들고, 고통 당하고, 죽게 되었다(창 3:16-19).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병들었음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다(창 4:8).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도 인간의 저주로 인해 저주받았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창 3:17-18). 그리스도의 치유는 훼손된 것이 다 회복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242)

로마서 5:12-14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요한복음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히브리서 2:14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도행전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일라."

모든 형태의 병은 사탄의 거짓 왕국의 특징이다. 마이클 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병과 죽음은 모두 첫 번째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예(yes)"한 대가로 사탄이 준 거짓된 거래의 일부분이요 꾸러미이다. 신비하게도, 죄와 죽음과 병은 모두 불순종의 유산의 일부분이다".243)

5. 사탄의 근원.

그러면 이런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근원이 되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많은 부분을 빼놓고 믿는 경향이 있다.

---

242). Mark A. Pearson,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윤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16-17.
243). Ken Blue, 치유의 권세, 여주봉 역 (2쇄; 서울: 바울서신사, 1993), 72.

바로 영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고 특히 마귀, 악령, 귀신 등에 대한 것들이다. 마귀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자(겔 28:12-19). 이사야서에서는 루시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사 14:12-14).

위 두 곳의 기록이 사탄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악한 존재였다.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늘의 천사 1/3이 함께 배반하였다(계 12:3-4). 마귀는 사악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고 파괴적이다. 악령은 인간의 영이 인격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체다. 마귀는 육체없이 살아가는 영이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영이며,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악령은 사탄으로부터 난 것이다.244)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다(고후 4:4). 사탄은 열방의 왕이다. 사탄은 모든 불행과 슬픔,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 자체의 근원이다. 사탄은 모든 악령의 왕이고 지배자다. 사탄은 지옥의 검은 군대를 지배한다.245)

6. 사탄의 이름

사탄의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탄이 누구인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탄 : 성경에서 대략 52회 정도 사용되었다. 히브리어로서 '저항자' 혹은 '반역자'라는 뜻이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 저항한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한다. 악한자란 뜻이다.

마귀 :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대신에 신약에서는 '디아볼로스(διάβολος)'라는 헬라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 말이 '마귀'로 번역되었다. 이 말은 영어로는 '데블'(Devil)이라고 번역되었다. '디아'(διά)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뜻이고, '볼로스'(βολος)는 '던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마귀란 '던져버리는 자'이다. 마귀의 일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해서(던져서), 사람을 지옥으로 던져 버리는 것을 말한다.246) '참소자', '욕쟁이', '비방자'를 의미한다. 약 25회 사용되었다.

공중에 권세 잡은자 :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

244). T. L. 오스본,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함무근 역 (서울: 도서출판 글터, 1995), 186.
245). Ibid., 189.
246). 권택조,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92.

이 세상 신 :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히 2:14)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1-12).247)

리워야단 :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사 27:1)

여기서 사단은 지구의 역사 초기에 온 물을 흐려 놓은 막강한 공룡으로 비유된다. 욥은 이 무서운 바다뱀을 묘사하고 있다.(욥 41:14-34).

이 세상 임금 :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요 12:31)

루시퍼 :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

그는 한때 아침의 아들 구실을 했기 때문에 계명성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 진실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용 :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계 12:7)

미혹하는 자 :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나 저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사단은 남을 미혹하게 하는 자일 뿐 아니라 스스로 미혹하는 자다. 한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

아불루온 :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불루온이더라"(계 9:1)

---

247). H. L. Willmington, 부리는 영과 꾀는 영, 목양서원 편집부 역 (서울: 목원출판사, 1995),148..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인간의 잔인성과 잔혹함은 곧잘 이 죽음의 파괴자에게서 나오는 악한 힘으로 설명된다.248)

바알세불 :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마 12:24).

그리스도께서 한때 악한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마귀에 비교되었습니다. 사단에 의해 완악해진 인간들의 심성이 구원자를 바알세불로 몰아붙인 것이다.

벨리알 :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고후 6:15)

악한 자 :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아들들이요"(마 13:38)

밭의 가라지의 설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을 하나님의 밀밭에 악의 씨(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로 묘사합니다. 질병도 이런 악한 것의 하나이다. 사람을 파괴하기 위하여 마귀가 사용하는 악한 것이다',249)

시험하는 자 :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데살로니가전서 3:5).

마귀는 하와를 꾀어 하나님께 거역하게 함으로써 인류에 대해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유혹자)로 불린다.(참조. 창 3장)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계 12:10)

광명의 천사 :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14-15).

이 구절에 나오는 사단의 칭호는 오늘날 성행하는 무수한 거짓 종교의 실태를 잘 설명해 준다. 사단의 일꾼들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인기를 끄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막히게 왜곡시킨다.250)

---

248). Ibid., 151.
249). T. L. 오스본,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187.

거짓말쟁이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 8:44)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거짓말쟁이였다.

살인자 : 가인으로 하여금 그의 경건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여 살인자라는 지칭을 얻게 한 장본인은 바로 사단이다(요 8:44).

원수 :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마 13:39)

우는 사자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사자가 백수의 왕이듯이 사단도 귀신의 왕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왕노릇하고 있다. 이 두 존재는 그의 희생물에 대하여 냉혹하고 막강하다.251)

7. 사탄의 하는 일

이러한 마귀의 가장 유능한 대리인은 바로 사람의 몸이다. 인간의 육체는 가장 폭 넓은 표현 수단을 지녔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마귀는 자신을 표현할 어떤 몸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쉴 수 없다는 점이다(막 5:12). 마귀의 영인 악령 또는 귀신은 실제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유한 인격을 통해 그들 자신의 인격체를 표현한다.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악령들도 역시 여러 계층, 여러 유형이 있다.252)

그러나 귀신들은 항복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막 5:6-9). 그들은 혼자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연합해서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알아보고 항복을 한다(행 19:13-16). 무엇보다도 귀신들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253)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 온갖 악한 짓을 한다. 그들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의 입과 손과 발 온몸을 사용한다. 그들은 인간

---

250). H. L. Willmington, 부리는 영과 꾀는 영, 153.
251). Ibid., 155.
252). T. L. 오스본,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189-190.
253). 권택조,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94.

을 도구로 삼아 더럽히고 파괴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요한복음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삼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감동을 주며, 용기를 주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높여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특히 질병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어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8.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일반적 견해

우리는 질병이 과연 악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은 병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자.

욥기 2:7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기 42:10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병들게 하였다. 사단은 질병을 가져오는 자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병을 곤경이라 부르시고 그것을 치유하여 주셨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며 곤경인 것이다. 하나님은 곤경에서 치유하시며 해방시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3:16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이 불쌍한 여인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변장된 축복으로 그 질병을 허락하였다는 그 어떤 암시도 없다. 이 질병은 그를 부자유하게 매어 놓는 것이었다. 질병은 속박이며 부자유며 매임이며 고통이다.

사도행전 10:38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 말은 성령의 말이다. 질병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병을 곤경이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매임이라 부르시고, 성령님께서는 병을 억눌림이라 부르신다. 해방, 자유, 구원, 끊어진 멍에, 내려진 짐, 자유케 된 포로, 치유 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며 축복이

다. 질병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254) 질병은 위장된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질병까지도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질병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니고, 위장된 축복도 아니다. 질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근원은 마귀라는 사실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질병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가 질병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의사들은 마귀의 편이 되고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항상 질병을 없애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만약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든 병원들은 자비의 집이라기 보다는 반역의 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병원들은 병을 찾아 없애려고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으로 여겨진 병에 대해 반역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질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모든 간호사들은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만약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가장 많이 하신 셈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이다. 만약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병원과 간호원들과 의약들과 치유목회를 하는 목사들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병을 제거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의사, 약 및 의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 병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시키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병원들과 간호원들과 의사들과 의약들과 치유목회자들과 그밖에 누구든지 치유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질병을 대적하고 치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의사를 불러서도 안 되고 교인들에게 치료를 권유해서도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범하게 될 것이다.

---

254). Ibid., 219.

병이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결코 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교인들 모두가 유사한 축복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255)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경감하는 모든 수단을 배격해야 한다.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일치된 행동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방해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로지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며 병을 견뎌내야 한다. 그러나 병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시키는 모든 수단은 축복임에 틀림없다.

9. 바울의 "육체의 가시"

오늘날 치유사역에서 가장 널리 제기되는 반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이다. 한 가지 전통적인 생각은 다른 똑같은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이 병의 근원이라는 널리 알려진 가르침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고 싶지 않은 병을 지니고 있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치유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인지를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의하여 살펴보자. (고후 12:7-10)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병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 그 표현이 사용될 때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 함께 진술되어 있다.256)

민수기 33:55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 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서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은 가나안 거민을 나타내고 있다

여호수아 23:13 "정녕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

---

255). Ibid., 210.
256). Ibid., 273.

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의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기서 옆구리의 채찍이나 눈에 가시는 가나안의 이방민족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 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두 번 모두 가시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 바울은 그의 가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는 그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다. 육체의 가시는 한 인격체, 즉 사단의 사자를 상징하고 있다.

'사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188번 나타나는 헬라어 '앙겔로스'로부터 번역된 말이다. 181번은 '천사'로 번역되었고 7번은 '사자'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188번 모두 예외없이 그 말은 인격체를 말 할 뿐, 어떤 사물을 뜻하지 않고 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마귀의 이 '사자들' 가운데 하나였다.257)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동양인의 눈병으로부터 말라리아 혹은 간질 같은 질병으로 말하는 것은 어데다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저 인간의 생각이나 추측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단의 사자가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은 나를 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단어는 파도가 배를 친다거나, 대제사장이 예수를 쳤을 때(막 14:65; 마 27:26; 고전 4:11; 벧전 2:20)처럼 치고 또 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후 12:7에서 바울이 이 사단의 사자로부터 받은 고난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 단어는 다른 구절들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조화되고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질병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 이 사단의 사자는 끊임없이 바울을 치기 위해서 -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치고 또 치기 위해서 - 보내졌다. 고린도전서 4:11에서 이 단어는 매를 맞으며로 번역되어 있다. 병은 주먹으로 사람을 치거나 손으로 때릴 수는 결코 없다. 그러나 마귀의 사자의 괴롭히는 행위는 분명 이러한 표현에 어울린다. 바울의 생애 동안 그가 받았던 고난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 사단의 사자가 병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인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바울의 회심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 9:16)는 것을 알렸다. 그 말

---

257). Ibid., 273.

씀은 그의 생애 동안 그대로 이루어졌다.(행 9:23; 9:26-29; 13:6-12; 13:44-49; 13:50; 14:1-5; 14:6-9; 19:8; 16:12-40; 17:1-10; 17:10-14; 18:1-23; 19:23-31; 20:13).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공격을 받고, 다섯 번이나 재판을 받고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가 받은 고난의 목록을 보면 더 확실하다. (고후 11:24-27, 고전 4:12-13)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 외에 누가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없다. 사단의 사자는 분명히 사람임에 틀림없다.258) 고린도후서 12: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기 언급된 5가지는 주로 사람에게서 받는 것들이다. 그 어떤 것도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울이 교회 앞에 그의 약함을 말할 때 그는 자신의 힘없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이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단의 사자를 떠나게 해 달라고 세 번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만일 그것이 질병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병든 상태에 계속 있기를 원했다는 뜻이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치유의 주님이시다. 성령님도 능력으로 역사 하여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병에 들려 고통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죄와 귀신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이 치유 목회사역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10. 질병의 발생통로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질병의 근원은 사탄이다. 그러나 질병이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들어오는데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잘 들어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게 전달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 말씀대로 지시를 내리므로 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

---

258). Ibid., 275-276.

로 옮길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질병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 사탄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질병을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영적인 통로, 심리적 통로, 육체적 통로, 전환경적 통로가 있다.259)

가. 영적 통로(Spiritual Channel)가 있다.

첫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 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온갖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온 것이다. 죄의 뿌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인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여러 가지 죄와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갖다주는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것이다. 죄는 사람에게 질병이 들어오는 영적인 통로인 것이다. 특히 강신술(occultism), 비판주의(criticism), 반역(rebelion)등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이런 류에 종사하는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온갖 질병에 걸리게 된다. 모든 우상숭배와 접신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케하는 가장 큰 죄들이다.

강신술은 운명감정, 마술, 교령술, 초혼행위, 우상제사, 사이비 종교의식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정신질환과 귀신들린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행여 장난으로라도 점을 보아서는 안된다.

비판주의도 질병을 가져온다260).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문둥병에 걸린 말씀이 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을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무지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마음속에 신자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행 9:1-18). 바예수는 로마의 총독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죄를 지었

---

259).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133.
260). 권택조,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108.

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행 13:6-12).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은 그 틈으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사람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고 죽이기까지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여러가지 시험과 술수와 궤계에 속아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질병 중에 있을 때는 우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회개해야 한다. 질병이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질병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로 마귀를 통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고 생활하였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보다 회개치 않는 완악함과 교만과 고집을 매우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모든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261)

결국 질병은 영적 통로를 통해 들어오며, 이것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질병까지를 유발하게 된다. 성경에는 죄의 목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몇군데 들어보면 로마서 1:28-32, 갈라디아서 5:19-21, 디모데후서 3:1-5 등이 있다.

헨리 훼얼리(Henry Fairlie)는 '현대의 7가지 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262) "특별히 현대에 들어서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급기야는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많은 사회적 풍조들이 우리 주위에 생겨났으며, 심지어 우리사회는 우리의 이기주의를 떠받들어 주는 것 외에 아무런 존재가치나 기능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 그는 이 책에서 7가지 죄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탐색이다.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파멸당할 날만을 기다리는 시점에 살고 있다.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이다. 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죄와 이기는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만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뿐이다.

나. 심리적 통로(Psychological Channel)

질병이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의 통로는 심리적 통로다. 나쁜 감정들, 즉 질투, 공포, 쓴 감정, 염려, 분노, 후회, 미움. 근심, 두려움, 불안, 의심과 불신, 강박관념, 무감각, 무기력, 열등감, 지나친 우월감, 좌절, 실패, 완벽주의, 소심한 성격, 약한

---

261).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135.
262). Henry Fairlie, 현대의 7가지 죄, 이정석 역 (재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 중심 등의 감정은 질병이 몸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 욥이 무서운 악창에 걸렸을 때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 3:25)

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평소에 악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결과 그의 몸 속에 그 질병이 들어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이런 욥의 고백은 욥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진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 것이다.263)

인격의 손상과 부정적인 감정을 손상시키는 모든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독묻은 화살이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모든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은 우리 마음뿐 아니라 정신, 육체, 사회생활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스트레스야말로 모든 병의 통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즉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차 있으면 육체에 질병이 생긴다는 말씀이다. 좌절과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미움 등의 나쁜 감정은 육신 속에 병이 들어오도록 촉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264)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을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현대의 대부분의 질병이 스트레스에 기인하고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보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을 알아보자.

(1) 스트레스의 원인265)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부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에 대해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환경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갖는 것도 우리 자신을 실패와 자기 거부로 몰아넣게 된다. 완전주의자와 같이 사는 일도 힘든다. 완전주의는 대체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가 없다. '인내'란 말은 '참고 견딤, 조급하거나 충동적이지 않음, 견고함,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융통성 부족은 완전주의, 인내 부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완고한 사람은 어떤 일이

---

263). 권택조,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110.
264). Ibid., 111.
265). Norman Wright, 여성을 위한 카운슬링, 황을호 역 (2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86-87.

잘못 될까 를 예측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많은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의자에 10분 동안이라도 푹 앉아 있지를 못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삶의 특징이 분노를 폭발하여 그 파편을 남에게로 날려보내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스트레스를 끼치게 된다. 자기 기만과 자기 비난으로 가득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것, 즉 그들이 하는 일과 가진 것 등을 보고 나와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압감을 준다. 낮은 자아 개념은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된다. 우울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2) 그는 이어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법을 세 가지 소개한다.266)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긴장 해소법, 독서, 특히 기도, 성경묵상, 찬양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적, 심리적 반응을 바꾸어 볼 수 있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신념들이나 가정들, 부정적인 사고 방식 등을 바꾸는 일을 포함한다.

찰스 크래프트는 그의 자서전적 성격이 강한 「능력 그리스도교」에서 서양 사람들의 개인주의 성향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삶과 고립적인 삶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 "이러한 고립적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 그리스도인이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단이 역사하기가 매우 쉽다. 이는 특히 감정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오직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들로서는 감정은 사적인 것이며 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 분노, 울분, 원한, 두려움, 걱정, 욕망, 등 감정의 문제는 그들 내부에서 그토록 그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모습을 감추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단은 마치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쥐처럼, 사람들의 감정적인 문제들에 붙어서 그들을 마음껏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267)

필자는 성지교회에서 치유목회사역을 하면서 사탄이 사람들의 감정에 가장 많이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사람들이 어쨌던 기분이 나쁘면 마귀는 틀림

---

266). Ibid., 88.
267). 찰스 크래프트, 능력그리스도교,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2), 65.

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귀신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심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란 기분에 치우치거나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마귀의 역사를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마귀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귀는 이러한 나쁜 감정이나 여러 가지 세상 적이고 정욕 적이고 마귀 적인 생각을 통한 스트레스를 통하여 우리 몸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경성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나쁜 감정은 신경조직에 영향을 주고 신경조직은 몸의 세포에 병적인 자극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세포가 약해진 틈을 타서 병균이 들어오고 병이 성장하게 된다.268)

잠언 4:23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길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모든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데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마다 가득 차 있다. 스트레스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다.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다. 육체적 통로(Physical Channel)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법칙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자연법칙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속에 대단히 과학적인 자연법칙이 존재한다.

건국대 축산대 생화학 교수인 김종배 교수는 '신비한 인체 창조섭리'에서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탄생의 신비를 15 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밝힌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269) "지금까지 생명탄생의 과정을 대충 살펴보았다. 현대과학도 아직 그

---

268). 권택조,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111.
269). 김종배, 신비한 인체 창조섭리 (3쇄; 서울: 국민일보사, 1993), 11-25.

기전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묘한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핑계할 자가 없다고 믿는다. 나를 지으신 그분께 머리 숙여 감사할 따름이다."

그는 이어서 쪼갤수록 오묘한 '소우주' 세포의 세계에 대하여 말하는데, 인간 몸속에 무려 100조개의 세포가 각양 각색 최적의 크기로 최대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포는 작은 몸 속에 큰 조직사회로서 많은 조직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수뇌부 '핵'이 생명의 신비를 풀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의 DNA가 지구와 태양 10번 왕복 길이며 힘의 원천인 '미토콘드리아'는 동력 생산공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전자 집합체인 생체분자, 유전정보의 보고 DNA의 비밀, 무결함의 공학작품 골격구조, 독특한 케라틴 구성 머리카락, 신체 기동성의 원천인 근육, 세포 엮어 신체 이루는 연결자 결합조직, 생체 신비를 조율하는 사자 호르몬, 유해물질 선별 공격하는 생체방어기구, 100조 분의 1W의 빛도 식별하는 눈, 16㎠의 미학 귀, 맛 감지하는 혀, 7가지 냄새 분별하는 코, 몸 속 기관 보호하는 피부, 우리 몸의 소우주 뇌, 흉내 못 낼 완벽한 통신망 신경, 하루 10만 번 생명 펌푸 심장, 산소 공급하는 에너지 탱크 폐, 몸 속의 노폐물을 정화하는 신장, 정유공장보다 정교한 소화기관, 음식물 분쇄에서 소화까지 구강, 완벽한 자동제어 장치 위, 영양소 흡수기관 소장, 내용물의 이동과 배출기관과 대장, 재생능력 가진 유일한 기관 간, 쓴맛이 주는 절제의 교훈 쓸개, 몸의 균형 잡는 천연 소화제 췌장, 생명의 배달부 혈액, 완벽한 생명미학 정교한 설계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270)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것이며 우리의 몸도 이와 같이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다. 너무도 과학적이며, 수학적이며, 논리적이며, 계획적이며 완전하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몸 속에 작용하고 있는 자연법칙을 어기면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질병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파괴자인 마귀가 여러 가지 파괴적인 세력을 동원하여 몸에 병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편식이나 기근으로 인한 영양부족, 과잉섭취로 인한 영양 과다섭취, 무절제한 성생활, 과음, 과로, 폭음, 입맛이 까다로운 것, 각종 중독이나 세균감염, 담배, 술, 마

---

270). Ibid., 27-268.

약의 복용, 또는 부주의, 각종 사고, 과로, 운동부족 등을 통하여 질병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람은 지나친 욕심과 정욕이 절제되고 관리되지 못함으로 아픔과 질병을 통한 고통에 빠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적당하게 하고, 균형이 잡혀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건강 법칙을 잘 배워 매일 매일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이 외에도 전환경적 통로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통로도 있다. 질병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난 전인격과 전환경의 부조화의 상태이다. 전환경이라 함은 인간이 살아가며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웃, 가정, 사회공동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을 포함한다.271) 이런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고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전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아 가야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상에서 치유목회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다. 목회와 성경적 인간이해를 기술하였고, 질병에 대한 이해를 깊이 다루었다. 특히 질병의 근원이 사탄임을 다루었고, 질병의 발생통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

271).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149.

제 5 장
성지교회 치유 목회 전략

제 1 절 치유목회의 이론적 근거

치유목회의 이론적 근거는 과연 있는가? 치유는 현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도 확실하다. 3가지만 다루려고 한다. 신학적 근거, 성경적 근거, 역사적 근거를 다루려고 한다.

1. 신학적 근거

치유목회는 신학적인 근거가 많이 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하나님나라에 관한 것을 다루려고 한다.

가. 신론(Doctrine of God)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약함과 질병이 없으신 건강한 분이시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치유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일곱 가지의 구속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들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과 특성을 알 수 있다.272)

(1)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나타난 치유의 특성

여호와 삼마(Jehovah-Shammah)는 '주께서 거기 계신다', '주께서 임재하셨다'(겔 48:35)는 뜻이다.

에스겔 48:35 "그 사면의 도합이 일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읍에 계신 이유는 자기의 자녀들의 고통과 질병을 고쳐주

---

272). T.L. 오스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286-288.

시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질병이 있는 곳에 찾아 오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모든 마귀와 흑암과 더러움과 질병이 물러가는 것이다.

여호와 살롬(Jehovah-Shalom)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삿 6:23-24)라는 뜻이다.

사사기 6:23-2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특히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마음에 평강을 빼앗기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영적 질병, 내적 질병, 귀신들림의 질병, 정신병, 육체의 질병 등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임하여 오게 되고 귀신이나 질병도 떠나는 것이다. 두려움에 떠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 하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여호와 이레(Jehovah-Jireh)는'주께서 준비하시리라'(창 22:13-14)는 뜻이다.

창세기 22:13-14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양을 몸소 준비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어린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할 모든 준비를 갖추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죄로부터 오는 모든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약에서는 양은 물질적 가치를 지니는 짐승이다. 양이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건강도 넉넉히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닛시(Jehovah-Nissi)는 '주는 우리의 깃발'(출 17:15)이란 뜻이다.

출애굽기 17:15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을 때 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기(旗)'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불치의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물리쳐 치유 받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대적하여야 한다. 모든 귀신을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내어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 라아(Jehovah-Raah)는 '주님은 나의 목자 시라'(시 23:1)는 뜻이다.

시편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이 굶주릴 때 먹여 주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양이 다쳤을 때 돌보아 주고, 병에 걸렸을 때 고쳐 주는 것이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다.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이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만을 받으면 모든 질병을 고침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여호와 라파(Jehovah-Rapah)는 '나는 너희의 의사인 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라는 뜻이다.

출애굽기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 종 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치유자로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 받을 수 있다.

여호와 치드케누(Jehovah-Tsidkenu)는 '주는 우리의 의'(렘 23:6)란 뜻이다.

예레미야 23:6 "그의 날에 유다 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모든 불의가 죄다. 모든 질병은 죄와 마귀와 모든 의롭지 못한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

리의 의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이나 육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닐 때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질병에 걸리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의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2)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속에 나타난 치유 은혜273)

성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중에 몇가지 속에 나타난 치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은 생명이며 능력이다.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다. 사랑 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274)인간의 모든 불치병은 결국 사랑으로만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병을 고치시는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모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적인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Omni-Science)하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체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질병의 원인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정확한 방법도 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아신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Omni-Potence)하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질병이라고 고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귀와 질병을 미워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것이다.

---

273).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173-176.
274). 김영준, 사랑 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서울: 도서출판 두레시대, 1995), 14, 42.

하나님은 전재(Omni-Presence)하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Wholeness)하시다. 마태복음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치유란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온전하여 지는 것을 의미한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 혼 육이 모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데살로니가전서 5:23).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우리들의 전인적인 건강이 들어 있는 것이다.

나. 기독론(Christology)[275]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때가 되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 시며 질병이 없으신 건강한 분이시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들어있다.

먼저 예수님의 치유목회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실이다. (사 53:3-5)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치유자(Healer)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책을 취하여 읽으셨다(눅 4:18-19).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치유자 메시아를 자기와 동일시 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의 치유자의 사명을 친히 감당하셨다(행 10:38).

팀 마샬은 「내면으로부터의 치유」(Healing From The Inside Out)라는 그의 책에서 치유는 사복음서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276] 치유는 메시아의 임재의 특성이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메시아 여부를 알아오도록 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마 11:4-5)

이렇듯 예수님의 치유는 메시아 임재의 표시였다. 메시아가 병자를 고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누가 교회의 치유목회를 부인할 수 있는가. 만약 교회가 이

---

275). 권택조,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69.
276). Tom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28.

런 치유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미 아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셨다.(마 8:16-17)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육체의 치유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277)

로마서 8:23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유란 이 세 가지가 다 치유 받는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몸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의 구속은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치유는 예수님의 부활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치유다.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치유와 건강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부활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다. 부활의 씨앗이 치유의 근원이다. 부활이란 재생이나 잠시 다시 사는 것과는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어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넘치는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올바른 치유 사역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다. 성령론(Pneumatology)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영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

성령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나타난 치유의 의미278)

성령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성령은 헬라어로 '프뉴

---

277). Ibid., 45.
278). 권택조,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73.

마'(πνεύμα)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영'(spirit), '바람'(wind) 혹은 '숨'(breath)이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רוח)인데 이것은 '프뉴마'와 같은 의미이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생명을 주는 힘과 병자를 치유하는 힘과 모든 좋은 것을 창조하는 힘을 의미한다. 천지창조의 과정에서도 '루아흐', 즉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며 역사했던 것이다(창 1:1-2) 여기에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 즉 성령이라는 뜻이다. 이 '루아흐'가 사람을 창조할 때 흙을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귀신과 질병은 육신 속에서 생명력을 빼앗아 죽게 하지만, 성령은 육체 속에 생명을 주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준다.

에스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 '생기'라고 번역된 말이 곧 '루아흐'로서 '성령'이라는 뜻이다.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있어도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살게 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때 귀신과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를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은 불처럼 나타났다. 사도행전 2:2에서도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불처럼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령은 불에 비유된다.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우고, 또 귀신과 질병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힘을 태워 죽이고, 죽어 가는 세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불은 암도 태우고 온갖 악하고 파괴적인 모든 죽음의 세포들을 태워 죽이고, 대신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Helper, Counseller, Comforter라고 말한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이시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 14:26)

여기에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인데, '파라'라는 말은 '가까이'(near)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았다'(called)는 뜻이다.279) 즉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가까이 부름을 받고 오신 영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성령은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도 성령은 가까이 와 계셔서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

279). Ibid., 75.

시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영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고전 3:16)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기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약하여 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성령님은 사람의 영이나 마음이나 몸이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유와 관련된 교회론은 무엇인가? 필자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교회는 치유를 위하여 존재함을 논의한 바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몸의 지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교회란 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 하나 하나가 다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한 것이다. 하나의 지체라도 병에 걸리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온 몸이 머리에 지시를 잘 받고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 몸은 건강하다. 그러나 만약에 몸에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다면 그 몸은 이미 병이 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머리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몸의 각 지체는 각자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자기의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런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간혹 병에 걸리는 때도 있지만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과 성령님께서 그 병은 치유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쓰고 또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다. 교회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하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과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280] 온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교회가 치유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의 세포가 되는 한 가정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질병과 죄악을 몰아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의 세포가 암에 걸리면 온 몸에 퍼질 가능성이 언제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암 세포가 생길 때마다 즉시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교회는 치유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

280). Ibid., 77.

그리스도인들은 전인적인 건강을 누려야 한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치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예배, 찬양, 기도, 상담, 성례전, 심방, 봉사, 전도, 하나님의 말씀, 용서, 가정교회, 구역모임, 수련회 등에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 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라. 하나님 나라의 특성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에는 본래 장소나 일정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영국 연방국가들처럼 주권이나 왕이 다스리는 통치권 혹은 왕에게 속한 통치영역을 말한다.281)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면 하나님 나라를 초월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공간을 포함한 전우주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인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이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황금 실처럼 이어지고 있다.28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위에 임하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였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 데리고 온 것이다. 사망과 질병과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신, 또는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여 거짓으로 인류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위에 온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마태복음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왕과 함께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의 거센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

---

281). Tom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55.
282). Michael Harper, 예수의 치유, 203.

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까지도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나라의 증표다. 12제자들에게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고 70문도에게도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똑같이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도 질병도 죄도 마귀도 없는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하였으며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여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 적이다. 그것은 이미 도래한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성령을 통한 회개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요 3:3-5),[283]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는 세대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오는 세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지금 시대에도 맛 볼 수 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치유사역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가를 실제적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기도로 마귀를 묶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세상의 모든 자들을 나의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므로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과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구원과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마땅히 치유목회를 하여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여야 한다. 현재 이 세상에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교회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들을 고쳐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

283). Ibid., 63.

2. 성경적 근거

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사례들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여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복종하는 믿음의 자녀에게만 소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건강법은 하나님 자신이었으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의 법에 순종하여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치유자'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 중 하나는 '여호와 라파'(Jehovah-Rapha)인 바, 이는 '치유의 주님'이라는 뜻이다.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는 참으로 많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 주옵소서'(민 12:23).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시 6:2).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렘 17:14). 이러한 기도들은 모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이다(욥 2:5; 시 103:2; 사 53:4-5).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의 법칙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러한 법칙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84)

위생에 관한 법(출 29:14; 신 23:12-13), 청결에 관한 법(레 15장), 격리에 관한 법(민 5:1-14; 레 13-14장), 식이 요법에 관한 법(레 11장), 절제에 관한 법(민 6장) 안식에 관한 법(출 20:8; 레 25장).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병의 치유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출 15:26, 출 23:25)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시편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시 105:37)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치유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85)

치유 받은 욥(욥 42:8-17), 치유 받은 아비멜렉의 가솔들(창 20:17), 문둥병을 치유 받은 미리암(민 12:1-16), 뱀에 물린 사람들의 치유(민 21:4-9), 다시 살아난 어린 아이(왕상 17:17-24), 다시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왕하 4:18-37), 치유받은 나아만(왕하 5:1-14), 치유 받은 히스기야(왕하 20:1-11; 사 38장), 금식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단 1:10-16)이 있다.

구약에 나타난 치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나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

---

284).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38.
285). Ibid., 39.

어진 하나님의 특별치유였다. 고대 히브리 민족은 신체 허약자나 불구자는 지위에 관계없이 경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일단 질병에 걸리면 의술이나 약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치유이적을 기대하였다. 특히 남북조 포로시대 이후에는 인간의 힘으로 고치려는 자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다.286)

나. 신약에 나타난 치유의 실례들

신약성경 중 4복음서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치유의 사례들로 가득하고 12제자들이 전도 파송을 나아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70문도도 12제자들과 같은 치유사역을 담당하였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치유사역이 두드러지고 그 외의 사도들과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초대교회의 치유사역을 연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287)

치유는 초대교회의 사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것은 예수의 치유사역을 이어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상명령 - 가서 가르치고, 복음은 전하고, 치유하라는 -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권능을 받아 행하였다.

초대교회는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증언했다. 치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행 3:6, 16; 19:11-13). 초대교회의 치유사역에는 언제나 성령이 임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집단적인 복음전도와 교회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행 2:43, 46-47; 3:8; 4:21; 5:14; 8:6-8).

초대교회의 치유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극적으로 증거하는 일이기도 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 하시곤 했다. 따라서 그들의 적들조차도 예수를 주님으로 경배하는 새로운 영적인 운동의 거센 물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3. 역사적 근거

필자는 치유의 역사적 근거를 다루기 위하여 역사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고대 교부시대, 로마 카톨릭시대,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이후 시대 ,그리고 현대시대이다. 이미 구약시대, 예수의 지상 사역 시대, 사도시대는 다룬바 있다.

---

286).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222.
287).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48-49.

이것은 치유의 역사를 다루기 위한 편의상 구분이다.

가. 고대 교부시대

치유는 초대교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면 과연 치유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는가? 초대 교부들의 문헌들에서도 치유사역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교회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예수께서 계실 때 행하신 것처럼 인간들의 영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도 치유를 베푸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도 시대 이후 200년 동안 위대한 생명력의 시기를 경험하였다.[288] 주로 대도시들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소집단으로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구석구석에까지 뻗치는 거대한 영적 단체로 성장하였다. 하나님의 치유는 2-3세기에도 계속되었으나, 4세기에 들어와서는 점점 식어지게 되었다. 주의 명령이 철회되거나 사도들이 죽음으로 치유사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하여 교회내에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고 약해졌기 때문이다. 고대 교부시대에 치유에 관한 문헌을 남긴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289]

2세기 중엽에 저스틴이 기독교 신앙을 위한 변증론을 썼다. 그 안에서 그는 무당도 약도 마술도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못한 귀신들린 자를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치유하였다고 전한다.

그보다 조금 늦게 기독교 변증론을 썼던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이 여전히 기적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마귀를 내쫓았고,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병자들 위에 손을 얹어 치유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죽은 사람조차도 살아나 수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기도 했다. 3세기 중엽에 변증론을 썼던 터툴리안은 로마황제 세베루스가 한 그리스도인의 안수를 받고 병에서 치유되었다고 전했다. 그 후 세베루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호적이었고 자기를 치료하여 준 프로큘러스를 보답하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궁전에서 살게 하였다고 한다. 오리게네스는 그의 시대에 가장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그는 이교 사상을 한 가지씩 분석하여 타파하기 위해서 그의 위대한 논문인 「켈수스 논박」

---

288).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143.
289). William Barclay, 예수의 치유이적해석, 242-243.

(Againist Celsus)을 집필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악령을 추방하고 많은 치료를 행하였는가"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하였다. - 이러한 일 중에 많은 경우를 그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다.290)

5세기 중엽에도 아우구스틴(Augustine)은 아직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대 교부시대에도 교회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해 준다. 활발한 박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저술 활동을 했던 안디옥의 데오필루스(Theophilus)는 오늘날까지도 귀신들린 자들이 살아 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므로 치유 목회가 교회 내에서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문의 여지도 없다. 이때 교회는 치유의 수단으로써 기도, 기름 바름, 그리고 안수 등을 사용하였다.

나. 중세 로마카톨릭 시대

이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한다. 그 당시 카톨릭교회가 서구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삶의 중심지였다.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셨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치유의 사역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영혼의 치유를 강조하는 죄 용서(고해성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육신만의 치유행위는 의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취급되었다. 치유란 '죄라는 질병의 영혼 치유'라고 생각하였다. 치유를 위한 기름 바름은 죽음을 돕는 종부 성사로 발전하여 하나님의 계시나 치유는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주후 1151년).291) 초대교회에 왕성하던 치유사역이 이렇게 변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야만족의 정복으로 서방 세계 로마가 몰락하자 사람들은 현실적 삶에 회의와 꿈을 잃고 내세를 소망하게 되었다. 또한 제롬이 '치유하라'를 '구원하라'로 번역함으로서 야고보서 5:15를 죄라는 질병의 영적 치료라고 해석했다. 이것에 근거하여 1551년 트렌트 공의회는 종부 성사는 죽음에 임박한 자에게만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중세 교회는 육체보다 영혼을 중요하게 여겼다. 중세 교회는 인간의 이성적이여 논리적 사고에 의해 계시를 완전하게 발전시킴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중세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의한 계시나 치유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

290). Kelsey, Morton T., 치유와 기독교, 148.
291). William Barclay, 예수의 치유이적해석, 247.

이 세상에서의 위로보다 사후의 안락한 생활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육체적 치유보다 중요시되고, 의술적 치유 행위는 핍박을 받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법으로 금지시켰으며, 그래서 치유자는 위법자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으며, 부득불 치유를 할 때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된 것이다.292) 그 때에 교회는 병든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의 임종을 위해 성사를 행했다. 즉 이 세상에서는 건강과 기쁨은 없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오직 낙원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적이며 현실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의 기초 위에 기독교 사상과 관습을 세우는 대담한 시도를 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체험보다는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치유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영혼을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죄의 용서인 영혼의 치유를 강조하고 육체 치유를 경시하여 최근까지 카톨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다. 종교개혁 시대

종교 개혁자들의 관심은 로마 카톨릭 교회내의 부패와 불의에 대하여 관심이 컸기 때문에 기적이나 치유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약하였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초대교회 안에서는 치유의 기적들이 단순히 주어졌지만, 자기 시대에는 치유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초기에는 치유역사를 부인하였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그것들을 기록하는 일을 완수했으며, 그들이 쓴 것 외에 어떤 것도 더 이상 계시되어야 할 것이 남아 있지 않고, 새롭게 특별한 계시나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루터가 치유의 기적을 부인한 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치유에 관해 비성경적이고, 주술적인 내용들을 유포시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신앙을 통한 영적 구원의 가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체험적 신앙보다는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중심의 신앙을 우 선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도 1545년 6월 1일에 영적인 치료와 기름 부음에 관한 지침을 간단하게 기록함과 더불어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깊은 관심을 갖고 치유를 위해 기도

---

292).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246-247.

하고 치유에 관한 성구를 자주 인용하였다. 그 후 여행을 하다가 병으로 쓰러진 친구 멜랑흐톤(Melanchthon)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의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서 치유의 기적을 인정하게 되었다.293) 그로부터 5년 후인 그가 죽기 전해인 1545년에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기를 요청 받았을 때 , 루터는 야고보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치유의식에 관한 지시를 써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은 이곳에서도 한 가구 상이 정신착란으로 유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를 치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전의 교회의 두 위대한 성인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두 사람 모두-처럼 그는 만년에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오히려 중시하는 것을 배운 것으로 보인다.294)

개혁자 칼빈(John Calvin)은 영혼의 구원을 강조했고, 카톨릭의 치유 기적에 대하여 무엇인가 좋지 않은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그는 치유를 포함한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데에 대한 충분한 성경 구절을 지적하지는 못했다. 그가 그토록 치유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너무나 엄청난 부패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카톨릭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중대한 진리를 거의 외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했던 것이다. 칼빈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으며,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목회에 관한 중요한 관점들을 간과한 것이다.295)

라. 종교개혁 이후 시대

진젠돌프(Zinzendorf)에 의해 설립된 모라비안 교도(Moravians)들은 치유를 의심없이 믿었다. 그는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불치병(암, 폐렴 등)이 믿음의 기도나 말씀으로 치유된 확실한 증거와 사건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296)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영적 체험을 크게 두 번 하였다. 한번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9시 15분전쯤 런던의 작은 거리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작은 집회소에서 경험한 마음의 뜨거움이며, 또 한번은 그 후 약 6개월 뒤인 1739년 1월 1일

---

293). 이훈구, 지금도 행하시는 치유, 43.
294). Kelsey, Morton T., 치유와 기독교, 245.
295). 권택조,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54.
296).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251.

철야기도 때 있었던 경험이다. 그는 "새벽 3시에 우리가 개인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 사람이 땅 바닥에 쓰러졌다"고 경험을 말하였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줌(눅 24:49)을 느꼈음을 증거하였다.297) 그는 성령으로 감동하는 경험, 능력으로 입힘을 받는 체험을 한 후로는 사역하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영적 체험과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따르게 되었고, 그를 통한 치유사역은 부흥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웨슬레의 영적 체험은 그의 회심을 계기로 필라기우적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요한 웨슬레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들을 시도하였는데, 이 가운데 많은 치유가 그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또한 그 당시의 가장 유쾌하고 진실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그가 중요한 집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의 말이 발을 삐었다. 자연스럽게 그는 손을 말의 발 위에 얹고 낫도록 기도하였다. 어느 정도 계속하자 그 말은 회복되었다. 그리하여 웨슬레는 그 말을 타고 유쾌한 기분으로 도착하였다.298)

마. 현대 시대

켈시는 현대 기독교가 치유에 대하여 전과 다른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99)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 및 인간의 성품에 대한 대중적인 견해에 있어서 포착할 수 없는 점차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방세계의 문화의 몰락과 야만족의 정복과 관련되어 있었다. 신학적 사고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플라톤의 세계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으로 대치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어떤 직접적인 접촉도 수긍하지 않고, 따라서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기간들 전체에 걸쳐 동시에 생생하고 무비판적인 치유에 대한 관심을 지탱케 하였던 기적적인 일들에 대한 대중적이면서 간혹은 미신적인 믿음의 맥락이 계속 이어져 왔다. 신학적인 이해와 비판을 벗어나 이러한 믿음은 제기된 그 어떤 이야기도 믿기가 어렵게 될 때까지 점점 더 공상적으로 되어갔다.

그는 현대에도 많은 치유역사가 일어난다고 증거했다. 성직자 알렉산더가 만짐으

---

297). 이훈구, 지금도 행하시는 치유, 44.
298). Kelsey, Morton T., 치유와 기독교, 247.
299). Ibid., 213.

로 치유된 경우와 요한 크리스토프 부름하르트 목사가 무서운 정신병 든 소녀를 성령으로 고친 사건 등 1957년까지 일어난 사례 54가지와 독일과 영국에서의 치유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런 실례를 다 수집한다면 아마 수백만 건의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의 은사를 받은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고, 또 한편 「치유와 기독교」를 저술하여 치유목회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프란시스 톰슨(Francis Thomson)은 치유와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1905년 「건강과 성결」(Health and Holiness) 이란 책을 저술하였다. 미국의 치유목회 운동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의학적 지식의 점진적인 성장과 더불어 교회와 의학계에 많은 관심도가 증가하였다.300)

고든(A.J. Gordon)은 미국 보스턴의 위대한 침례교 목사인데, 1882년 「치유의 목회」(Ministry of Healing)에서 치유역사와 자신의 치유목회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치유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19세기 치유사역에서 또 하나의 뛰어난 인물은 에이 비 심슨 목사다. 원래 뉴욕에서 잘 알려진 권위있는 장로교 목사였다. 그러나 목회 중병을 얻어 교회를 사임하고 올드 오차드 비치에서 요양하던 중 치유를 받게 되었다. 그후 뉴욕에 돌아와 독자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6층 짜리 건물에 본부를 두고 치유사역 및 도시 빈민, 창녀 구호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심슨은 1889년 유명한 4중 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기초한 복음주의 교단인 기독교선교연합을 창설했다. 심슨 목회의 중심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37년 심슨은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뛰어난 치유사역을 수행했다.301)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거대한 오순절 운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1901년 켄사스 주 토페카에서 찰스 파램 목사가 운영하던 베델 성경학교에서 방언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1906년 파램이 로스엔젤레스에 파송한 흑인 성결주의 목사인 윌리암 시무어 목사에 의해 촉발되어 전 미국에 오순절 운동의 불길을 당긴 로스앤젤레스 아주사스티리트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이후 에이미 맥퍼슨, 데이비드 브랜함, 오랄 로버츠 등 유명한 치유사역자들이 나왔으며 1960년대에는 캐트린 쿨만이 그 치유사역으로 명성을 떨쳤다. 현재는 이 계통에서 베니 힌이 가장 유명하다.

이와는 다르게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이 아닌 보수적인 전통 교단의 배경을

---

300).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252.
301).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48.

둔 치유 운동이 1980년대부터 복음주의 신학교인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존 윔버와 피터 와그너교수가 대표적 인물들이다. 1985년 '표적과 기사 그리고 교회성장'이라는 과목이 윔버와 와그너에 의해 개설되어 전통적인 보수주의 교단에 치유사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치유사역을 제 3의 물결운동이라고 한다. 이 운동의 특징은 경배와 찬양 중심의 예배, 효과적인 기도의 강조, 능력전도, 영적 싸움에 있다. 즉 이 세계를 사탄의 왕국과 이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대결로 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치유사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 찰스 크래프트 교수의 「능력 그리스도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등과 켄 불루의 「치유의 권세」 등의 출판에 의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302)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를 무시하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치유목회는 역사적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인 치유의 체험과 20년간의 치유목회의 체험을 통하여 앞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보다도 더 큰 치유의 역사가 앞으로 21세기에 일어날 것을 믿는다. 우리 성지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제 2 절 건강한 교회의 치유목회사역

1. 성지교회의 역사

성지교회는 1978년 7월 31일 필자의 의하여 개척된 교회다. 필자는 1942년 3월 12일 서울 성동구 약수동에서 출생하였다. 부모는 불교를 믿었고 4살 때에 해방이 되었고 9살 되던 해에 6.25 사변을 겪었다. 교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나 한 두 번 갔다. 학교는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 공과대학 토목과를 나와서 모든 것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았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복음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년간의 군대생활을

---

302). Ibid., 49.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군대에서 너무 심하게 기압을 받고 고통스러워서 어떤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싹텄었던 것 같다. 제대를 한 후 복학할 때까지 한 달에 한번 정도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1968년 2월 4일 필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별안간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 죽음이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100일간의 철야 기도를 통하여 성령충만과 치유의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40살이 되면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1968년 8월부터 현대건설 토목 부에서 10년간의 직장생활을 하고 외국공사에 5년간 근무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1978년 10년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가정에서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가정교회로서 우리 성지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당시 필자는 37살이었고, 교회의 서리 집사였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사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은 그 다음해인 1979년 3월에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마포구 성산동에서 시작하였고, 다음에 신촌역 앞으로, 그리고 은마아파트 다음에 현재의 위치인 개포동 5단지 앞으로 옮겨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개척교회 당시에는 한 주일에 20시간 이상씩 가정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경공부하며, 상담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지냈다. 사람들이 얼마는 뜨겁고 성령에 충만했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치유를 체험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죄로부터 오는 많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었고, 과거에 상처 입은 감정, 쓴 뿌리들이 내적으로 치유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귀신들린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였고, 많은 육체적인 질병들이 치유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치유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였다.

현재까지 우리 성지교회를 통하여 20여명의 교역자가 태어났다. 처음에 이렇게 가정교회로 약 3년간을 지냈을 때는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였으며,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후 1982년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에는 탈진하여 죽을 뻔하였다가 40일 금식기도를 통하여 회생하였으나, 그후 건강이 계속 좋은 편이 못되고 항상 약한 가운데 지냈다.

그후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자연히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1983년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많이 져서 그것을 다 갚고 1988년 헌당할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하였다. 1989년에 1년간 안식년으로 영국에 다녀왔다. 그 후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 하였으나 교회는 현상유지 하는 상태로 거의 10년 이상을 가고 있는 차에 1997년 3월 21일에 안식년을 얻어 미국에 와서 D.Min 전과정과 논문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필자의 사랑하는 아내가 1992년 4월 24일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간 사경을 헤매다가 퇴원하여 침을 맞고 치유집회를 다니면서 많이 회복되어 지금은 걷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벼운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한 가정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6년 이상 여러 치유집회와 기도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와 너무도 다른 점이 많이 있고, 성령론과 은사론, 치유에 대하여 너무도 잘못된 것이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치유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체험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세계관과 세상의 구조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1998년 8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고 체험하였다.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주신 평신도 훈련센터에 대한 비전이 치유목회와 가정교회의 형태로 이루어 질 것이 확실하다. 우리 성지교회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확고한 기반하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워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될 것이다.

2. 성지교회의 현황

성지교회의 현재의 상황은 성전을 건축하여 1983년 12월 11일에 입당한 개포동 교회에서 현재까지 15년간 지내오고 있다. 부목사 1인 교육목사 2인 전도사 3인 장로 7인 안수집사 9인 권사 10인 직원 3인이 있다.

교인 현황은, 장년 주일 예배 출석교인 400명 교회학교 250명 남자 서리 집사 92명 여자 201명 합계 293명이다. 거의 10년간 현상유지하는 정도다.

3. 성지교회가 소재한 지역 분석

지리학적 요인은 전후좌우가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촌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많다. 교회가 상가 내에 자리잡고 있다.

겉에서 보면 상가 교회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주위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 아니다. 아파트의 이동인구가 심한 편이다. 분당 쪽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

경제적 요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국가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도 있다. 경제적 수준은 중산층이며 그 이하의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이 십일조 헌금을 잘 내고 있다. 선교헌금도 잘 내는 편이다.

인구학적 요인은 이곳에 생활권이 형성된 것이 우리 교회가 입주하던 1984년경이다. 이제 대부분이 안정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주위가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에 임대 들어 있는 작은 교회들이 20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다. 반수 이상이 아직 자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8학군이라고 해서 교육열이 높은 곳이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온 사람들도 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인구가 많은 곳이다.

아파트 지역의 특징은 작은 아파트는 11평에서 큰 평수는 34평이고 그 보다 더 큰 평수는 거리가 좀 멀지만 50-60평 이상도 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편이고 학력들은 높은 편이다. 옆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곳에서 가정교회가 아주 필요하다.

앞으로의 전망은 이곳의 지역특성을 더 깊이 연구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서의 맡은바 일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특히 가정교회를 잘 접목시키기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곳이다. 어떻게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를 잘 생산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4. 성지교회의 부흥에 부정적인 요소들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이 장사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리 교회의 일층은 상가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엉망이다. 교회의 주위가 어수선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찾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교회가 세속에 직접 파고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예배나 경건의 훈련이나 교육에는 좋지 않다.

주차장 시설이 없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현대 교회로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가까스로 따라 나왔다가도 다음주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상가 건물이다. 주위 분위기가 전혀 영적이거나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다. 3층 4

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노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여건이다.

오래 묵은 닭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타성에 붙은 신앙생활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나쁜 습관과 게으름을 깨뜨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성령의 폭탄적인 능력만을 기대할 뿐이다. 가정교회 활성화, 전도훈련, 기도훈련, 치유목회를 통하여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5. 성지교회의 건강한 면

말씀 중심의 교회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성지교회다. 성지(聖志)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성지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로 정한 것이다.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정하고 찬양중에 거하시고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찬양과 기도에 힘쓰고, 이로 인하여 성령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신도 훈련센터의 비전을 가진 교회다.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훈련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전망이다.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 기본적인 신앙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므로 성령충만한 삶을 영위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 가정, 직장,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체로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대체로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람들은 좀더 제자훈련과 기도훈련과 전도훈련을 시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치유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나와 나의 아내가 치유 받은 체험이 있고, 또 성경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므로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실제로 체험하여 알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하여 왔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치유목회를 할 것이다.

강한 훈련을 잘 받은 평신도 지도자가 될 사람이 많이 있다. 평신도 훈련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성경공부 및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부지런히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의 개혁과 변화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람들이 많

이 나타날 것이다.

6. 치유목회전략에 의한 성지교회 치유법

이상에서 논의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건강한 교회의 vital sign check list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적 리더가 있는가?. 목사의 비전과 리더십이 어떠한가?. 목회철학이 얼마나 확실한가? 목회에 대하여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선교의 관점으로 본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는 교회론이 확립되어 있는가? 교회의 우선 순위를 정하였는가? 교회의 사명,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선교 지향적인가? 어떤 효율적인 전도방법으로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특별한 전도기술을 연마하고 있는가?

기독교 교육과 성경공부와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평신도 리더를 키우기 위한 성경교육에 바탕을 둔 교회인가? 평신도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교회인가? 잘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새 신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단계별 성경공부반, 평신도 리더십 세미나, 일대일 양육 팀, 교육과 양육 부서, 목자 양성반, 큐티 나눔반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충만한 예배가 있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인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가?. 깊은 기도생활이 있는가? 찬양과 경배가 영적으로 풍성한가? 다니엘 기도 팀, 중보기도 팀 같은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 팀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열린 예배에 대해서도 계획 세우고 있는가?

성도들간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성도간의 친교가 잘된 교회인가? 사랑이 넘치는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있는가? 모든 것을 서로 깊게 나눌 수 있는 가정교회가 있는가? 어떤 동질성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가정교회의 사역만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평신도 목자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격려하는가?

교회의 구조와 기능이 효율적이며 적재적소에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가?. 은사발견과 은사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은사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자기의 은사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은사를 따라 기쁘게 봉사하는가?

교회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가? 자체 진단 위원회가 있는가? 친교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끼리끼리만 모여서 지내는데 익숙하지 않은가? 묵은닭에 대

한 활성방안이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한 교육과 양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습관적 그리스도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미지근한 사람들을 위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치유사역 팀과 중보기도 팀을 통하여 기도를 활성화하고 있는가?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치유에 대한이해, 치유의 방법들, 전인치유사역, 치유의 장애물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치유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가?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치유사역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치유사역 팀을 조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세상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역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지역 사회에 요구에 응하는 교회인가? 지역 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조사하며 연구하여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청년들의 문화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얼마나 불신자 위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지역사회 사람들과 대화의 광장을 가지고 있는가? 접촉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있는가? 양적인 부흥에 대하여 전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교회의 규모가 넉넉한가? 필요한 행정과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가? 대예배실과 주차장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교회의 부흥에 따른 교회의 시설에 대한 장 단기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넓은 공간과 좋은 시설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위에 논술한 건강한 교회를 위한 vital sign check list에 의하여 성지교회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1년 치유목회 프로그램을 세우고 교육과 훈련을 실행할 것이다.

교회의 부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의 지도력을 위하여 목사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안식년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한다.

선교의 관점으로 본 교회론을 교육시키고, 전도훈련을 강하게 시켜 누구나 전도에 힘쓰도록 만든다. 성지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명시한다.

평신도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한 성경공부 반과 제자 훈련, 단계별 성경공부 반, 평신도 리더십 세미나, 일대일 양육 훈련, 교육과 양육 부서, 목자 양성 반, 규티 나눔 반을 실시한다. 평신도 지도자의 안식년제를 연구하도록 한다.

예배를 충만히 드릴 수 있는 예배 학에 대한 교육과 열린 예배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한다. 찬양과 기도의 활성화 훈련 및 다니엘 기도 팀, 중보기도 팀, 찬양 사역 팀을 만들어 실시한다.

여러 종류의 소그룹 모임을 활성 화 한다. 가정교회론을 교육한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교회를 실시한다. 평신도 목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반을 실시한다.

성령의 은사론을 교육한다. 은사발견과 은사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성도가 은사를 따라 봉사하도록 한다. 교회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교육하고, 자체 내에 교회 질병 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교회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 발표한다. 치유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실시. 치유사역 팀을 구성한다. 지역 사회 조사팀을 구성한다.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불신자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21세기 성지교회 발전계획 위원회를 조직 연구한다. 성지교회의 부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치와 시설과 주차장 시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세우도록 한다.

가. 교육과 훈련법

성지교회는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르쳐도 잘 배우고 잘 따라올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므로 모든 성도들이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치유목회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어 온 교인이 함께 치유목회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논문에서 연구된 건강한 교회론을 전체 교인들에게 한번 교육한다. 그리고 새로 등록하여 성지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을 모두가 이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성지교회의 목적과 사명과 비전을 교육한다.

성지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임을 강조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한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받도록 한다.

성지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된 교회다. 구역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특히 구역 장(목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가르치어 가장 모범적인 가정교회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중요하므

로 성령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찰스 벤 엔겐의 역저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필독도서를 지정하여 모든 교인들이 잘 읽도록 하고, 우리 성지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에서 전도와 선교를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고, 흩어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다.

나의 논문을 중심으로 치유목회사역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에 중요성을 강조하여 항상 성령충만함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도한다.

전도와 치유와 모든 영적인 일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서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보 기도 훈련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킬 것이다.

큐티를 생활화하도록 권장하고, 새벽기도와 구역예배를 큐티 교재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여름수련회는 매년 특별주제를 정하여 실시한다. 특히 새 신자 교제에 초점을 두고, 또한 전도할 기회를 갖게 하고, 새로운 이웃을 사귀는 데 역점을 둔다.

여러 가지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두어 각자에 맞는 전도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토록 한다. 가정 좋은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로서 이웃과 사랑의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고 인간적으로 친해 진 후에 가정 교회로 인도하여 서로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기서는 목자를 중심으로 훈련한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치유의 양약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사람도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내 자신도 항상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모두 건강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이 모두가 건강할 때 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치유 목회의 신학적,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논술하였다. 또 필자가 목회하고 있는 성지교회의 역사와 현황과 지역을 기술하였다.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과 성지교회의 건강한 면을 살펴보았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vital sign check list와 이에 따른 치유목회 전략을 기술하였다.

제 6 장

결 론

논문을 시작하여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교회의 사랑의 배려로 1997년 3월에 21일에 18개월 동안 미국에서 안식년을 지낼 수가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 대한 것은 1996년 11월에 D. Min을 시작하면서 구상하였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지교회를 개척하여 목회 하면서 늘 고충을 느끼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것은 곧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과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었다. 왜 어떤 교회는 건강하여 잘 성장하고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와 Saddleback Community Church의 세미나를 참석하고 또 여러번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Pensacola에 있는 Brownsville Church에 가서는 성령충만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회개에 대한 것을 체험하며 보았고 또 Houston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에 가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하므로 가정교회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외에도 갈 수 있는 많은 교회를 탐방하였고, 또 치유집회에도 참석하였다.

제 2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건강한 교회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교회를 정의하였고, 선교적 관점으로 본 교회의 존재 목적을 기술하였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변질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모이기

에 힘쓰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제적인 터전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매일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장이 더 중요하다. 실전이 더 중요하다. 건강한 교회란 선교 지향적인 교회다. 교회의 모든 구조가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여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한다. 우리 성지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리더십임을 뼈져리게 깨달았다. 목사의 리더십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3 장에서는 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었다. 치유란 무엇인가를 정의하였다. 건강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치유의 여섯 가지 목적을 규명하였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 치유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사도들의 치유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전인 치유사역의 4가지 분야를 자세히 다루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치료방법을 사용해야 좋은 치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 많은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그것은 서양적인 계몽주의 사상과 문화와 교육의 영향 때문이다. 한 마디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해석과 성경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영의 생각보다도 육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영적 신앙보다도 이성을 앞세우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사상과 치유에 대한 많은 무지와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불신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치유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치유의 장애물들에 대하여 자세히 규명하므로, 교회 내에서 이런 치유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얼마라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치유목회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다. 목회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목회자의 인격이며 또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기량에 대하여 다루었다.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므로 여러 가지의 인간이해를 다루면서 성경적 인간이해를 더 확실하게 하였다.

질병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구약과 신약성경에서의 질병의 의미를 다루었다. 특히 질병의 근원이 사탄임을 규명하고,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질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오해에 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아님을 논술하였다. 질병의 여러 가지 발생통로를 기술하였다. 질병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해석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제 5 장에서는 치유 목회의 신학적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논술하였다. 또 필자가 목회하고 있는 성지교회의 역사와 현황과 지역을 기술하였다.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과 성지교회의 건강한 면을 살펴보았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vital sign check list와 이에 따른 치유목회 전략을 기술하였다.

지난 20년간의 나의 목회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 내가 먼저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6년 이상을 중풍으로 투병하는 것을 보면서 치유목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건강한 교회란 결국 교인 한사람 한사람이 건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과 건강이란 전인적인 것이란 사실이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모인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맡은바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 21세기 교회는 치유목회의 시대가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만이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종합 치유 원이 되어야 한다. 치유목회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반 위에 가장 모범적인 치유목회를 할 계획이다. 나의 이론과 체험을 토대로 하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치유하여 평신도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다.

나의 꿈과 비전은 성지교회가 21세기에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가장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성지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건강하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삶을 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참고문헌

1. 국내 서적

권택조,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서울: 신망애출판사, 1987.

김상복, 화목한 가정생활 바꾸기, 서울: 나침반, 1995.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김영준,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서울: 두레시대, 1995.

김용호, 교회내 병적요소를 치료합시다, 서울: 종합선교-나침반사, 1995.

김진호, 숨겨진 보물 예배, 서울: 예수 전도단, 1992.

김종순, 건강한 교회의 미래, 서울: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1994.

박재형, 스트레스는 없다, 서울: 도서출판 건생, 1995.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치유, 1994.

_____, 탁월한 목회 리더쉽, 서울: 도서출판 자유, 1994.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송천호, 교회갱신 이렇게 시도한다,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6.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9.

_____, 은사와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처출판 두란노, 1995.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서울: 도서출판 좁은문, 1995.

이길상, 성서에서 본 자연치유력과 건강법, 서울: 기독문화사, 1994.

_____, 성서에서 본 식생활과 건강법, 서울: 기독문화사, 1996.

이남하, 평범한 사람들의 별난 교회, 서울: 나침반, 1997.

이성훈, 내적치유, 서울: 은혜문화, 1993.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이승구,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여수룬, 1996.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5.

이정열, 현대인을 위한 행복한 삶과 건강, 서울: 도서출판 주이레, 1997.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_____,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_____, 교회론 I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이훈구, 지금도 행하시는 치유, 서울: 도서출판 양문문고, 1996.

조무남, 치유목회, 서울: 한국영성치유목회연구원, 1993.

조현, 성경이 말하는 귀신쫓는 방법, 서울: 할렐루야서원, 1990.

최승호, 21세기 한국교회의 비전,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7.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최재락, 위기와 교육적 치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한국교회문제연구소,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한국로고스 연구원 1994.

한국교회장기목회연구원편,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7.

황의영, 교회의 직임과 리더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 번역서

Allen, Charles L., 치유하시는 하나님, 황승룡 역. 서울: 장로회 총회출판국, 1992.

Baker, Don, Nester, Emery, 침체로부터의 자유, 박가영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5.

Banks, Robert,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한화룡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4.

Barclay, William, 예수의 치유이적해석, 김득중. 김영봉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1.

Barna, George, 능력 목회 비전,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_____, 비전있는 지도자 비전있는 사역, 곽춘희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4.

_____, 교인에게 친숙한 교회, 최대형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_____, 비전을 실행하는 지도자, 조범식 역.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_____,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 김광점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7.

Biehl, Bobb, 사람을 세우는 22가지 원리 멘토링,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Blauw, Johannes, 교회의 선교적 본질, 전재옥.전호진.송용조 공역. 서울: 대한예수교

총회출판부, 1988.

_____, 구원사속의 선교, 채은수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Blue, Ken, 하나님의 병고치는 권세, 조종남 옮김.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Bright, Bill, 영적 진단과 치료, 장동민 역.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2.

Callahan, Kennon L., 성숙한 교회의 12가지 열쇠, 권오서 역.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8.

Calvin, John, 기독교 강요(상,중,하) 이종성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Carroll, Jackson W., 목회 지도력, 김남석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5.

Chafer, Lewis Sperry, 성경으로 본 사탄의 정체, 김만풍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89.

Clowney, Edmund P., 교회, 황영철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8.

Colson, Charles, 이것이 교회다, 김애진 역. 서울: 홍성사, 1997.

Depree, Max, 리더십은 예술이다,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한세, 1997.

Duewel, Wesley L., 열정적인 지도자, 정중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Duhan, Leonard, 평신도 중심의 교회, 심광섭 옮김. 서울: 평신도신학연구소, 1994.

Dunkerly, Don, 병고치는 기도사역으로 전도 부흥할 수 있다. 권혁재 역. 서울:나침반, 1996.

Fairlie, Henry, 현대의 7가지 죄, 이정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Fickett, Harold L., 교회성장의 열 가지 원리, 조해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Galloway, Dale E. 20/20 비전,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4),

George, Carl F., 교회성장의 한계 이렇게 돌파하라, 최예자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1996

_____,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옮김. 서울: 요단출판사, 1997.

Gilbert, Larry, 팀 사역, 채수범.황석호 공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1995.

Graham, Billy, 성령론, 전민식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5.

Haggai, John E.,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Harper, Michael, 예수의 치유, 고재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Hawkins, Don, Meier, Paul, 탈진된 마음의 치유, 김은철 역. 서울: 규장, 1995.

Hiebert, Paul G.,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호 이종도 이현모 장흥호 공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_____,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 공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Hirosh, Honda, 스트레스와 갱년기, 이용풍 역. 서울: 오상, 1992.

Hocking, David L.,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김원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Howe, Reuel L. 대화의 기적, 김관석 역. 서을: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3.

Hull, B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옮김. 서울: 요단출판사, 1993.

Hunter, Charles Francis, 신유의 방법, 이미혜 역. 서울: 서울서적, 1988.

Icenogle, Gareth Weldon,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공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Jeffery, Peter, 그리스도인의 질병과 죽음, 김원주 역. 서울: 목회자료사, 1995.

Kaiser, Walter C., 치유자 예수님, 김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횃불, 1995.

Kelsey, Morton T.,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Koch, Kurt, 영적구원치료, 이중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Kraft, Charles H., 능력 그리도교, 이재범 역. 서울: 초서출판 나단, 1992.

_____,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윤호 역. 서울: 은성, 1995.

_____,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윤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Ladd, George Eldon.,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Lloyd-Jones, David Martin, 영적침체, 오성종,유영기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2.

_____, 의학과 치유, 정득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Macarthur, John, 교회의 해부학, 한화룡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1996.

Macnutt, Francis S., 치유, 변진석.변창욱 역. 서울: 도서출판 무실, 1996.

Marshall, Tom,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아상신 역. 서울: 예수 전도단, 1997.

Maxwell, John,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1997.

_____, 당신 주위에 사람을 키우라,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7.

Means, James E.,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배헌석,김응국 공역. 서울: 나침반, 1997.

Moltman, Jurgen,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외 4인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서, 1984.

Nash, Tom, 마음을 사로잡는 케뮤니케이터, 독고 앤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3.

Ogilvie, Lloyd John,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함무근 역. 서울: 도서출판 글터, 1995.

_____, 치유, 유재덕 역. 서울: 도서출판 호산, 1997.

Parker, William, Jouhn, Ellin, 기도와 전인치유, 김선도역. 서울: 도서출판 광림, 1992.

Pearson, Mark A.,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윤수인 역. 서울: 은성, 1996.

Price, Frederick. K. C., 목회성공 이야기,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8.

Sanford, Agnes, 치유의 빛, 이석산 역. 서울: 도서출판 한국양서, 1996.

Satir, Virginia,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술, 김만두 역 서울: 홍일제, 1995.

Seamands, David A., 좌절된 꿈의 치유, 이갑만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_____,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Smith, Chuck, 기도와 치유, 신동철 역. 서울: 도서출판 건생, 1997.

Snyder, Howard A., 21세기 교회의 전망, 박이경, 김기찬 옮김. 서울: 아가페, 1996.

Southard, Samuel, 마귀론과 정신질환,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Spader, Dann,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채슬기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Stanger, Frank Bateman, 위대한 의사 예수, 배상길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Towns, Elmer, 팀 지도력, 최예자.황석호 공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1996.

Trudinger, Ron, 가정 소그룹모임, 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Twentier, Jerry D., 칭찬의 위력, 정정숙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6.

Urguhart, Colin, 치유함을 받으라, 이광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Van Engen, Charles,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Wagner, C. Peter, 교회 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_____,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이재범 역. 서울: 나눔터, 1997.

_____, 건강한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요인들, 홍용표 옮김.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Watson, David C. K., 성령안에서 하나 주 안에서 하나, 김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횃불, 1995.

Westing, Harold J., 개성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오진탁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White, Tom, Murhpy, Ed 등,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장미숙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White, John, 능력표적, 나단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_____, 내적혁명, 김경옥 역.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7.

_____, 탁월한 지도력, 이석철 역. 서울: 대한기독학생회 출판부, 1997.

Willmington, H. L., 부리는 영과 꾀는 영, 목양서원편집부역. 서울: 목원출판사, 1995.

Wimber, John, Springer, Kevin, 능력치유,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Wittman, E. C., Bollman, C. R., 성서의 치유, 이희숙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96.

Wright, Norman, 행복한 부부대화의 열쇠, 차호원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5.

3. 영문서적

Brown, Michael L. Israel's Divine Heale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Hamon, Bill. The Eternal Church, Christian International Publishers. 1997.

VITA OF

Yong Il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Sung Jee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 March 12, 1942

Marital Status : Married to Hei Ja Lee

Home Address : 184-7, Jukjun-Ri, Suji-Eup, Yongin-City, Gyunggi-Do.

Phone : Home : 031-264-4543

Denomination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ained : April 11, 1984

Education

B.S.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8

M.Div.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2

D.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0

Ministerial Experience

Jul 1978 to present : Senior Pastor of Sung Jee Presbyterian Church

Aug 1968 to Jun 1978 : Civil Engineer of Hyundai Construction Company